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과 가족 형성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 이 나 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연구 지원 정 수 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 경기도 청년의 생평등 의식과 가족 형성에 관한 연구

발 행 인 김 혜 순

발 행 일 2023년 12월 31일

발 행 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 쇄 디자인펌킨

I S B N 978-89-6432-646-6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연구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대 이후 기존과 달라지고 있는 청년의 삶의 환경 및 조건, 생활 방식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사회 전반에 있어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청년세대의 혼인 및 출산 관련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성역할 태도와 비혼(미혼)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 지기는 했으나, 개인의 성역할 태도뿐 아니라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관련 정책 인식 등을 아우르는 청년의 성평등 의식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함.
- 결혼 및 출산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데 기초적인 부분으로 비혼 및 동거 증가, 이혼 및 재혼 증가 등으로 인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 구성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 수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 청년의 성평등 인식 및 가족 형성 태도의 분석은 향후 경기도 가족 정책 수행 및 저출생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등의 발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추진되어 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 성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이 주요한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는 청년들의 성평등 인식과 가족 형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음.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족을 형성하여 발달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이에 성평등 의식과 정책 요구를 바탕으로 한 가족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인식 및 가족 형성 인식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경기도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 내용

- 청년 관련 연구 및 현황을 분석함.
 - 청년의 성평등 인식 및 가족 관련 학술논문, 정책 연구 등 검토,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청년 인구 및 청년 정책 현황 분석
 - 청년의 성역할 태도 및 가족가치관 현황 분석
- 경기도 성평등 의식 조사의 청년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및 가족 형성 인식을 분석함.
 -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및 성평등 정책 인식, 결혼 및 출산 결정 의향 분석, 대상 특성에 따른 집단 분석
 -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및 가족 형성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수요 분석
-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인식을 반영한 가족 정책 도출 및 제언
 - 정책 함의 도출 및 향후 경기도 가족 정책 방향 제언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경기도민의 성평등의식 실태조사 자료 분석
 -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노경혜·정형옥, 2023)의 원자료 중 19세~39세 청년 795명 자료 재분석
- 면접조사
 - 19세~39세의 청년 8집단(성별 및 연령대별 집단 구성)
- 전문가 자문회의

2. 경기도 청년 관련 현황

가. 경기도 청년 인구 현황

- 2022년 경기도의 청년 인구는 3,754,815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7.6%를 차지함. 경기도의 청년 인구 수는 202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 경기도 청년의 성별 인구는 2022년 여성 1,790,540명, 남성 1,964,275명으로 지난 5년간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적었음.
- 경기도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만혼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어머니의 평균 출산연령은 33.36세이고 경기도는 33.45세로 전국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2001년 전국 29.27세, 경기도 29.38세에 비해 약 4세 증가하였음.

나. 성역할태도 및 가족 관련 인식

- 가족부의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과 경기도 청년의 성역할 및 가족 인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봄.
- 성역할 태도 인식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전형적인 성역할 태도를 동의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음. 연령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19~29세 청년이 30대 청년보다 덜 전형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음.
- 가족 형성과 관련한 다양한 삶의 형태 중 청년의 동의가 가장 높았던 형태는 이혼 및 재혼,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이었으며 가장 낮은 동의 비율을 보인 가족 형성 형태는 결혼없는 출산에 대한 동의로 20.5%의 청년이 동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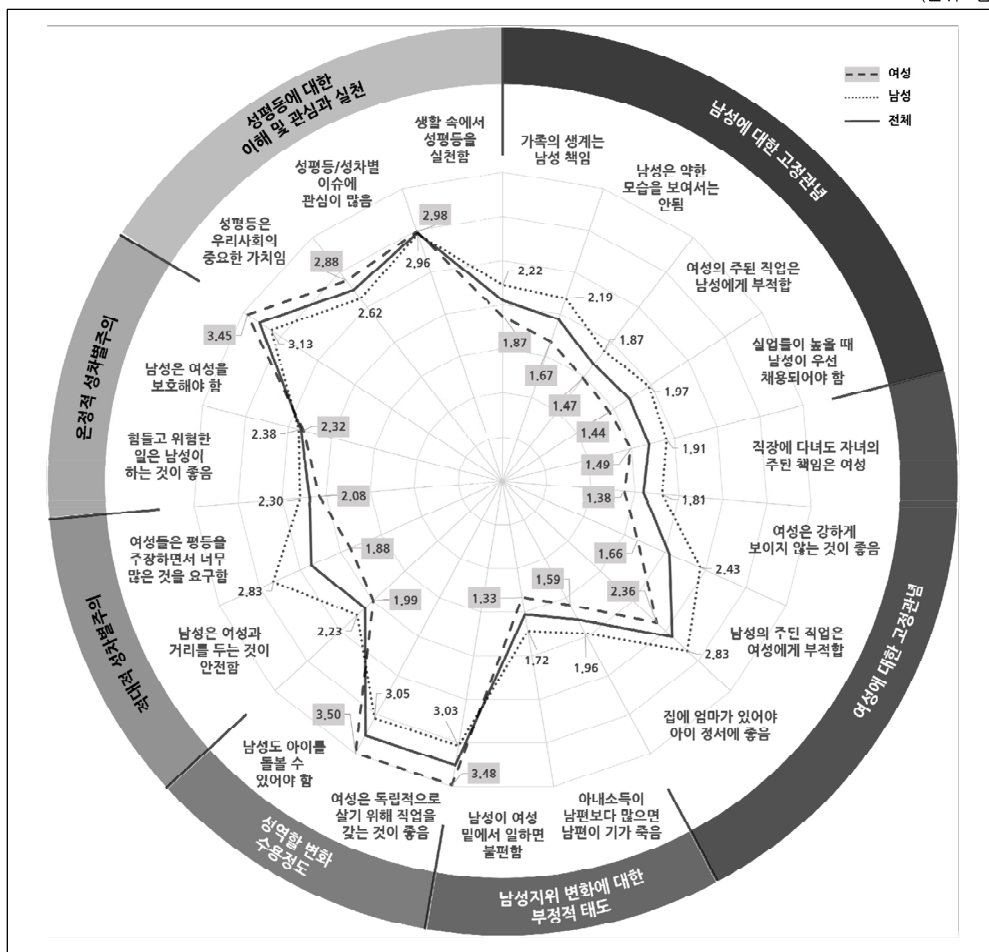
3.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과 가족 형성 인식 조사 분석

가.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인식

-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토대로 한 문항에는 8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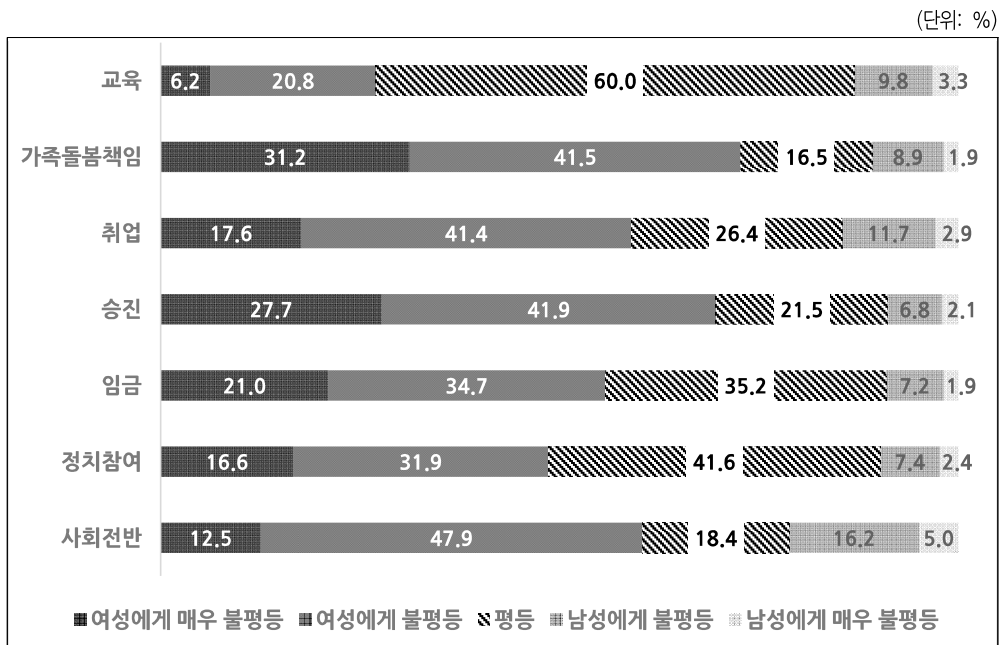
(단위: 점)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 성평등 의식을 측정한 각 문항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문항은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로 여성 청년들은 25.1%만이 동의한 것에 반해 남성 청년들은 과반수 이상인 66.4%가 동의하여 현재 청년 세대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줌.
- 연령대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19개 문항 중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은 9개 문항이었음. 성역할 태도와 관련하여 30대가 20대보다 유의미하게 전형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으며, 성평등 관심 및 실천과 관련하여서는 20대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음.
- 교육, 가족돌봄책임분담, 취업(일자리), 승진(관리직 진출), 임금(소득) 등의 6개 영역에 있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청년은 각 영역에 따라 성평등 수준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음. 응답자의 60.4%가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은 여성에게 불평등(매우 불평등 포함)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2] 영역별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부분에 있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여성의 차별 경험 응답이 남성보다 더 높았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가족 내 재산(상속) 분배, 학교생활, 임금 부분에서 차별 경험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재산분배 및 임금에서는 30대가, 학교생활은 20대가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청년의 70% 이상이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33.7%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31.1%)보다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년은 35.2%로 더 많았음.
- 성별에 따른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평등 정책을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음.
-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12가지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돌봄지원 강화, 양육 부담 경감 지원 등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중요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여성창업지원이었으며, 돌봄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도는 높으나 여성 경제활동 관련 정책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나. 경기도 청년의 가족 형성 인식

- 현재 비혼 상태인 분석대상자 중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9.9%, 잘 모르겠다(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30.3%,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이 29.8%였음.
- 성별에 따른 결혼 의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청년 여성의 경우 40.7%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청년 남성은 과반에 가까운 47.6%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결혼 의향에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결혼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20대 남성(50.3%)으로 과반수 이상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결혼 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집

단은 30대 여성으로 30.2%였음.

-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인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결혼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27.9%)’ 였으며, 2순위 응답에서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었음.
 -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1순위) 응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여성은 전체와 마찬가지로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34.6%)’, ‘누군가와와의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22.3%)’ 의 응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 남성의 경우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자신이 없어서(28.8%)’, ‘집, 혼수 등 결혼 비용이 부담되어서(22.1%)’,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20.2%)’ 순이었음.
 -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이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응답 형태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 현재 자녀가 없는 청년 중 37.1%가 가질 생각이 있다고 하였으며 34.7%는 가질 생각 없다고, 28.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음.
 - 자녀 의향 역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은 45.5%로 가질 생각이 있다는 여성(29.6%)보다 많았으며, 남성은 44.3%가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함.
 -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 및 연령집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20대 남성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반면 20대 여성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 경기도 청년들이 자녀를 가질 생각 없는 이유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자녀 양육·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서(36.3%)’ 였으며,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21.3%)’ 가 두 번째로 많았음.
 -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1순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여성은 경제적 부담과 좋은 부모에 대한 자신감이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보였으나, 남성은 압도적으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성별과 연령대 조합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1순위 응답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1순위 응답이 가장 많은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 응답은 30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30대 여성들

은 좋은 부모가 될 자신감 부족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음.

- 성평등 인식 19개 문항 중 결혼 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나타난 것은 총 11개 문항이었으며, 자녀 출산 의향에 따른 성평등 인식은 12개 문항으로 결혼 의향에서 나타난 11개 문항에 1개 문항이 추가되었음.

[표 1] 결혼의향 및 자녀의향에 따른 성평등 인식 차이가 나타난 문항

구분	문항
결혼 및 자녀 의향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자녀의향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 경기도 청년의 결혼 의향 및 자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성평등인식 문항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경기도 청년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 19개 성평등 인식 문항 중 2개의 문항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성평등 인식 문항 중 1개 문항이 유의미하였음.

- 경기도 청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고 생각할수록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청년은 여성보다 남성이,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청년의 결혼 의향 및 자녀 의향에 따른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및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을 분석할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차별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차별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4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향에 있어서도 차별 경험에 없는 청년들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40% 이상이었으나 차별 경험에 있는 청년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음.

4.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및 가족형성에 관한 집단면접조사

가. 조사개요

- 경기도 청년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하여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음. 조사참여 대상자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면접집단은 5세 단위 연령과 성별로 분류하여 여성 4개 집단, 남성 4개 집단, 총 8개 집단으로 구성하였음.
- 면접조사 내용은 결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의향, 성장과정 및 현재 생활에서의 성차별 관련 경험, 가족형성을 위한 정책 요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8개 집단으로 구성된 면접조사 참여자는 총 47명으로 여성 24명, 남성 23명이며 39명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음. 결혼한 상태인 참여자가 13명, 미혼(비혼) 33명, 이혼 1명이었고, 자녀가 있는 참여자는 6명이었음.

나. 조사결과

1) 생애과정에서의 성차별 경험

-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라면서 가족에서 성차별 경험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전반적으로 크게 성차별 경험이 없었다고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즉각적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예들을 언급한 것에 반해, 남성들은 ‘별로 없었다’의 반응을

보인 후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차별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으나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다는 형태의 응답을 보였음.

- 청년들은 자신의 원가족에서는 별로 차별 경험을 하지 못했으나, 확대가족, 즉 큰집 등에 갔을 때 차별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음. 차례나 제사 등의 전통 의례에 있어서 경험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처우에 대한 변화 요구 등을 통해 지금은 그런 경험이 덜하다고 응답하였음.

□ 면접참여자들은 가족보다는 학교나 취업 과정, 직장 등의 사회생활에서 성차별 경험이 더 많았다고 응답하였음.

□ 학교도 가족과 마찬가지로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참여자가 있는 반면, 학교에서의 성차별 경험을 자세하게 나열하기도 하였음.

- 학교에서의 경험에 있어 교사의 태도로 인해 성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청년들은 회상하였음. 여성들은 여자다움을 강조하는 교사의 ‘암전’ 해야 한다는 걸 은연중에 들어왔고, 남성들은 무거운 짐은 남성이 들게 하는 일들을 경험함.

- 남성들은 학교 시설에서 성차별을 경험을 토로하며 체육시간 체육복을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여학생에게만 제공된 부분을 언급하였음.

□ 면접참여자들은 가족이나 학교에 비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성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음.

- 면접 과정에서 여성에게는 결혼이나 출산계획을 물어보았으나, 남성에게는 전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경험을 함. 여성들은 여성에게 기혼이나 자녀 계획은 부정적인 측면인 것에 반해 남성의 기혼 상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음. 반면, 남성들은 취업과정에 있어 결혼이나 자녀 계획 관련 내용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차별적 요소로 남성들에게만 지방 발령 관련 질문 등을 언급하였음.

-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한 차별에 대해서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 승진 등에서 배제된 경험을 토로하였으며,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았음.

- 남성들은 같은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 또는 사람들의 태도로 인하여 차별을 경험한다고 토로하였음. 남성이라서 더 어렵거나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성교육 등에서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가해자 프레임에 얘기하고 있음. 성교육 등에 있어 남성에 대해서만 변화를 요구함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였음.

2) 젠더 이슈

- 대부분의 면접 참여자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인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자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약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이분법적 역할 분담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특히,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해서는 이전 세대들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고 남성만이 생계부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들이 주 생계부양자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사회의 현실적인 젠더 임금 격차로 인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약화되었으나, 여성의 돌봄자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식이 강하였음. 남성들이 경제적 능력을 전제로 하여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반해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의 문제보다는 여전히 문화적으로 여성, 아내, 또는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별 역할 전이는 쉽지 않음을 표현하였음.
- 경제적 능력을 생계부양자 역할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돌봄의 가치가 높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장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돌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음. 이는 현재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 돌봄자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임.
- 성별 고정관념이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면접참여자들은 이러한 역할 수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작용한다고 보았음. 즉, 머리로는 평등을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의 활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임.
- 젠더와 관련한 이슈 중에서 남성 청년들이 주로 언급하는 부분은 군대였음. 군가산점이 폐지됨으로 인해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가산점이 부활해야 한다고 보았고 군가산점뿐 아니라 여성들도 당연히 군대를 가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20대 여성들은 군대를 가야 한다면 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인구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남녀 모두를 징병하고 가산점도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차별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닌 자기보호 차원에

서 군대 복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실제 사회생활에서 남성은 군가산점으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없어진다면 군대를 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청년들은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변화해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들은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남성 참여자의 경우 사회는 성평등해졌는데 남성들에게는 의무와 책임을, 여성은 평등만 주장한다고 보았음. 반면 여성 참여자들은 성평등은 강조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 일상생활에서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경제활동과 함께 여전히 여성에게 많은 가족 역할 부담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임.

3)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

-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년들 역시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남성들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음. 여성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과 달리 남성들은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결혼을 할 의향이 없는 청년들이 언급한 주요한 이유는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여 이 역시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음. 여성의 경우 결혼이 자신이 사회적 커리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결혼을 꺼리는 반면, 남성들은 결혼단계(결혼문화)부터 작용하는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로 언급하였음.
 - 결혼의향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자신의 원가족임. 부모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결국 자녀의 결혼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원가족의 행복한 삶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해서 자신도 이러한 가족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살고자하는 의지가 강하였음.
 - 결혼에 대한 의향이 강하지 않은 청년들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면 결혼 대신 연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면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결혼을 선택하는데 있어 명확한 이유가 없는 특성을 보이면서도 자녀를 낳을 생각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던 청년들은 자녀를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명확

하게 표현하였음.

- 경제적 부담과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음.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그 기저에는 경제적 부담과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이 자리하고 있었음.
 - 지나친 경쟁 사회,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최근 뉴스화되고 있는 마약문제 등과 같은 현상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자녀를 선택하는데 있어 방해요소로 자리하고 있었음.
 - 남성들의 경우 자녀에 대한 결정권을 여성에게 미루는 경향도 보였음. 결국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야 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자신의 부모가 보여주는 역할 모델은 자녀에 대한 청년의 긍정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가져왔음.
-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년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음.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청년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였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있으나 자신들의 부모만큼 경제적 지원(사교육 등)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 성별과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이유는 경력단절이었음. 여성 참여자들은 경력단절이 되는게 아쉽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될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였음.

4) 정책 요구

-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성평등 관련 정책은 무엇보다 인식개선이 중요함을 언급하였음. 사회의 분위기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성별에 따른 차이와 차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며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성인 대상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일찍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성평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교육은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필요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임. 쇼츠의 형태처럼 20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시대변화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성평등정책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자녀를 낳고 싶고 키우고 싶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임. 아이를 환대하지 않거나 부모의 잘못된 양육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현재의 저출생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만 급급하여 실제 자녀를 낳고 키우는 환경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았음. 청년들이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교육비의 문제이나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현금성 정책이 없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음. 실질적인 돌봄 활동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돌봄 공백이 있는 아동기 자녀에 대한 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청년들은 저출생 대책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낳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낳으라고 강요하는 사회적 압박으로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 싶은 사람에게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5. 제언

- 학교에서부터 지속적인 인식 개선 교육 필요
 -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 온정적 차별주의 등과 같은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함. 평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생활과 연계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나 자녀가 나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 삶의 다양한 형태 중의 하나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인식개선은 일회성의 교육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육

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감수성을 높이고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함. 학교에서부터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가족 가치 및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음.

- 정규교육뿐 아니라 성인기로 진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함. 경기도 내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고 31개 시·군에는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학내 학생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가치확산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부대, 직장 등과 연계한 교육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 성평등 의식과 가족가치관을 포괄하는 교육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양질의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저출생 대응 정책

-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이를 낳아야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
-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정책으로 난임 부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것 역시 필요함.
- 일회성의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함.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실질적 지원 확산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부모가 함께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경험을 첫 자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돌봄지원에 있어 맞벌이 가족 우선 지원 확대와 같이 함께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체감할 수 있는 돌봄친화적 환경 조성

- 돌봄자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사회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돌봄자의 권리로써 휴가 및 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일·생활 균형 컨설팅, 가족친화 컨설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등을 활용하여 일터에서의 인식 개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사업체 운영자 및 중간관

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하여 평등한 제도 활용과 제도 활용 용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 제공이 필요할 것이며, 기본적인 제도 사용조차 용이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문고와 같은 형태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일상생활에서 아이를 키울만한 환경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함.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안전이 보장되며 영유아와 같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도 어려움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상의 생활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남성 돌봄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활동을 하는데 있어 성별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돌봄 역할 수행에 있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청년들은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현재 사회 환경은 부모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아이들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함. 내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범과 규율에 대한 훈육을 부모가 해야 한다는 기본적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돌봄기관이나 학교에서도 부모 교육에 있어 부모의 기본적 양육 역할에 대한 태도를 포함해야 함.

□ 다양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

- 다양한 유형의 가족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는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인지하고 어떤 삶을 선택하여 살아 가더라도 환영받는 사회 환경이 필요함.

- 향후 가족 형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삶의 한 형태로서 가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나. 청년의 정의	5
2. 연구내용 및 방법	10
가. 연구내용	10
나.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11
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인식	11
나. 청년의 가족 형성	14

제2장 경기도 청년 관련 현황

1. 인구 및 관련 정책 현황	21
가. 경기도 청년 인구 현황	21
나. 경기도 청년 관련 정책 현황	25
2. 성역할 태도 및 가족 관련 인식	27
가. 성역할 태도	27
나. 가족가치관	30

제3장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인식과 가족 형성 인식 조사 분석

1. 분석 개요	37
가. 분석 자료	37
나. 분석 대상	39

2.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인식	41
가.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41
나. 경기도 청년의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51
3.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정책 인식	60
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60
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중요도	62
4. 경기도 청년의 가족 형성 인식	63
가. 결혼에 대한 태도	63
나. 자녀에 대한 태도	67
다. 성평등 의식과 가족형성 인식	70
라. 사회 성평등 수준 및 차별경험과 가족형성 인식	74
5. 성평등 인식에 따른 청년 집단 특성 분석	78
가. 청년 집단 분류	78
나. 집단별 특성	82

제4장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및 가족형성에 관한 집단면접조사

1. 조사개요	103
2. 조사결과	106
가. 생애과정에서의 성차별 경험	106
나. 젠더 이슈	113
다.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	120
라. 정책 요구	130

제5장 논의 및 제언

1. 논의	139
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성평등 의식과 가족 형성의 다른 인식	139
나. 청년세대의 높지 않은 가족형성 의지	140
다. 다양한 가족 형성에 대한 인식 확대 필요	142

2. 제언	143
가. 학교에서부터 지속적인 인식 개선 교육	143
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저출생 대응 정책	145
다. 체감할 수 있는 돌봄친화적 환경 조성	147
라. 다양한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	149
참고문헌	153

표 목 차

[표 1-1]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의 청년 정의	6
[표 2-1] 경기도 청년 인구(2018-2022)	21
[표 2-2] 경기도 청년 성별 인구(2018-2022)	21
[표 2-3] 경기도 연령별 성별 혼인상태(2020)	23
[표 2-4] 경기도 모의 연령별 출산율(2001, 2022)	24
[표 2-5] 청년 관련 성평등 및 가족 정책	26
[표 2-6] 전국 및 경기도 청년의 성역할 태도	28
[표 2-7] 전국 및 경기도 청년의 다양한 가족 형성에 대한 인식	31
[표 3-1] 분석에 사용된 조사 내용	38
[표 3-2] 분석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39
[표 3-3]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41
[표 3-4] 4개 연령집단에 따른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48
[표 3-5]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50
[표 3-6] 성별에 따른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52
[표 3-7] 연령대에 따른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55
[표 3-8] 경기도 청년의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56
[표 3-9] 경기도 청년의 차별 경험	59
[표 3-10]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61
[표 3-11] 정책별 정책 중요도	62
[표 3-12] 경기도 청년의 결혼 의향	63
[표 3-13] 연령집단에 따른 경기도 청년의 결혼 의향	64
[표 3-14] 성별에 따른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이유	66
[표 3-15] 연령대에 따른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이유	67

[표 3-16] 경기도 청년의 자녀를 가질 의향	68
[표 3-17]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	69
[표 3-18]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1순위)	70
[표 3-19] 결혼의향에 따른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71
[표 3-20] 자녀의향에 따른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72
[표 3-21] 경기도 청년의 차별 경험에 따른 결혼 의향	77
[표 3-22] 경기도 청년의 차별 경험에 따른 자녀 의향	78
[표 3-23] 집단별 성평등 의식 수준	79
[표 3-24]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81
[표 3-25] 집단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3
[표 3-26] 집단Ⅰ의 영역별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84
[표 3-27] 집단Ⅰ의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84
[표 3-28] 집단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6
[표 3-29] 집단Ⅱ의 영역별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87
[표 3-30] 집단Ⅱ의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87
[표 3-31] 집단Ⅲ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9
[표 3-32] 집단Ⅲ의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91
[표 3-33] 집단Ⅳ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3
[표 3-34] 집단Ⅳ의 영역별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94
[표 3-35] 집단Ⅳ의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94
[표 3-36] 집단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6
[표 3-37] 집단Ⅴ의 영역별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98
[표 3-38] 집단Ⅴ의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98
 [표 4-1] 면접집단 구성 및 면접 개요	 103
[표 4-2]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103
[표 4-3] 면접참여자 특성	104

그림 목 차

[그림 2-1] 경기도 평균 초혼연령 추이(2002~2022)	22
[그림 2-2] 경기도 평균 첫째 자녀 출산연령 추이(2001~2022)	24
[그림 2-3] 전국 및 경기도 청년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	29
[그림 2-4] 전국 및 경기도 청년의 연령대에 따른 성역할 태도	30
[그림 2-5] 전국 및 경기도 청년의 성별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성에 대한 인식	32
[그림 2-6] 전국 및 경기도 청년의 연령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성에 대한 인식	34
[그림 3-1]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44
[그림 3-2]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의식	45
[그림 3-3]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의식: 가족 역할 관련	47
[그림 3-4] 영역별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51
[그림 3-5] 성별에 따른 사회 전반적 성평등 수준 인식	54
[그림 3-6] 연령대에 따른 사회 전반적 성평등 수준 인식	55
[그림 3-7] 성별에 따른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57
[그림 3-8] 연령집단에 따른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58
[그림 3-9] 연령대에 따른 차별 경험	60
[그림 3-10] 성별에 따른 성평등 정책 인식: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1
[그림 3-11]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결혼 의향	64
[그림 3-12]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이유	65
[그림 3-13]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자녀를 가질 의향	68
[그림 3-14] 결혼 및 자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73
[그림 3-15] 결혼의향에 따른 사회성평등 수준 인식	74
[그림 3-16] 결혼의향에 따른 갈등, 혐오, 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	75
[그림 3-17] 자녀를 가질 의향에 따른 사회성평등 수준 인식	76

[그림 3-18] 성평등 인식에 따른 청년 집단	80
[그림 3-19] 집단Ⅱ의 정책 중요도	88
[그림 3-20] 집단Ⅲ의 정책 중요도	92
[그림 3-21] 집단Ⅳ의 정책 중요도	96
[그림 3-22] 집단Ⅴ의 정책 중요도	10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이후 기존과 달라지고 있는 청년의 삶의 환경 및 조건, 생활 방식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사회 전반에 있어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청년세대의 혼인 및 출산 관련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청년세대의 혼인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및 경험은 이전 세대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성역할 태도 및 가족 가치관은 혼인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남(박선영 · 이재림, 2022; 오영은 · 추주희, 2020; 이순미, 2016; 임재연, 2021; 정민우 · 이나영, 2011; 조윤명 · 김영미, 2020).
- 한국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음.
 -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시작으로 이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2023년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추진 중임.
- 개인의 성평등 의식은 성역할 태도 인식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별, 학력, 연령 등에 따라 성평등 인식 수준이 다르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안상수 · 김금미, 2008; 조성남 · 윤옥경, 2000; Davis & Greenstein, 2009; Fan & Marini, 2000).
 - 연령이 젊을수록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20대 한국 청년의 경우 30대보다 더 성차별적이고 50대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청년세대가 성평등 인식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남을 보여줌(박선영 · 이재림, 2022; 주혜진, 2015).
 -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인식 수준은 일관되게 남성보다 여성의 성평등 인식 태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의식 차이는 결국 성역할 태도와 실제 역할 수행에서의 차이로 인해 혼인 및 출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박선영 · 이재림, 2022; Esping-Andersen과 Billari, 2015).

- 이러한 태도와 역할 수행의 차이는 통계청 자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는 64.7%가 동의한 반면, 실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편 21.3%, 아내 20.5%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통계청, 2023).
- 성역할 태도와 비혼(미혼)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개인의 성역할 태도뿐 아니라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관련 정책 인식 등을 아우르는 청년의 성평등 의식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함.
- 결혼 및 출산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데 기초적인 부분으로 비혼 및 동거 증가, 이혼 및 재혼 증가 등으로 인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 구성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 수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 청년의 성평등 인식이 이들의 새로운 가족 형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하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청년의 성평등 인식 및 가족 형성 태도의 분석은 향후 경기도 가족 정책 수행 및 저출생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등의 발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추진되어 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 성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이 주요한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는 청년들의 성평등 인식과 가족 형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음.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족을 형성하여 발달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이에 성평등 의식과 정책 요구를 바탕으로 한 가족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주로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집중된 경향이 있음. 성인기로의 진입에 있어 학업의 종료와 취업이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임. 청년기의 또 다른 과업인 결혼이나 부모됨과 관련하여서는 저출생 정책으로 일부 추진되는 부분이 있으나 청년을 특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경기도 역시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교육 및 일자리, 주거와 관련한 사업이 많으며, 가족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 지원,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과 같이 특정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청년기 과업 중의 하나인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새로운 가족 형성, 부모됨 등과 관련하여 청년의 변화하는 인식 및 요구를 반영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및 가족 형성 인식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경기도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청년의 정의

- 청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에 있어 성인 초기 전환기로도 불리는 시기로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며 자신에 대한 정체감 확신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첫 인생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시기임.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며, 성별 차이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함(김애순, 2005).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 주요 사건은 학업의 종료, 취업, 결혼, 부모됨 등이 있으며, 특히 결혼과 출산은 성인으로서의 이행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 존재함(이병희 외, 2010).
- 이러한 경험 및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청년기를 연령상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연구 및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음. 대부분의 청년 대상 연구는 2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주로 20대와 30대를 청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비혼 청년 연구에서는 25세에서 4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함(배나래·소권섭, 2019; 오영은·추주희, 2020; 이순미, 2016).
-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상 연령 역시 상이함. 청년과 관련한 기본 법규인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29세 이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40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음.
- 경기도 자치조례 역시 각 자치조례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청년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기본법」과 달리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만 2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함.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은 청년을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
- 경기도 시·군의 청년 기본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기준 역시 지자체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수원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의 12개 지역은 「청년기본법」과 같이 34세 이하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천시, 안산시, 안양시 등의 17개 지역에서는 「경

기도 청년 기본조례」와 마찬가지로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포천시는 4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나 개별 사업 및 활동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연령을 특정하지 않고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한 법령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청년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의하는 청년은 다음과 같음. 경기도 시·군 자치법규는 청년 기본 조례만 제시하였음.

[표 1-1]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의 청년 정의

법령(자치 법규)	청년 정의
청년기본법 (2020.2.4.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004.3.5.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2015.8.13.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1.11.8.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2015.11.4.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2018.11.13.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2019.1.14. 제정)	나이 정의 없음.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관이 대상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조례 (2019.6.18.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법령(자치 법규)	청년 정의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11.12.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2021.7.14.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2021.7.14.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10.6. 제정)	제2조(정의) 2.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0.21.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3.4.11.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5.17.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2016.4.8.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2016.6.17.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2016.7.7. 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2016.10.17.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2017.9.29.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5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2017.9.29.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법령(자치 법규)	청년 정의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2017.12.26.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2017.12.27.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 “이란 하남시(이하 ” 시 “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2018.1.5.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2018.3.19.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2018.4.16. 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2018.7.31.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2018.9.17. 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2018.12.31.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 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2019.1.10.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2019.2.11.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의 목적 및 활동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2019.2.27.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2019.3.26.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2019.4.12.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2019.4.17.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법령(자치 법규)	청년 정의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2019.4.18.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2019.5.10.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2019.6.28.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2019.7.1.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2019.8.1.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 (2019.9.25.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2020.1.3. 제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한다.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2021.3.22.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1. “청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단,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2020.5.29.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 의 사람을 말하며,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2021.8.4.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가평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2022.4.8. 제정)	제2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최종검색일: 2023.11.27.)

- 청년기는 학업을 완료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독립적인 생계 부양을 시작하는 시기이며,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로 정의할 수 있음(정민우·이나영, 2011; 김영미, 2016). 최근 학업 기간의 연장, 노동시장 진입의 지연, 만혼, 만산 등의 한국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경기도의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청년의 연령은 19세~39세로 정의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청년 관련 연구 및 현황을 분석함.
 - 청년의 성평등 인식 및 가족 관련 학술논문, 정책 연구 등 검토,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청년 인구 및 청년 정책 현황 분석
 - 청년의 성역할 태도 및 가족가치관 현황 분석
- 경기도 성평등 의식 조사 자료의 청년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및 가족 형성 인식을 분석함.
 -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및 성평등 정책 인식, 결혼 및 출산 결정 의향, 성평등 의식과 가족 형성 간의 관계 분석, 가족형성에 따른 집단 비교 분석
 -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및 가족 형성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수요 분석
-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및 가족 형성 인식을 반영한 가족 정책 도출 및 제언
 - 정책 함의 도출 및 향후 경기도 가족 정책 방향 제언

나.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청년의 성평등 인식 및 가족 관련 학술 자료, 정책자료 검토 및 분석
 -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청년 통계 자료 분석
-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자료 분석
 - 분석 대상: 19세~39세 청년 795명
 - 분석 변인: 성평등 의식 수준,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 결혼 의향, 자녀 가질 의향, 차

- 별 경험,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등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평등 의식의 세부 문항 분석 등 집단 특성에 따른 분석
- 면접조사
 - 조사목적: 성평등 및 가족 관련 정책 수요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대 상: 19세~39세의 경기도 거주 청년
 - 주요내용: 성장과정 및 생활에서의 성차별 관련 경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의향, 성평 등 및 가족형성을 위한 정책 요구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3. 선행연구 검토

- 청년의 성평등 의식과 청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결혼 및 출산을 포괄하는 가족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가족 가치관 관련 연구가 많으며, 성평등 의식과 관련한 정책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본 절에서는 젠더 관점을 반영한 청년의 결혼 및 가족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함.

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의식

- 성평등 의식은 연령이 젊을수록, 여성일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주혜진(2015)은 기존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성역할 고정관념에 있어 20대는 30대보다 더 전통적인 태도를 보여 오히려 50대의 성역할 태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성평등 정책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도 20대는 30대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와 50대와는 인식 수준의 차이가 없었음.
- 성평등 인식은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특성을 보여, 여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해진 반면, 20대 남성은 40대와 50대 사이에 위치한 특성을 보여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 성역할 고정관념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성별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성평등 인식에 있어 성별에 따른 연령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 청년들의 고용불안과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상황의 영향으로 인한 20대 남성의 효과로 해석할 수

- 있음. 취업의 경쟁상대인 여성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주혜민, 2015).
- 20대 남성의 보수적 태도와 20대의 젠더 차를 보고한 위의 연구 결과처럼 청년층의 성평등 의식에 있어 젠더 격차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으나 박선경(2020)은 이러한 젠더 격차가 과장된 것이며 청년 남성 역시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세대임을 강조함. 최근 청년 세대의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 연구들에서도 청년 남성의 성별 고정관념이 높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음.
 - 부산지역 청년의 젠더 인식을 조사한 정다운(2022)의 연구에서는 20대보다 30대 청년, 특히 30대 남성 청년의 인식이 보수적인 특성을 보였음.
 - 성별 분업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청년 남성은 생계부양 의식에 있어서 고정관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음. 여성이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동의하는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30대 남성은 남성의 생계부양이나 여성의 자녀양육 책임에 있어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음.
 - 데이트 비용은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특히 남성의 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결혼문화와 관련하여 남성은 여성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여성은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남성은 여성이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인식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들은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20~40대의 성평등 의식을 분석한 최종숙(2020) 역시 20대의 성평등 의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20대 청년은 성평등 의식에 있어 30대와 40대와는 차이를 보이며 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항목에 있어서 30대와 40대보다 낮게, 여성 차별 존재 인식에 있어서는 40대보다 낮게 나타났음. 20대 여성이 성평등 의식 점수가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20대 남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20대 남성의 성평등 의식 수준이 낮지 않음을 보여줌.
 - 성별 간의 성평등 의식 차이는 20대보다 30대 남녀가 더 크게 나타났음.

- 2021년 실시된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대별로 성역할 태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마경희 외, 2021).
 -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 여성의 돌봄 역할의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 분업에 대한 태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고정된 성역할 통념을 보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정된 성역할 통념에 동의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음.
 - 변화하는 젠더관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성의 생계부양자로서의 경제력 약화보다는 남성의 자녀 돌봄 능력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남성의 자녀 돌봄 능력 필요성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에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 체감에 있어서 53.1%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경향을 보였으나 남성은 ‘남녀 평등하다’는 경향을 보였음.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인 반면, 남성은 연령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음. 40대와 50대는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10대, 20대, 60대는 ‘남녀 평등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청년기의 지위 변화에 따른 성역할 태도를 분석한 이운주(2018)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서 성역할 태도 변화가 다르며, 지위 변화가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만 변화를 가져왔음.
 - 성인기 이행으로 인한 지위 변화에 따른 남성의 성역할 태도 변화보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 변화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났음.
 - 취업으로 인한 근로자로서의 지위 변화가 평등한 성역할 수행을 지지하는 성역할 태도로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여성에게만 유의하여 취업이 남성의 성역할 태도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결혼으로 인한 유배유자로서의 지위 변화는 남녀 모두에게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을 지지하는 변화를 가져왔음. 이러한 결과는 일과 가족 역할을 평등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 성별 분업을 수용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이운주, 2018).
- 문지선(2021)은 한국사회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일지향적 가족주의’, ‘성평등주의’, ‘전통주의’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혼인 상태별로 분석하였음. 기혼자는 ‘일지향적 가족주의’가, 미혼자는 ‘성평등주의’가 가장 강한 특성을 보였음.
 - 기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젠더이데올로기 분류에 있어 영향이 뚜렷하여, 고학력 고소

득의 경우 성평등주의를, 저학력 저소득의 경우 전통주의를 지향하였음. 여성이 정규직이고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약할수록 성평등주의를 지향할 확률이 높아 성평등 사회 이행을 위해서는 여성의 안정적 경제활동이 중요함을 시사함. 또한,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주부역할 규범에 있어 고학력자가 전통적 태도를 보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돌봄을 여성의 역할과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줌. (문지선, 2021).

- 경기도 20대의 성차별 인식을 연구한 임혜경(2020)은 성별로 인한 가족 내 교육기회 참여, 가족 내 재산분배 차별, 학교생활의 차별, 일자리 진입 기회 및 임금에서의 차별 등에 관한 경험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도 20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였음.
- 가족역할과 관련하여 남성의 생계부양 책임, 집안일에서의 성별 분업에 대한 태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20대 남성의 전형적인 성별분리 태도가 20대 여성보다 강하게 나타났음.
- 20대 남성들은 주로 무거운 짐을 들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등과 같은 신체적 능력 관련 일이나 생계부양부담에서 성차별을 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 여성들은 성장 과정과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을 경험하였음.

나. 청년의 가족 형성

- 청년기의 발달과업인 가족 형성과 관련하여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청년이 인식하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가족 가치관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함.
- Becker(1964)는 개인의 결혼 선택은 결혼을 통해 얻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계산을 통해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보았음. 이러한 교환 논리에 근거하여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이 많아졌으며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고용불안정성, 주택가격, 자녀 교육비 증가 등과 같은 결혼에 따른 비용이 커짐으로 인해 경제적 측면이 결혼 및 출산의 지연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음(안태현, 2010; 탁현우, 2020).
- 반면, 한국 청년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메타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가치관이 결혼 의향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큰 요인이었으며, 특정 인구학적, 경제적 여건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효과는 가치관에 비해 크지 않았음(박선영·이재립, 2022).

- 한국청년의 결혼의향에는 전통적 가치관 요인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으며, 특히 자녀관이 결혼의향에 중요한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혼출산 비율이 낮은 한국의 사회적 맥락이 반영된 것으로 출산을 위한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임. 이는 반대로 자녀의 가치가 높지 않으면 결혼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 효과가 커지는 결과를 보였음.
- 경제적 요인은 청년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가치관 요인에 비해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 청년의 결혼 의향을 설명하기에는 덜 효과적임을 시사함(박선영·이재립, 2022).
- 김영미(2016)는 청년의 일과 가족 형성에 있어서 기회 불평등이 존재함을 제기하며 교육 성취에 있어서 유사한 경험을 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나 가족 형성 기회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하였음.
-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 있어 남성은 가족 배경과 무관하게 취업상태의 특성을 보인 반면, 여성은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회는 가족 배경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 남성의 혼인은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존재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에게는 기혼과 자녀의 존재는 모두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원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여성이 남성보다 연애 경험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으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는 강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며, 남성은 취업상태이거나 원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데이트 경험 확률이 높아짐.
- 결혼 기대와 관련하여 남성은 저학력, 미취업, 가족배경이 취약할수록 결혼기대가 낮으나 여성은 고학력, 취업, 원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기대가 낮은 반대의 경향성을 보였음.
-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남성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여성은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음.
- 오영은과 추주희(2020)는 청년세대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줄어들었으나, 가족관계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하며, 이는 청년세대가 제한된 조건속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그 관계에 충실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20대보다 30대 청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더 부정적인 특성을 보였음. 이는 노

동시장에서의 가족친화적 문화와 제도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가족내 성평등 문화 역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오영은·추주희, 2020).

- 성별에 따른 결혼인식의 세대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최근 세대일수록 비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으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진미정 외, 2023).
 - 남성은 근대적 성역할 태도, 비혼 수용성에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은 근대적 성역할태도, 비혼 수용성, 긍정적 가족관에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음.
 -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M세대와 Z세대에서만 성별 차이가 나타났음. 남성은 근대적 성역할태도, 비혼 수용성, 긍정적 가족 가치관 등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의 경우는 인구사회학적 특징, 비혼 수용성, 긍정적 가족 가치관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음. 즉,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성별상관없이 결혼의 대안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었음.
- 오신휘(2022)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긍정적 가치관은 감소하고 결혼을 선택으로 보는 선택적 가치관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음. 출산 역시 선택적 가치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음.
 - 미혼남녀의 가족가치관을 개인주의형, 가족주의형, 개인주의-가족주의 복합형의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개인주의-가족주의 복합형이 44.4%로 가장 많았음. 개인주의형 가치관을 가진 경우 결혼이나 자녀에 대해 선택적 가치관을 가질 승산이 복합형보다 높았고 가족주의형은 낮아 복합형이 중간적 특성을 보였음.
 - 결혼 필요성 인식에 있어 20대는 30대 초반에 비해 선택적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더 낮은 경향을 보여 30대 초반에 이르러야 결혼을 선택으로 보는 경향으로 변화함을 보여줌.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긍정적 가치관보다 선택적, 부정적 가치관을 가질 승산이 더 높음.
 - 자녀 필요성은 연령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선택적 가치관을 가질 확률이 높았음. 결혼 필요성과 달리 자녀 필요성 인식에 사회경제적 상황과 유의미한 관련이 나타나 안정적 일자리 측면이 자녀 필요 인식에 중요한 요인이었음.
- 임재연(2021)은 한국 청년의 가족가치관을 평등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주의로 분류하여 출산의향을 분석하였음.
 - 평등주의 가족가치관을 가진 청년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주의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인 경

우 가족주의나 가부장주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낮았음.

- 평등주의 가족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은 출산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일 확률이 높았음. 평등주의 가족가치관이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성별과 교육수준이 평등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Esping-Andersen과 Billari(2015)의 다중균형 모델에서 제시하는 불안정한 평형상태로 인한 평등주의와 출산 간의 부적 상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임재연, 2021).
- 청년들의 젠더규범과 출산의도를 분석한 조운명과 김영미(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젠더 규범에 있어서 복잡성이 나타나며 보수주의적 젠더규범의 내재화로 인해 남녀 모두 출산의향을 낮추는 특성을 보였음.
 - 조사에 참여한 남녀 모두 일차적 양육자는 여성이라는 관념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주체적 생계부양의 의미로 인식하지 않았음. 즉, 일-지향적 보수주의의 특성으로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이 나타나고 있음.
 - 일-지향적 보수주의 규범은 경제적 불안정성 인식과 결합하여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였음. 남성은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은 여성을 양육자로 규정하는 젠더규범이 출산의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양육부담과 경력유지의 강한 욕망 간의 갈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맞벌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예측으로 출산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음. 반면 경제적 이유로, 생계형 맞벌이의 여성은 양육에 호의적이지 않은 노동환경과 양육 부담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OECD 국가의 젠더 평등과 출산율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지난 30여년간 OECD 국가의 젠더 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은 완만한 U자형 분포를 보였음(류아현, 김교성, 2022).
 - 1980년대에는 젠더평등수준과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 가족급여 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았으나 1990년대부터 젠더평등과 경제발전 수준, 가족급여 지출 비중이 모두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음.
 - 젠더평등 수준을 여성의 정치 참여 및 노동시장 참여로 측정하여 젠더평등 수준이 높은 것은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이 성평등적 규범으로 변화하는 성역할 변화를 의미함. 즉 젠더평등수준이 높은 국가는 여성의 일과 출산 및 돌봄 사이의 갈등이 비교적 적다는 것임. 젠더평등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생계부양자인

동시에 돌봄제공자가 되어야 함(류아현, 김교성, 2022).

- 경기도민의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이나련·정유진(202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보다 남성이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결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제도를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인식 역시 높게 나타났음.
 - 20대는 결혼의 중요도,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자녀의 중요성 등을 다른 연령대 보다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II

경기도 청년 관련 현황

1. 인구 및 관련 정책 현황
2. 성역할 태도 및 가족 관련 인식

1. 인구 및 관련 정책 현황

가. 경기도 청년 인구 현황

- 2022년 경기도의 청년 인구는 3,754,815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7.6%를 차지함. 경기도의 청년 인구 수는 202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2-1] 경기도 청년 인구(2018-2022)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전체	13,077,153	13,239,666	13,427,014	13,565,450	13,589,432
	만19-39세	3,859,519	3,865,291	3,865,399	3,833,985	3,754,815
	청년비율	29.5	29.2	28.8	28.3	27.6

자료: 행정안전부. (각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 경기도 청년의 성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2022년 여성 1,790,540명, 남성 1,964,275명으로 지난 5년간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적었음. 2018년 청년 인구에서의 여성 비율은 48.2%였으나 2022년에는 47.7%로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22년 여성 청년 비율은 남성 청년 비율보다 4.6%p 낮았음.

[표 2-2] 경기도 청년 성별 인구(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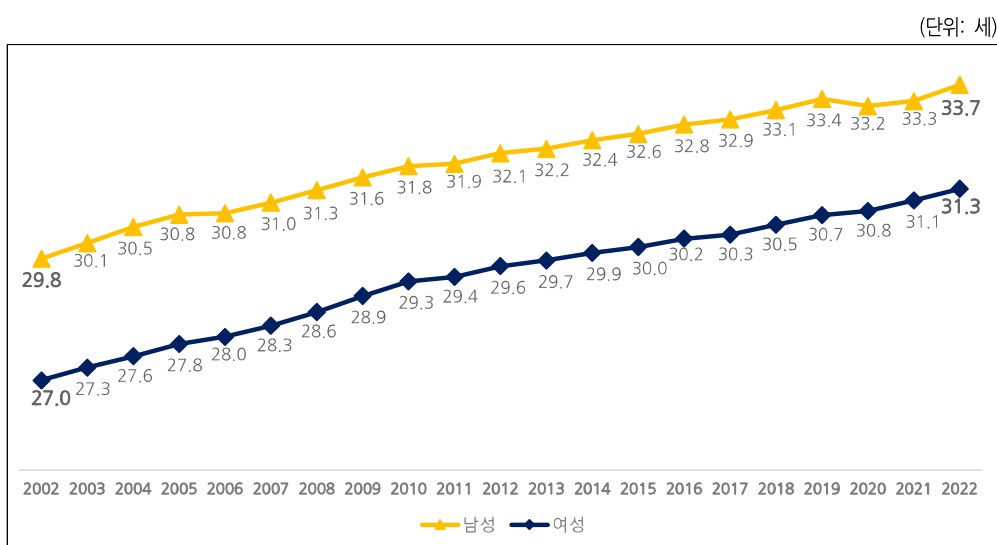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3,859,519	3,865,291	3,865,399	3,833,985	3,754,815
남성		1,997,608	2,007,877	2,012,251	2,001,555	1,964,275
		(51.8)	(51.9)	(52.1)	(52.2)	(52.3)
여성		1,861,911	1,857,414	1,853,148	1,832,430	1,790,540
		(48.2)	(48.1)	(47.9)	(47.8)	(47.7)

자료: 행정안전부. (각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 경기도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만혼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2002년 남성은 29.8세, 여성은 27.0세였던 평균 초혼 연령은 20년간 남성은 3.9세, 여성은 4.3세 높아졌음.
- 2022년 경기도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여덟 번째로 연령이 높은 수준이었고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다섯 번째로 높은 연령이었음.

[그림 2-1] 경기도 평균 초혼연령 추이(2002~2022)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이러한 만혼 경향은 경기도 청년의 혼인상태에서도 알 수 있음. 202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중 배우자가 있는 청년은 청년의 35.6%에 해당하였으며, 5세 단위로 살펴보면 초혼 연령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20대 초반은 98.1%, 20대 후반은 85.9%가 미혼인 반면, 30대 초반에는 과반이 약간 넘는 52.1%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30대 후반은 69.9%가 배우자가 있었음.
- 남성의 경우 20대 초반의 경우 미혼이 99.2%였으며, 20대 후반에는 미혼의 비율이 91.9%로 약간 감소하였고 30대 초반에는 62.8%로 결혼한 경우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음. 35세 이상의 청년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넘는 63.5%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음.

-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미혼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음. 20세 초반에는 97.2%가 미혼이었으나, 20대 후반에는 남성이 여전히 90% 이상이 미혼인 것에 반해 여성은 79.3%가 미혼이었음. 30대 초반에는 여성의 과반수 이상인 57.1%가 혼인상태였으며, 30대 후반에는 76.6%가 배우자가 있었음.

[표 2-3] 경기도 연령별 성별 혼인상태(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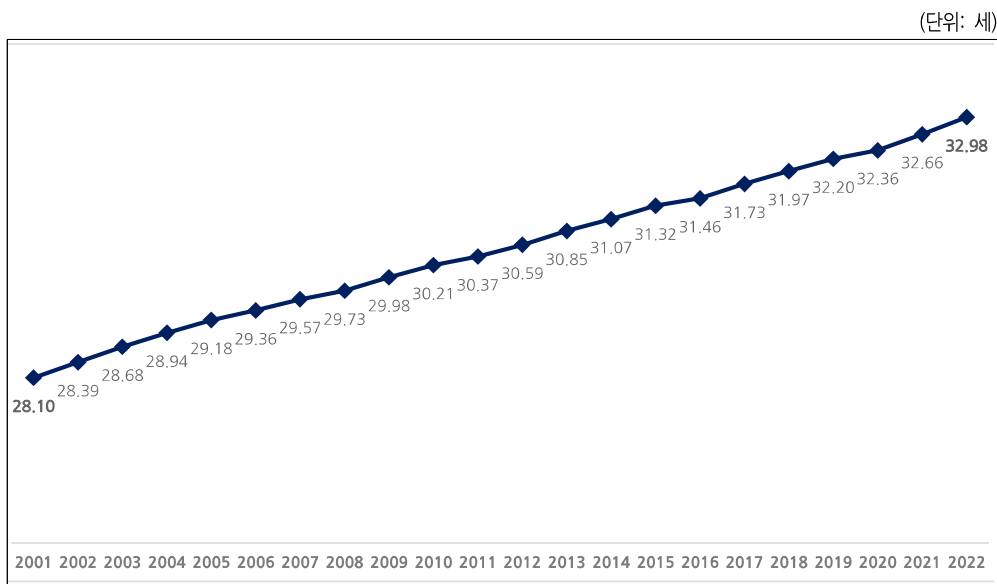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전체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남성	전체(계)	1,748,881	330,652	470,409	429,359	518,461
	미혼	1,207,210	328,120	432,259	269,567	177,264
	배우자 있음	523,990	2,354	36,769	155,776	329,091
	사별	752	28	54	200	470
	이혼	16,929	150	1,327	3,816	11,636
여성	전체(계)	1,719,436	383,229	429,067	405,627	501,513
	미혼	975,642	372,451	340,459	165,384	97,348
	배우자 있음	711,389	10,303	85,554	231,552	383,980
	사별	1,855	6	77	419	1,353
	이혼	30,550	469	2,977	8,272	18,832

자료: 통계청, (2020). 인구총조사

- 자녀 출산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어머니의 평균 출산연령은 33.53세이고 경기도는 33.66세로 전국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2001년 전국 29.27세, 경기도 29.38세에 비해 약 4세 증가하였음.
- 어머니의 첫째 자녀 출산연령 역시 전국 기준 2001년 27.99세에서 2022년 32.84세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28.10세에서 32.98세로 높아졌음. 첫째 출산연령은 평균 출산연령보다 약간 더 낮으나, 지난 20년간 약 5세 증가하여 평균 출산연령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경기도의 첫째 자녀 평균 출산연령은 전국 평균인 32.84세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부산에 이어 세종과 함께 세 번째로 높은 연령을 보이고 있음.
 - 혼인 외 출산 비율이 낮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성상, 평균 초혼 연령의 증가는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 연령과 연동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지난 20년간 초혼 연령의 증가와 함께 첫째 자녀 출산 연령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2-2] 경기도 평균 첫째 자녀 출산연령 추이(2001~2022)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어머니의 연령별 출산율 역시 여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음. 2001년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연령은 25~29세로 143.9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5.7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2022년 연령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은 30~34세로 출산율 80.0명으로 2001년의 30~34세 여성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임. 반면, 35~39세 출산율은 2001년 18.0명에서 2021년 47.8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40~44세 출산율 역시 2001년에 비해 증가하여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 2-4] 경기도 모의 연령별 출산율(2001, 2022)

(단위: 해당 연령 여성인구 1천명 당 명)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1	2.7	40.9	143.9	79.7	18.0	3.0	0.3
2022	0.3	4.0	25.7	80.0	47.8	8.7	0.2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향조사

나. 경기도 청년 관련 정책 현황

-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정책 및 가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성평등 정책은 정책의 다양한 영역 중 성평등 인식 및 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가족 정책은 경기도 가족정책의 주무부서인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 및 경기도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사업,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함.
-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이 되는 양성평등시행계획에는 청년대상 특화사업이 거의 없음.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청소년 대상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성교육 등의 사업이 시행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 대상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년 및 성평등 인식 확산 관련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청년을 포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일상에서의 성평등 인식 강화 교육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2년에는 청년층 성별인식 격차 심화로 인해 성별간 이해 및 감수성 제고 교육으로 운영하여 청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7회 운영되었고 참여인원은 329명이었음. 이 외에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사업 등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¹⁾. 이러한 사업 역시 청년으로 특화하기 보다는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경기도양성평등센터는 지역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여성가족부 지원의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청년 공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양성평등 정책 실현에 관심이 있는 청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임²⁾.
- 가족정책 영역에서 경기도가 명시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등이 있음. 만 24세 이하를 청소년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로 규정하여 자녀 양육비 지원, 학업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경기도청, 2023). 이러한 사업들 역시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 정책으로 보기에 제약이 있음.
 - 경기도 1인 가구 사업 중 연령대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청년 1인 가구를 포괄하고 있기는 하나 경기도 1인가구의 특성상 중장년 중심의 사업이 많음.

1) 경기도청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 국비 및 도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시·군 가족 지원 서비스 기관(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관계, 가족교육, 가족 및 성평등·인권 등의 사업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을 비롯하여 참여 대상에 따라 청년 대상자들을 포괄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23). 여성가족부의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청년 대상의 명시적 가족 프로그램 운영은 두드러지지 않는 경향이 있음.
- 2022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서 청년 특화로 추진되는 사업은 청년기본소득 사업(청년 대상 기본소득 및 상해보험 지급), 청년 면접수당 지원, 저소득 청년 노동자 자산 형성 및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 지원 등으로 대부분 취업 및 경제 관련 지원이며,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에 신혼부부 및 청년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2). 모의 출산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서 포괄하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청년 대상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 임신이나 출산 과정, 이후의 양육 관련 지원들이며 청년의 결혼 및 부모됨 결정과 관련한 지원이나 환경 조성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표 2-5] 청년 관련 성평등 및 가족 정책

영역	내용
양성평등정책	-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 청소년 대상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 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 (경기도양성평등센터) 지역성평등 환경조성 사업: 경기도 청년 공감대 사업
가족정책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저출생 정책	- 청년기본소득 사업 - 청년 면접수당 지원 - 청년 정신건강서비스지원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자산 형성 및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 지원 -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확대 공급) - 그 외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

자료 1) 경기도청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부자료.

2) 보건복지부, (2022).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3) 여성가족부, (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2. 성역할 태도 및 가족 관련 인식

- 본 절에서는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과 경기도 청년의 성역할 및 가족 인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전국 자료는 총 5,524명의 자료로 이 중 남성이 2,768명(50.1%), 여성이 2,756(49.9%)이었으며 19~29세는 50.3%, 30~39세는 49.7%였음.
 - 경기도 자료는 총 939명의 자료로 남성은 456(48.6%), 여성 483명(51.4%)이었으며, 19~29세는 50.3%, 30~39세는 49.7%였음.

가. 성역할 태도

- 가족과 관련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한 성역할태도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는 문항에 청년의 과반수 이상인 59.9%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13.7%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 청년의 경우에는 전국보다 조금 더 높은 62.1%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13.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는 문항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양에 대한 문항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청년의 74.6%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청년은 이보다 더 높은 75.1%가 동의하지 않았음.
-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4.4%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유사한 수준인 74.5%가 동의하지 않았음.
-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는 문항 역시 앞의 문항들과 유사하게 73.4%가 동의하지 않았고 경기도 청년은 73.8%가 동의하지 않았음.
- [표 2-6]의 각 성역할 태도에 대한 평균 점수에서 보여지듯이,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역할 인식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른 역할에 비해 청년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

[표 2-6] 전국 및 경기도 청년의 성역할 태도

(단위: %, 점)

문항	전국				경기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평균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평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59.9	26.4	13.7	2.34	62.1	24.3	13.6	2.30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74.6	21.1	4.2	1.94	75.1	20.9	4.1	1.92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74.4	20.3	5.3	1.93	74.5	20.1	5.3	1.93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73.4	20.3	6.4	1.95	73.8	20.1	6.1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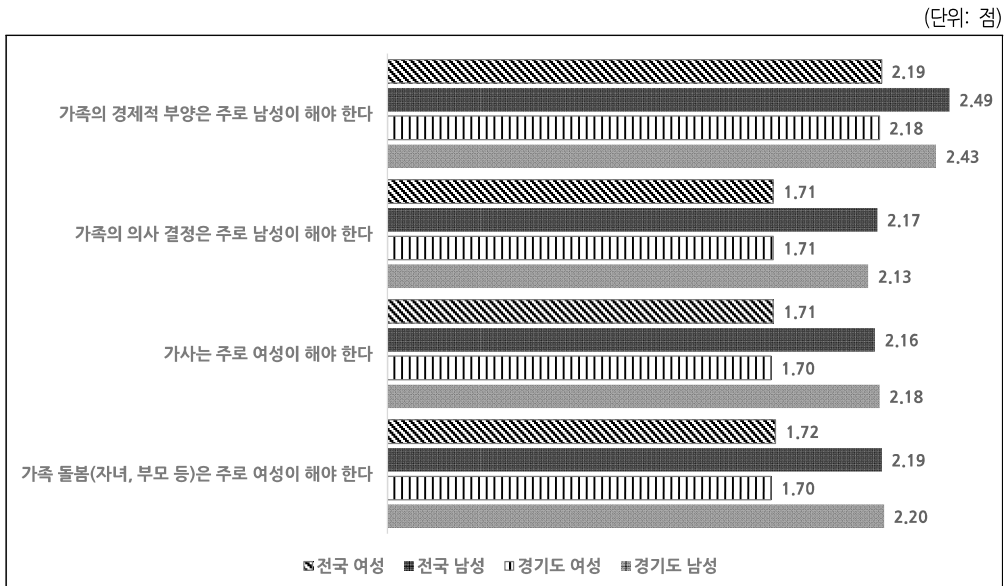
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평균 점수임.

자료: 여성가족부, (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성역할 태도 인식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전형적인 성역할 태도를 동의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음.
 - 가족의 생계 부양을 남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나 다른 성역할 태도 인식에 비해서는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음. 생계 부양 역할 인식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평균 차이는 0.3점으로 다른 역할 인식의 차이가 약 0.5점인 것에 비해 차이가 덜 나타남.
 -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전형적 성역할 태도 동의 정도가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남성의 경우 가사 및 가족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보는 태도에 있어서는 전국보다 동의 수준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음.

[그림 2-3] 전국 및 경기도 청년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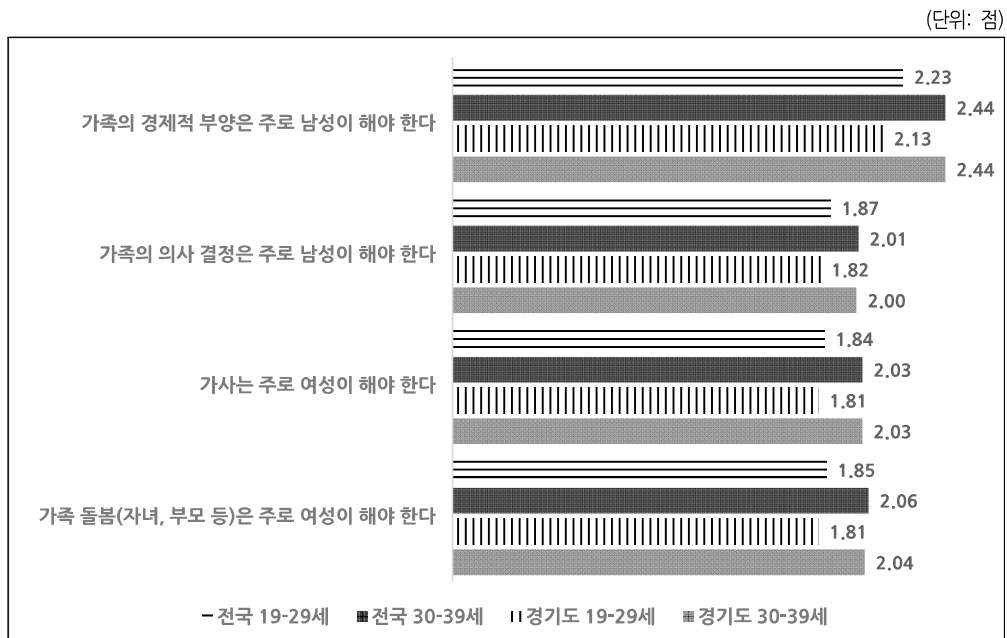


주: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평균 점수임.

자료: 여성가족부, (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성역할 태도는 연령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9~29세 청년이 30대 청년보다 덜 전형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음.
 - 연령대에 따른 성역할 태도 인식에 있어서도 전국보다 경기도가 전형적 성역할 태도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음.
 - 연령대에 따른 성역할 태도 평균 수준의 차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 적은 수치로 나타나 연령대보다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4] 전국 및 경기도 청년의 연령대에 따른 성역할 태도



주: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평균 점수임.
 자료: 여성가족부, (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나. 가족가치관

-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의 문항에서 가족 형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음.
- 가족 형성과 관련한 다양한 삶의 형태 중 청년의 동의가 가장 높았던 형태는 이혼 및 재혼으로 48.6%가 동의하였으며, 두 번째로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인 것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에 대한 동의(47.6%)였음. 가장 낮은 동의 비율을 보인 가족 형성 형태는 결혼없는 출산에 대한 동의로 20.5%의 청년이 동의하였음. 이는 가족형성과 관련한 다양한 삶의 형태에 있어 이혼과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많이 사라졌으나, 비혼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경기도 청년 역시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출산없는 결혼에는 전국보다 약간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음.

[표 2-7] 전국 및 경기도 청년의 다양한 가족 형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문항	전국				경기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평균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평균
독신 동의	23.6	28.8	47.6	3.34	22.7	29.7	47.6	3.34
결혼없는 동거 동의	24.9	34.6	40.5	3.20	24.0	35.6	40.4	3.21
이혼/재혼 동의	17.4	34.1	48.6	3.41	17.6	34.3	48.1	3.39
출산없는 결혼 동의	25.6	30.4	44.0	3.26	24.2	30.9	44.9	3.30
결혼없는 출산 동의	54.0	25.5	20.5	2.48	52.1	26.3	21.6	2.53
부부 비동거 동의	37.1	32.9	30.0	2.88	37.8	34.7	27.4	2.82
결혼생활 계약서 필요	43.8	34.1	22.0	2.69	44.2	33.8	22.0	2.68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결정 동의	24.9	39.3	35.8	3.16	23.5	40.8	35.7	3.18

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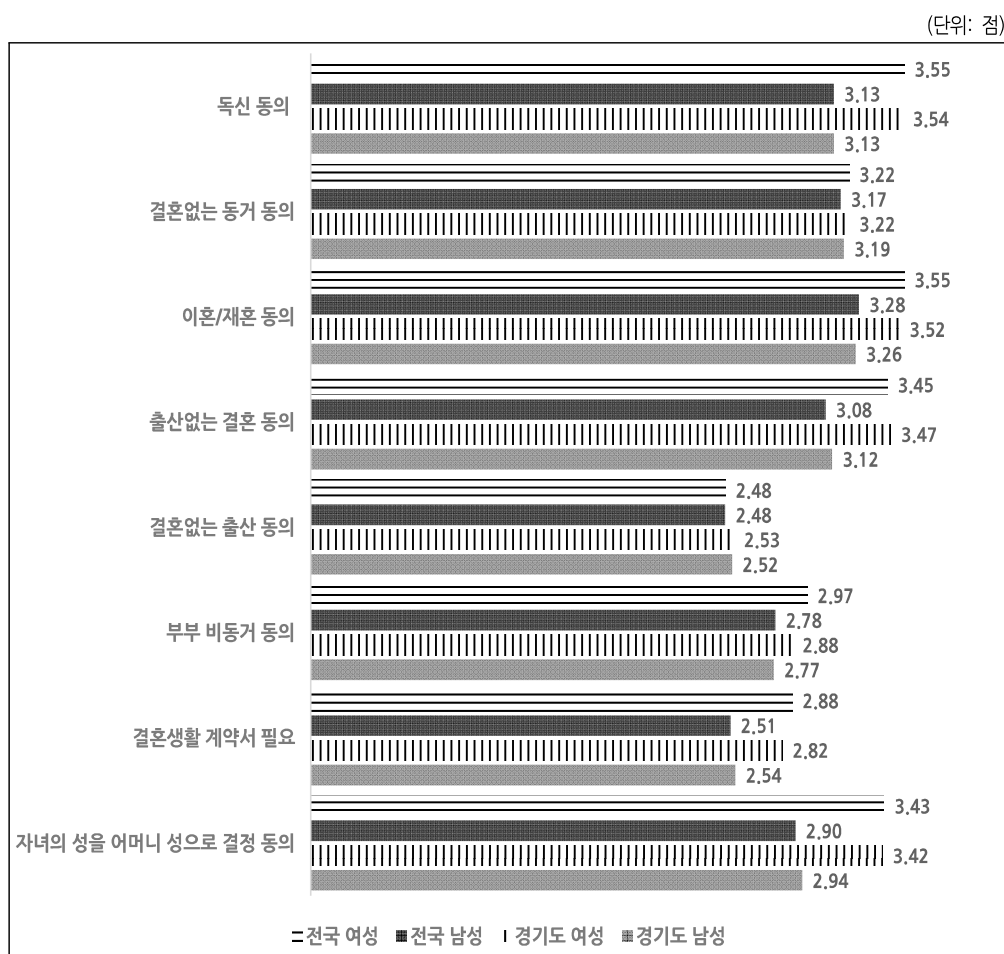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평균 점수임.

자료: 여성가족부, (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청년의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은 결혼없는 동거, 결혼없는 출산에 대한 동의를 제외하고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여성이 남성보다 다양한 가족 형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비결혼 동거 및 비혼 출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음. 전형적인 가족 형성에서 벗어난 가족 형태에 대해 여성의 동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에 반해 동거 및 비혼 출산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동거 및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자녀 성을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였으며, 독신에 대한 동의 수준 역시 성별 평균 점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음.
- 경기도 청년의 경우에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결혼없는 동거 및 결혼없는 출산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동거 부부에 대한 동의 역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나 경기도 청년은 성별에 따른 격차가 전국보다는 적은 경향을 보였음.
- 경기도 여성은 전국 여성보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형성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출산없는 결혼과 결혼없는 출산에 대한 동의 수준만이 전국보다 약간 높았음.
- 경기도 남성은 전국 남성과 거의 유사하거나 전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형성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 2-5] 전국 및 경기도 청년의 성별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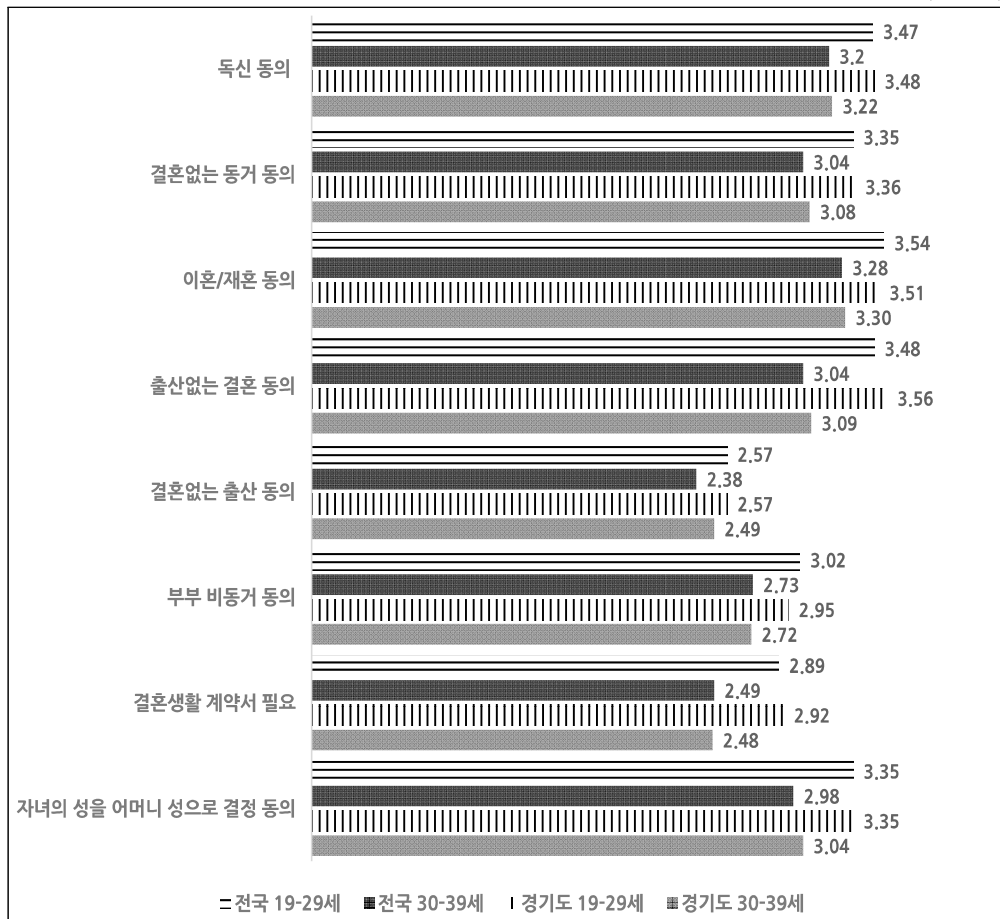


주: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평균 점수임.
 자료: 여성가족부, (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청년의 연령에 따른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 결과와 달리 모든 유형의 가족 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9~29세 청년이 30~39세 청년보다 다양한 가족 형성과 관련하여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 경기도 청년 역시 30대에 비해 19~29세 청년이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형성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 경기도 19~29세 청년은 전국 19~29세 청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형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없는 결혼에 동의하는 정도는 전국보다 높은 반면,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도가 전국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 경기도 30대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형성에 대해 전국의 30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출산없는 결혼이나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인식에 비해 전국보다 높았다.

[그림 2-6] 전국 및 경기도 청년의 연령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평균 점수임.
 자료: 여성가족부, (202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III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과 가족 형성 인식 조사 분석

1. 분석 개요
2.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인식
3.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정책 인식
4. 경기도 청년의 가족 형성 인식
5. 성평등 인식에 따른 청년 집단 특성 분석

1. 분석 개요

가. 분석 자료

-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과 가족 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3장에서는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노경혜·정형옥, 2023)의 자료 중 19~39세 응답자의 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음.
 -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는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가족가치 및 가족생활, 차별과 안전, 성평등 정책 등을 조사함. 성, 연령, 권역별 인구 제곱근비례할당으로 표본추출하여 최종 유효표본은 2,016명임.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의 성평등 관련 항목, 가족형성 관련 항목 등을 사용하였으며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성평등 의식은 성역할 고정관념, 성평등 수용으로 분류되며,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성평등 수용은 성역할 변화 수용 정도와 성평등 실천으로 분류됨.
 - 성평등 수준은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차별 경험,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으로 구성됨.
 -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 정책 관련 인식,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중요도로 구성됨.
 - 가족형성 관련 항목은 결혼에 대한 태도,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로 구성됨.
 -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사용된 조사 내용은 다음 [표 3-1]과 같음.

[표 3-1] 분석에 사용된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세부 내용
성평등 의식	성별분업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	-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변화하는 젠더관계 및 역할에 대한 태도	-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 성역할 수용정도 - 적대적 성차별주의 -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 및 관심과 실천	
성평등 수준	사회의 성평등 수준 인식	- 영역별(교육, 가족돌봄책임, 취업, 승진, 임금, 정치참여)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 우리 사회 전반적 성평등 수준 인식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 성별 갈등 - 여성에 대한 폭력 - 여성/남성에 대한 혐오 - 온라인상의 성차별적 표현/농담
	차별 경험	- 가족내 성장과정 및 재산(상속) 분배 - 학교생활/취업과정/직장생활/임금(소득) -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 여자답게/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 - 성희롱
성평등 정책	성평등 정책 관련 생각	- 성평등 정책 의미 인식 - 경기도 성평등 정책 관심도 - 경기도 성평등 정책 추진 인식
	경기도 성평등 정책 중요도	정책별(여성취업지원사업 확대, 여성창업지원,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양육부담 경감지원, 돌봄지원 강화, 폭력예방정책 확산 및 추진체계 내실화, 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연계·협력 및 추진기반 강화) 중요도
가족 형성	결혼에 대한 태도	- 결혼 의향 -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
	자녀에 대한 태도	- 자녀를 가질 의향 -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

자료: 노경혜·정형욱, (2023).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 분석 대상

-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19~39세는 800 표본임. 이 중 혼인상태를 이혼/별거/사별로 선택한 5명은 혼인상태 관련 통계분석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795 표본임.
- 분석 대상 중 여성이 49.1%, 남성이 50.9%였음. 분석 대상의 평균 나이는 30.3세이며, 20대 후반(25~29세) 33.1%, 30대 초반(30~34세) 23.1%, 30대 후반(35~39세) 20.9%, 20대 초반(19~24세) 16.2% 순이었음.
- 73.5%가 현재 비혼 상태였으며, 82.6%가 자녀가 없었음. 대학교 졸업 또는 재학의 학력수준이 69.8%로 가장 많았으며, 77.6%가 현재 일을 하고 있었음.
-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2]와 같음.

[표 3-2] 분석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390	49.1
	남성	405	50.9
연령	20대	392	49.3
	30대	403	50.7
성별 *연령	여성 20대	194	24.4
	여성 30대	196	24.7
	남성 20대	198	24.9
	남성 30대	207	26.0
혼인상태	미혼(비혼)	584	73.5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211	26.5
성별*혼인상태	여성 미혼	273	34.3
	여성 기혼	117	14.7
	남성 미혼	311	39.1
	남성 기혼	94	11.8
연령*혼인상태	20대 미혼	368	46.3
	30대 미혼	216	27.2
	20대 기혼	24	3.0
	30대 기혼	187	23.5
자녀유무	자녀없음	657	82.6
	자녀있음	138	17.4

	구분	빈도	비율
성별*자녀유무	여성 자녀없음	321	40.4
	여성 자녀있음	69	8.7
	남성 자녀없음	336	42.3
	남성 자녀있음	69	8.7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82	10.3
	전문대학 재학/졸업	94	11.8
	대학교 재학/졸업	555	69.8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이상	64	8.1
경제활동	일함	617	77.6
	일하지 않음	178	22.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2	7.8
	200~400만원 미만	236	29.7
	400~600만원 미만	218	27.4
	600~800만원 미만	114	14.3
	800만원 이상	165	20.8

- 성평등 인식에 대한 분석은 전체 분석대상자인 79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족형성 인식 관련하여 결혼 의향은 584명, 자녀 의향은 657명이 분석 대상이었음. 각 분석별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성평등 인식에 대한 기초통계 차이 분석 및 군집분석: 795명
 - 결혼 의향 관련 기초통계 분석 및 회귀분석: 584명(여성 273명, 남성 311명)
 - 자녀 의향 관련 기초통계 분석 및 회귀분석: 657명(여성 321명, 남성 336명)

2.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인식

가.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 19가지 문항으로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토대로 한 문항에는 80%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단위: %, 점)

구분	①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②동의 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매우 동의함	계	평균 (표준 편차)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24.2	49.4	23.9	2.5	100.0	2.05 (.76)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33.7	44.3	16.6	5.4	100.0	1.94 (.85)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간호사, 보육교사 등)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45.9	42.6	9.6	1.9	100.0	1.67 (.72)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	47.7	36.7	12.7	2.9	100.0	1.71 (.80)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45.3	40.6	12.5	1.6	100.0	1.70 (.75)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51.3	39.4	7.4	1.9	100.0	1.60 (.71)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33.8	35.7	21.5	8.9	100.0	2.06 (.95)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45.3	34.1	18.1	2.5	100.0	1.78 (.83)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56.9	35.2	6.2	1.8	100.0	1.53 (.69)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5.3	7.9	43.0	43.8	100.0	3.25 (.82)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3.5	8.6	45.5	42.4	100.0	3.27 (.76)

구분	①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②동의 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매우 동의함	계	평균 (표준 편차)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26.2	42.6	24.7	6.5	100.0	2.12 (.87)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24.7	29.2	31.1	15.1	100.0	2.37 (1.01)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23.3	39.4	32.6	4.8	100.0	2.19 (.85)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17.6	35.6	40.9	5.9	100.0	2.35 (.84)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15.3	22.1	49.7	12.8	100.0	2.60 (.90)
성평등은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2.5	7.4	49.2	40.9	100.0	3.28 (.71)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4.5	31.1	49.6	14.8	100.0	2.75 (.76)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1.8	13.8	70.1	14.3	100.0	2.97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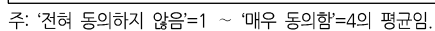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 가장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로 응답자의 90.1%가 동의하고 있어 성평등 자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회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라는 문항으로 8.0%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터에 있어서 남성 우위의 인식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줌.
- 남성의 아이돌봄과 여성의 경제활동,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등과 관련한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는 87.9%가 동의하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문항에는 동의 응답이 14.1%로 낮게 나타난 것에 반해,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는 문항에는 과반수 이상인 62.5%가 동의하여 여성의 돌봄 역할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있음을 보여줌. 즉, 성역할 고정관념을 토대로 하여 ‘여성=돌봄자’ 인식에서는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명시적이지 않은 돌봄 역할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함.

즉, 여성만 해야 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이분법적 성역할 태도에서는 벗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 발달에 있어서는 여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한편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46.8%)’거나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37.4%)’와 같이 여성을 약하거나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은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46.2%)’, ‘남성들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31.2%)’와 같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문항에 대한 동의비율은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에는 동의하는 응답이 9.3%에 불과한 것에 비해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40% 이상의 높은 동의 비율을 보여 보호의 대상으로 여성을 보는 관점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줌. 반면,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와 같이 남성성을 강조하는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22.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대한 강함에 대한 강조는 여성에 대한 약함을 강조하는 인식보다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반영함.
- 여성의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은 동의 정도가 14.1%인 것에 반해,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26.4%)’, ‘남편소득이 아내소득보다 높지 않으면 기가 죽는다(20.6%)’와 같이 남성의 생계부양 관련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돌봄에 대한 역할 공유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반해,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이 가족 내에서 주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함을 반영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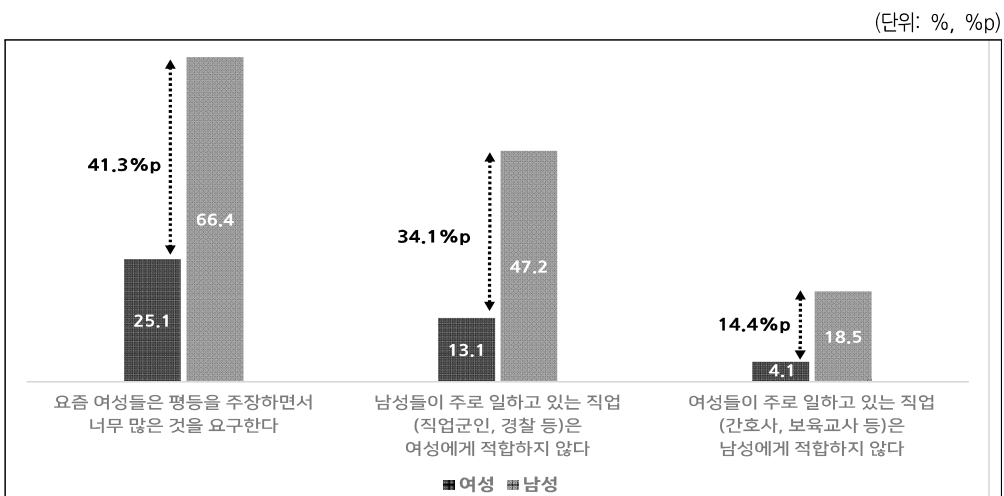
(단위: 점)



1)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의식

- 성평등 의식을 측정한 각 문항에 대해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개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문항은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로 여성 청년들은 25.1%만이 동의한 것에 반해 남성 청년들은 과반수 이상인 66.4%가 동의하여 현재 청년 세대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줌.
- 두 번째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 문항은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로 청년 여성의 동의 비율(13.1%)보다 남성 청년의 동의 비율(47.2%)이 34.1%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전형적인 성역할 태도가 여성보다 더 강함을 보여주고 있음. 반대의 경향을 측정한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간호사, 보육교사 등)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낮은 동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전형적인 남성의 일자리에 대해서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함.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낮기는 하나 남성 청년은 전형적인 여성 일자리에 남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동의 비율 역시 여성보다 14.4%p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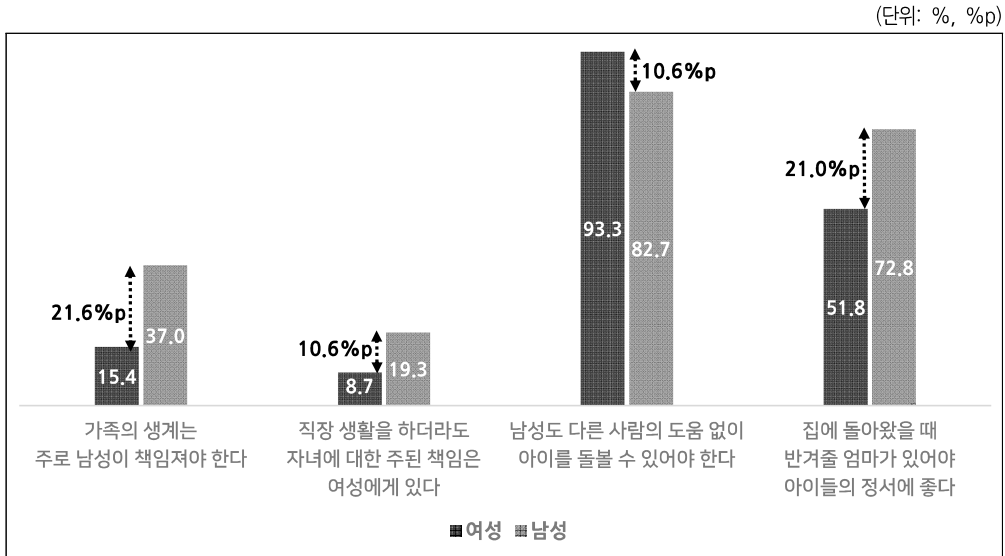
[그림 3-2]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의식



주: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의 응답 비율임.

- 성별에 따라 동의 비율이 20%p 이상 차이가 나타난 문항 역시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문항이었음.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해서 여성은 15.4%만이 동의한 것에 비해 남성은 3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생계부양자’라는 인식이 남성 스스로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여성을 자녀돌봄의 책임자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남녀 모두 20% 이하 수준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임. 특히 여성 스스로 자녀 돌봄의 책임자로 인식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여 여성의 돌봄 책임 역할과 관련하여서도 남성(19.3%)이 더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돌봄 책임자로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남성이 단독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높게 나타났음. 특히 여성의 90% 이상은 남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성 역시 80% 이상이 동의하는 특성을 보였음.
- 한편, 돌봄의 책임이 여성의 역할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돌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향을 보였음.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여성의 역할로 동의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적 태도로서 돌봄에 대한 인식은 동의 비율이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는 문항의 응답에 남녀 모두 50% 이상의 동의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20%p 이상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돌봄 역할에 대한 암묵적 기대가 존재함을 보여줌.

[그림 3-3]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의식: 가족 역할 관련



주: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의 응답 비율임.

-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문항과 관련하여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응답차이가 나타나 남성들이 여성보다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고정관념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문항에 남성은 34.6% 동의하여 여성보다 25.6%p 높은 비율을 보였음.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와 같은 문항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 비율이 10%p 내외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성별에 따른 응답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문항은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와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의 두 문항이었음.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의 문항에는 여성 44.9%, 남성 48.6%가 동의하여 차이가 3.7%p에 불과하였음.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항에 있어서도 여성 86.9%, 남성 82.0%의 동의 비율을 보여 성별간 차이가 5%p 미만 수준이었음.

2) 연령에 따른 성평등 의식

- 조사대상자인 청년의 연령을 20대³⁾와 30대로 분류하여 연령대에 따른 성평등 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문항의 평균 점수를 연령집단별로 분석하였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성평등 의식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것과 달리 연령 집단별로 대부분의 문항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19개 문항 중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은 9개 문항이었음. 성역할 태도와 관련하여 30대가 20대보다 유의미하게 전형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으며, 성평등 관심 및 실천과 관련하여서는 20대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음.

[표 3-4] 4개 연령집단에 따른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단위: 점)

구분	19~ 29세	30~ 39세	차이 검증 (t)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1.98	2.11	-2.31*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1.95	1.92	.56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간호사, 보육교사 등)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1.63	1.72	-1.79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	1.65	1.77	-2.20*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1.63	1.78	-2.88**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1.56	1.64	-1.57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1.97	2.13	-2.37*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1.72	1.84	-1.99*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1.47	1.58	-2.17*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3.22	3.29	-1.14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3.27	3.26	.18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2.04	2.19	-2.40*

3) 분석대상에 포함된 19세는 20대로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구분	19~ 29세	30~ 39세	차이 검증 (t)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2.35	2.38	-.31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2.15	2.23	-1.26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2.32	2.38	-.98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2.58	2.62	-.73
성평등은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3.33	3.24	1.86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2.83	2.67	2.92**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3.04	2.90	3.48**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2) 같은 문자끼리 평균 차이 없음.

3) * $p < .05$, ** $p < .01$, *** $p < .001$

- 추가적으로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성평등 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19개 문항 중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 성별에 의한 차이가 두드러져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보수적인 성역할 인식을 보이며,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인 특성이 나타났으나 문항에 따라 여성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반면 남성은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반대로 여성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는 반면 남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20대와 30대 남성 모두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고 여성 20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은 30대 남성이 가장 낮았으며 20대 여성은 가장 높은 관심 수준을 보였음. 생활 속 성평등 실천은 성별차이보다 연령차이가 두드러져 20대 여성과 남성이 30대 남성과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음.

[표 3-5]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단위: %, 점)

구분	여성		남성		차이 검증 (<i>F</i>)
	19~ 29세	30~ 39세	19~ 29세	30~ 39세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1.83 ^a	1.90 ^a	2.14 ^b	2.30 ^c	18.07***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1.64 ^a	1.71 ^a	2.12 ^b	2.26 ^b	27.74***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간호사, 보육교사 등)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1.43 ^a	1.52 ^a	1.82 ^b	1.91 ^b	23.20***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	1.35 ^a	1.53 ^b	1.94 ^c	2.00 ^c	38.94***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1.39 ^a	1.60 ^b	1.86 ^c	1.95 ^c	30.12***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1.34 ^a	1.42 ^a	1.78 ^b	1.84 ^b	28.25***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1.56 ^a	1.77 ^b	2.38 ^c	2.48 ^c	57.09***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1.48 ^a	1.70 ^b	1.95 ^c	1.96 ^c	17.31***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1.26 ^a	1.40 ^b	1.68 ^c	1.75 ^c	27.40***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3.48 ^a	3.48 ^a	2.96 ^b	3.10 ^b	22.93***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3.53 ^a	3.47 ^a	3.03 ^b	3.07 ^b	25.81***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1.89 ^a	2.10 ^{ab}	2.19 ^{bc}	2.28 ^c	7.74***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1.83 ^a	1.93 ^a	2.80 ^b	2.87 ^b	75.04***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2.01 ^a	2.15 ^{ab}	2.29 ^b	2.30 ^b	5.48**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2.28	2.36	2.36	2.40	.64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2.28 ^a	2.44 ^a	2.79 ^b	2.87 ^b	19.83***
성평등은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3.53 ^a	3.36 ^b	3.14 ^c	3.12 ^c	15.99***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2.94 ^a	2.81 ^{ab}	2.71 ^{bc}	2.54 ^c	10.94***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3.05 ^a	2.92 ^b	3.04 ^a	2.88 ^b	4.31**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2) 같은 문자끼리 평균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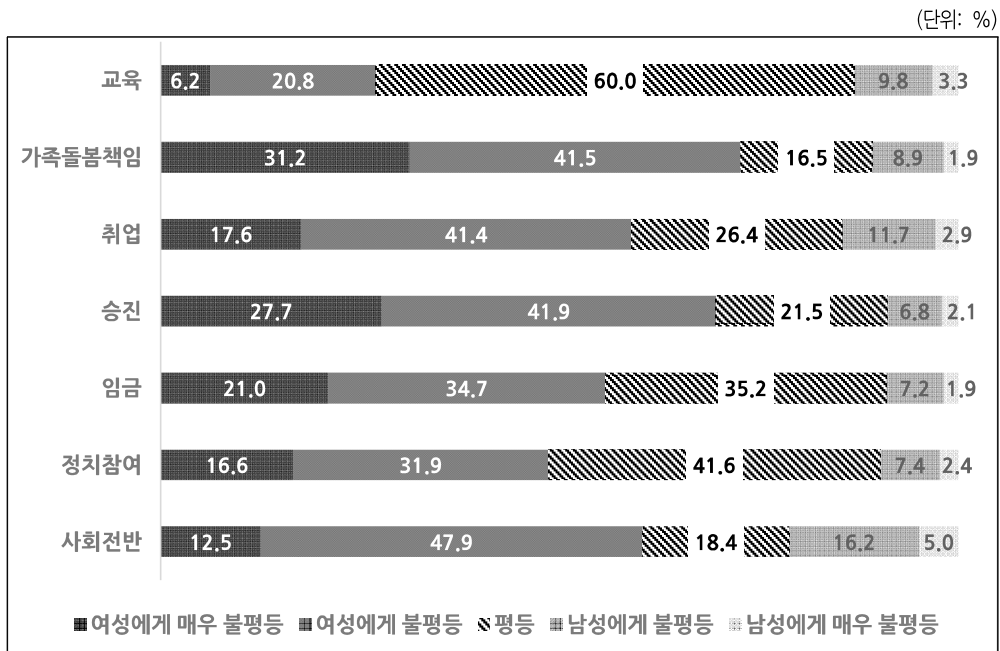
3) * $p < .05$, ** $p < .01$, *** $p < .001$

나. 경기도 청년의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1) 사회의 성평등 수준 인식

- 교육, 가족돌봄책임분담, 취업(일자리), 승진(관리직 진출), 임금(소득) 등의 6개 영역에 있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청년은 각 영역에 따라 성평등 수준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음.
- 평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영역은 교육으로 경기도 청년의 60%는 교육 영역에 있어 우리사회가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다른 영역에서는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음.
 - 가족돌봄책임분담, 승진에 있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약 70% 내외 수준으로 보였음. 특히 가족돌봄책임분담에 있어서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31.2%로 다른 영역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각 영역별로 10% 내외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취업(일자리)에 대해 남성에게 불리하다는 응답이 14.6%로 가장 많았음.

[그림 3-4] 영역별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 우리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경기도 청년의 60.4%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21.2%, 평등하다는 응답이 18.4%였음.

가) 성별에 따른 사회의 성평등 수준 인식

- 교육, 가족돌봄책임분담, 취업(일자리), 승진(관리직 진출), 임금(소득) 등의 6개 영역의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에 있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모든 영역에 있어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남성이 높게, 자신의 성별에 불평등하다는 인식은 해당 성별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음. 자신의 성별에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높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 비율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 비율보다는 성별을 막론하고 높게 나타났음. 각 영역별로 청년 남성은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10% 이하 수준인 것에 비해, 청년 여성은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1%이하 수준이었음.

[표 3-6] 성별에 따른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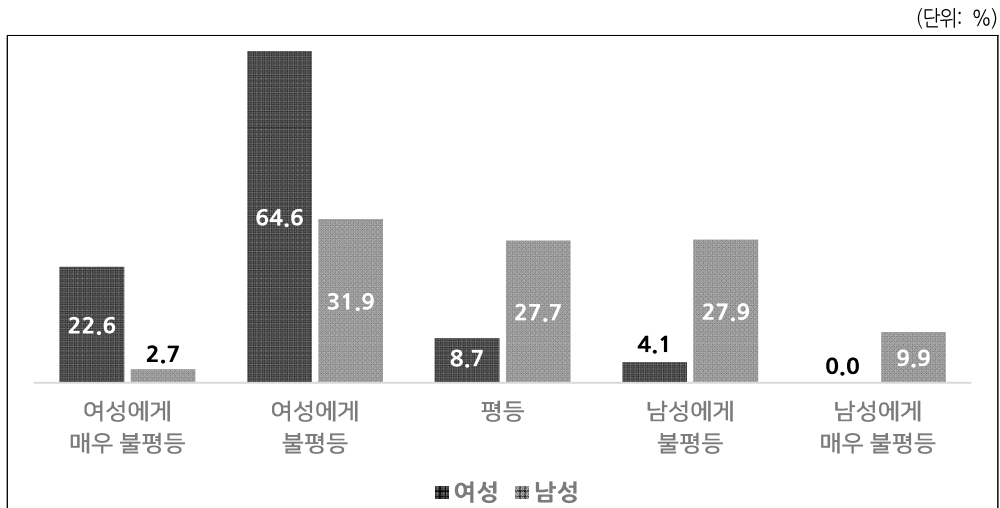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교육	가족 돌봄책임	취업	승진	임금	정치 참여
여성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10.3	55.4	31.8	48.7	38.7	28.5
	여성에게 불평등	29.5	32.3	49.5	40.8	41.5	44.9
	평등	55.9	5.4	15.1	6.7	16.2	23.8
	남성에게 불평등	4.1	6.7	3.6	3.6	3.3	2.8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0.3	0.3	0.0	0.3	0.3	0.0
남성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2.2	7.9	4.0	7.4	4.0	5.2
	여성에게 불평등	12.3	50.4	33.6	43.0	28.1	19.5
	평등	64.0	27.2	37.3	35.8	53.6	58.8
	남성에게 불평등	15.3	11.1	19.5	9.9	10.9	11.9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6.2	3.5	5.7	4.0	3.5	4.7
차이검증(χ^2)		97.78***	231.57***	201.71***	225.40***	230.11***	203.16***

주: *** $p < .001$

- 우리사회가 평등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던 교육의 경우, 청년 여성은 55.9%, 청년 남성은 64.0%가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음. 청년 여성의 경우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39.8%였으나, 청년 남성은 14.5%에 불과하였음. 성별을 막론하고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6개 영역 중 유일하게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 비율보다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영역임.
-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던 가족돌봄책임의 경우, 청년 남성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청년 여성의 인식과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음. 청년 여성들의 55.4%는 가족돌봄책임에 있어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것에 비해 청년 남성은 7.9%에 불과하였음. 청년 남성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하기는 했으나, 청년 여성들은 80%이상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성별차이가 두드러져 청년 여성은 5.4%에 불과하였으나, 청년 남성은 27.2%가 평등하다고 응답하였음.
- 취업, 승진, 임금 등에 있어 청년 여성은 80% 이상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청년 남성은 50%이하 수준으로 응답하였음. 특히 청년 여성들이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것에 비해, 청년 남성의 경우 취업과 임금은 4.0%, 승진은 7.4%가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고 응답함. 반면, 여성들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10% 이하인 것에 비해 남성들은 취업에 대해 25.2%가, 승진과 임금에 대해서는 약 14%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였음.
- 정치참여 영역은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이나 여성(23.8%)보다는 남성(58.8%)이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35.0%p 높은 경향을 보였음.
-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인식 역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chi^2=254.01$, $p<.001$). 청년 여성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청년 남성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31.9%)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 평등하다는 응답(27.7%)과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27.9%) 역시 높게 나타났음. 청년 여성들에 자신들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인 것에 비해 청년 남성들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기는 하나 남성에게도 역시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보여줌.

[그림 3-5] 성별에 따른 사회 전반적 성평등 수준 인식



나) 연령에 따른 사회의 성평등 수준 인식

- 연령집단에 따른 각 사회 영역의 사회 성평등 수준은 취업, 승진, 임금 영역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즉, 경제활동 관련 영역에 있어 성평등 인식 수준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음.
- 취업 영역에 있어서 20대(36.7%)와 30대(45.9%) 집단 모두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30대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음. 또한, 평등하다는 응답 역시 20대(30.1%)가 30대(22.8%)보다 더 높았음. 반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20대(12.5%)가 30대(10.9%)보다 더 높았음 ($\chi^2=14.74$, $p<.01$).
- 승진(관리직 진출)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연령 집단에서는 약 39%의 응답 비율인 것에 비해 30대 집단에서는 약 45% 수준을 보였음. 20대 집단은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는 비율이 3.8%로 1%가 되지 않은 30대 집단에 비해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음($\chi^2=14.82$, $p<.01$).
- 임금(소득)에 대한 인식은 평등하다는 인식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며 20대 집단은 약 40%에 가까운 비율이었으나, 30대는 7.5%p 낮은 수준을 보였음.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은 30대가 20대보다 약 10%p 높은 수준을 보였음. ($\chi^2=11.96$, $p<.05$).

[표 3-7] 연령대에 따른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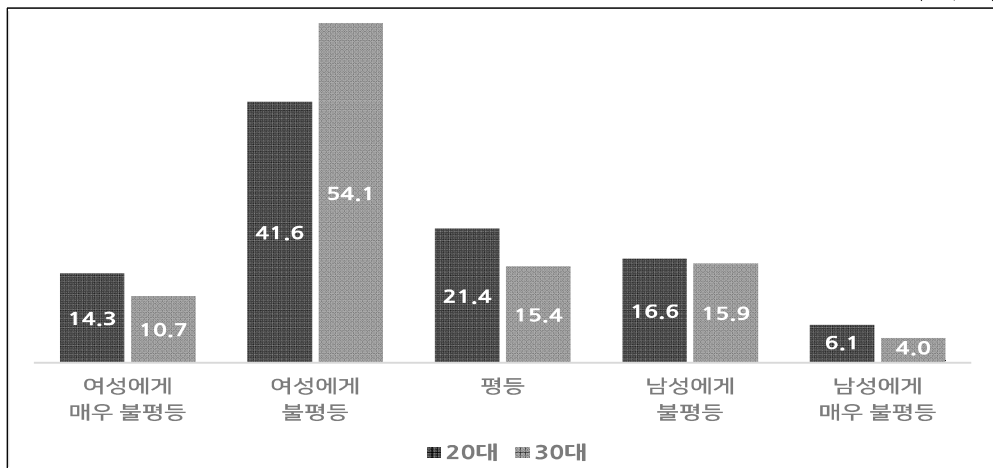
구분		교육	가족 돌봄책임	취업	승진	임금	정치 참여
20대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6.6	31.4	16.3	26.3	20.7	16.8
	여성에게 불평등	18.1	37.5	36.7	38.8	29.6	30.1
	평등	59.2	19.1	30.1	23.7	39.0	42.3
	남성에게 불평등	11.5	9.7	12.5	7.4	8.2	7.7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4.6	2.3	4.3	3.8	2.6	3.1
30대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5.7	31.0	18.9	29.0	21.3	16.4
	여성에게 불평등	23.3	45.4	45.9	44.9	39.7	33.7
	평등	60.8	13.9	22.8	19.4	31.5	40.9
	남성에게 불평등	8.2	8.2	10.9	6.2	6.2	7.2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2.0	1.5	1.5	0.5	1.2	1.7
차이검증(χ^2)		9.29	7.50	14.74**	14.82**	11.96*	2.46

주: * $p < .05$, ** $p < .01$, *** $p < .001$

-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인식은 연령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30대는 과반수 이상인 54.1%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한 것에 반해 20대는 41.6%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여 12.5%p의 차이가 나타났음. 평등하다는 인식과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은 20대가 30대보다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그림 3-6] 연령대에 따른 사회 전반적 성평등 수준 인식

(단위: %)



2)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 성별에 따른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성별 갈등,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여성 및 남성에 대한 혐오, 온라인상의 성차별적 표현 등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갈등, 혐오, 폭력 관련 모든 문항에 있어 심각하다는 응답(심각함+매우 심각함)이 75% 이상을 차지하였음.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성차별 표현이나 농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2%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갈등에 대해서도 87.6%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에 대해서도 78.7%가 심각하다고 보았으며, 여성에 대한 혐오(80.9%)가 남성에 대한 혐오(76.2%)보다는 심각하다는 인식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음.

[표 3-8] 경기도 청년의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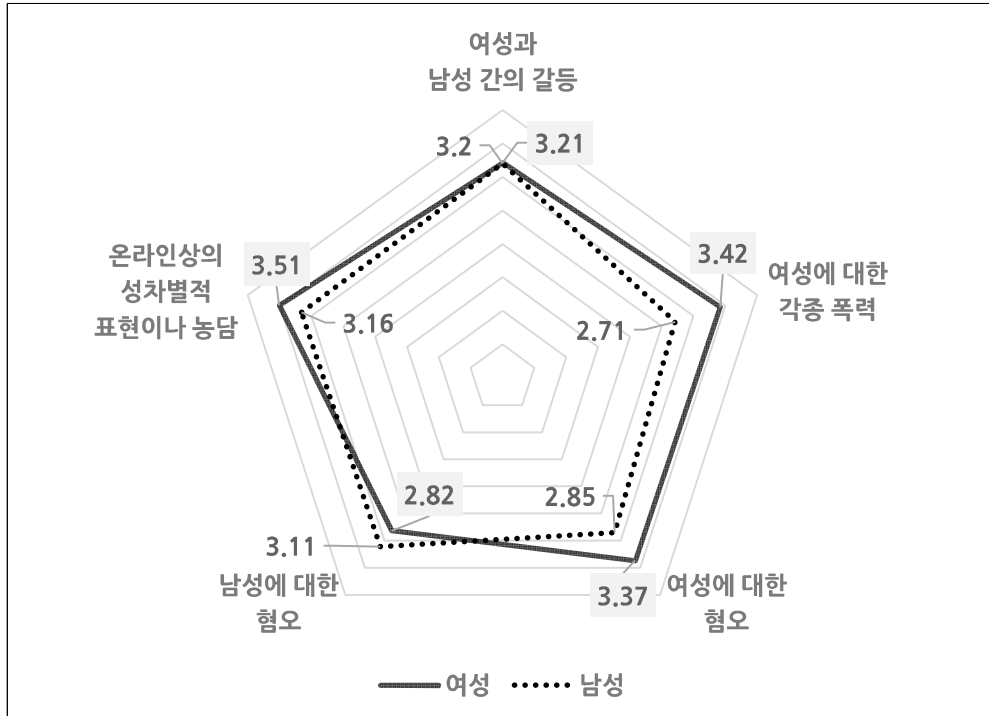
구분	① 전혀 심각 하지 않음	② 심각 하지 않음	③ 심각함	④ 매우 심각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여성과 남성의 갈등	1.1	11.3	53.1	34.5	100.0	3.21 (.68)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3.4	17.9	47.9	30.8	100.0	3.06 (.79)
여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3.1	16.0	47.9	33.0	100.0	3.11 (.78)
남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4.5	19.2	51.2	25.0	100.0	2.97 (.79)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1.5	8.3	45.8	44.4	100.0	3.33 (.69)

주: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 성별에 따른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각 문항의 응답 평균 수준을 분석하였음. 성별에 따른 평균은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을 제외한 4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그림 3-7] 성별에 따른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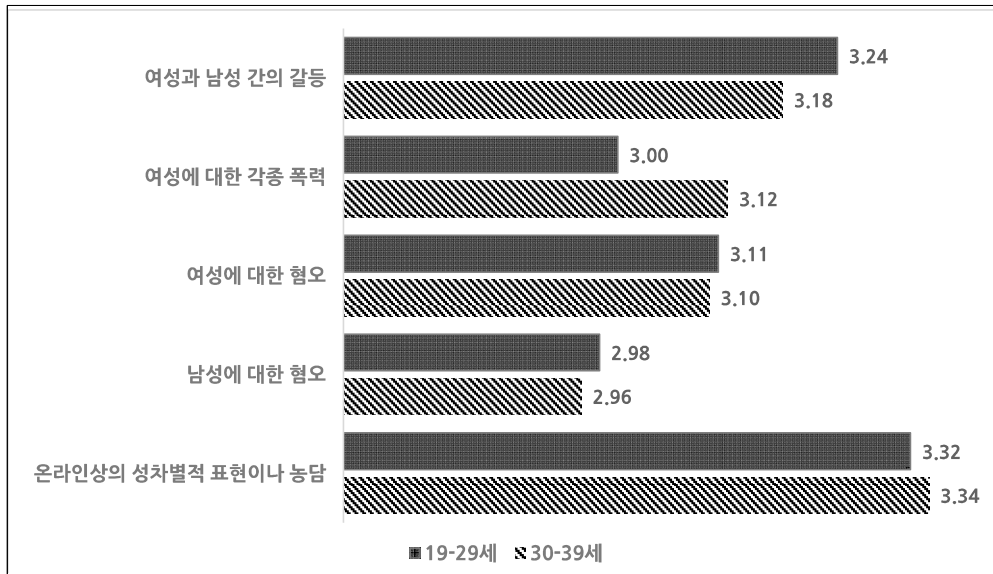


주: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4개 문항 중 남성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개 문항에 있어서는 여성의 심각성 인식 수준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 연령대에 따른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30대 청년들이 20대 청년들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20대 청년들이 30대 청년보다 갈등이나 혐오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은 30대가 조금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음.

[그림 3-8] 연령집단에 따른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단위: 점)



주: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3) 성차별 경험

-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모든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최소 11.7%p에서 최대 41.0%p까지의 차이를 보였음.
- 여성들이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부분은 성희롱(67.5%)과 여자답게/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66.5%)이었음. 성희롱의 경우에는 남성의 차별 경험 응답자 비율보다 3배 이상의 수준으로 성별 응답 비율 차이가 가장 컸음.
- 남성이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은 여자답게/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49.2%)이었고 학교생활(27.4%), 성희롱(26.5%) 순이었으나 여성의 차별 경험 응답 비율이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
- 성별과 상관없이 성차별 경험이 가장 적은 부분은 가족 내 재산(상속) 분배였으며, 성별 차이도 가장 적게 나는 부분이었음.

[표 3-9] 경기도 청년의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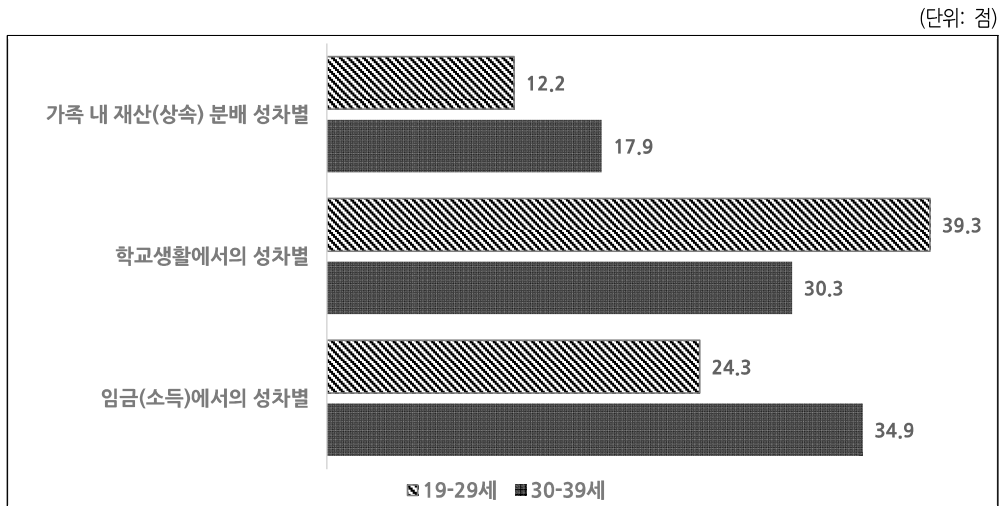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응답 비율 차이(%p)
가족 내 성장과정	29.7	42.1	18.4	23.7
가족 내 재산(상속) 분배	15.1	21.2	9.5	11.7
학교생활	34.9	43.2	27.4	15.8
취업과정	32.3	42.4	23.1	19.3
직장생활	22.7	32.5	13.8	18.7
임금(소득)	23.8	36.1	12.6	23.5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시(욕설, 무시, 비하 등)	32.5	49.0	17.4	31.6
여자답게/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	57.4	66.5	49.2	17.3
성희롱	46.1	67.5	26.5	41.0

주: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 연령대에 따라서는 가족 내 재산(상속) 분배, 학교생활, 임금 부분에서 차별 경험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 가족 내 재산(상속)분배에 있어 20대는 12.2%가, 30대는 17.9%가 차별경험이 있다고 하여 30대의 차별 경험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음.
 - 학교생활에서는 20대의 39.3%, 30대의 30.3%가 차별경험이 있다고 하여, 9.0%p 차이를 보였음.
 - 임금에서 성차별 경험은 20대는 24.3%가, 30대는 34.9%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10.6%p 차이가 나타났음.

[그림 3-9] 연령대에 따른 차별 경험



주: 1)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2) 임금에서의 차별 경험은 해당없음 응답을 제외한 것임.

-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성차별 경험은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로 인한 것으로 연령대에 따른 차이보다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3.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정책 인식

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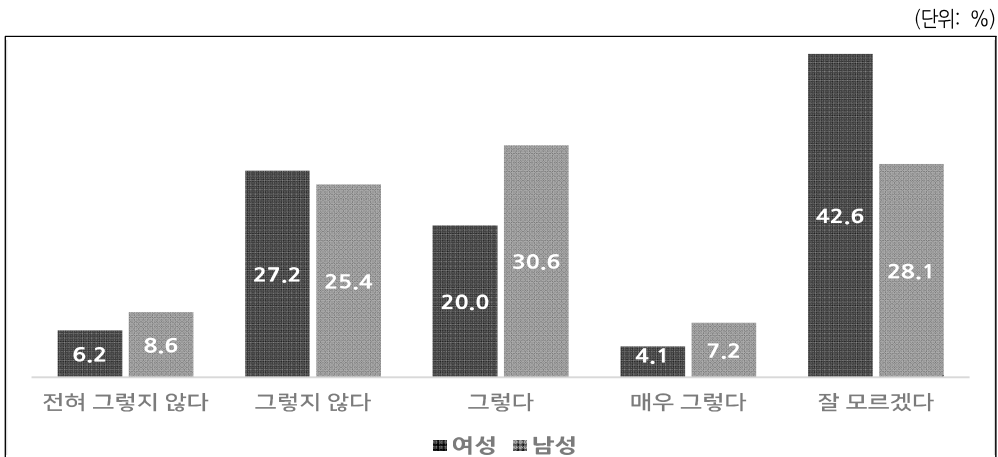
-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은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나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음.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청년의 70% 이상이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33.7%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31.1%)보다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년 35.2%로 더 많았음.

[표 3-10]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 겠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8.1	18.1	50.3	23.5	0.0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	10.1	35.8	44.3	9.8	0.0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7.4	26.3	25.4	5.7	35.2

- 성별에 따른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평등 정책을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chi^2=70.57, p<.001$),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음($\chi^2=28.79, p<.001$). 남성은 성평등 정책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15.6%로 여성의 응답(4.4%)에 비해 11.2%p 높은 수준이었음.
-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성의 42.6%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28.1%에 불과하였음. 남성은 30% 이상이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약 25% 수준이었음.

[그림 3-10] 성별에 따른 성평등 정책 인식: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연령집단에 따른 성평등 정책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중요도

-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12가지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돌봄지원 강화, 양육 부담 경감 지원 등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중요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여성창업지원이었으며, 돌봄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도는 높으나 여성 경제활동 관련 정책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표 3-11] 정책별 정책 중요도

(단위: %, 점)

구분	①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약간 중요함	④매우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돌봄 지원 강화	3.1	6.9	32.2	57.7	3.45 (.76)
양육 부담 경감 지원	2.4	8.3	38.0	51.3	3.38 (.74)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2.3	9.8	43.0	44.9	3.31 (.74)
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 강화	4.8	7.7	39.0	48.6	3.31 (.81)
폭력예방정책 확산 및 추진체계 내실화	3.4	9.9	41.4	45.3	3.29 (.78)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3.9	8.9	42.6	44.5	3.28 (.78)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5.2	8.3	48.1	38.5	3.20 (.80)
생활 속 양성평등문화확산 지원 등	8.4	12.3	42.6	36.6	3.07 (.91)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	8.6	14.6	42.0	34.8	3.03 (.92)
여성취업지원 사업 확대	8.2	14.2	45.0	32.6	3.02 (.89)
양성평등정책 연계, 협력 및 추진기반 강화	9.4	15.1	42.8	32.7	2.99 (.93)
여성창업지원	13.5	20.4	42.1	24.0	2.77 (.96)

주: '전혀 중요하지 않음'=1 ~ '매우 중요함'=4의 평균임.

- 각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모든 정책의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음.
- 연령대에 따라 각 정책의 중요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4. 경기도 청년의 가족 형성 인식

가. 결혼에 대한 태도

1) 결혼 의향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청년 중 26.5%만이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584명에 대해서 결혼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재 비혼 상태인 584명 중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 39.9%, 잘 모르겠다(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30.3%,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이 29.8%였음.
- 성별에 따른 결혼 의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 의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chi^2=30.92$, $p<.001$). 청년 여성의 경우 40.7%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청년 남성은 과반에 가까운 47.6%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여성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여 결혼 의향이 성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음.

[표 3-12] 경기도 청년의 결혼 의향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결혼할 생각이 있다	233	39.9	85	31.1	148	47.6
결혼할 생각이 없다	174	29.8	111	40.7	63	20.3
잘 모르겠다(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77	30.3	77	28.2	100	32.2
합계	584	100.0	273	100.0	311	100.0

- 연령대에 따른 청년의 결혼의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20대와 30대 모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대보다 30대의 응답 비율이 3.8%p 낮았음. 20대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 다음으로 높았으나, 30대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음.

[표 3-13] 연령집단에 따른 경기도 청년의 결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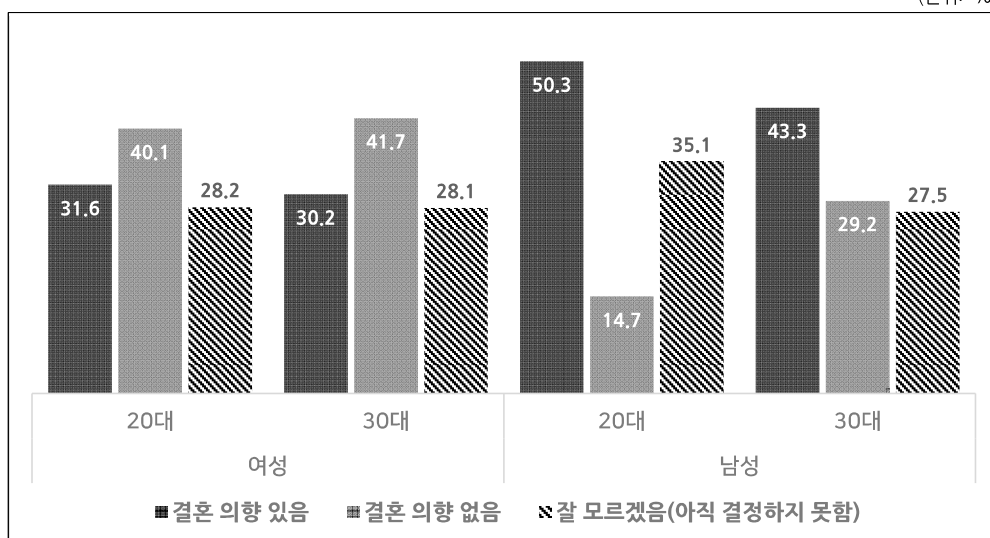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결혼할 생각이 있다	152	41.3	81	37.5
결혼할 생각이 없다	99	26.9	75	34.7
잘 모르겠다(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17	31.8	60	27.8
합계	368	100.0	216	100.0

-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결혼 의향을 분석 한 결과 역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38.49$, $p<.001$). 결혼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20대 남성(50.3%)으로 과반수 이상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결혼 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은 30대 여성으로 30.2%였음.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30대 여성(41.7%)과 20대 여성(40.1%)이 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남성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20대는 14.7%, 30대는 29.2%에 불과하였음. 아직 결정하지 않은 유보적 응답은 20대 남성 집단만이 35.1%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집단은 약 28% 수준으로 유사하였음.

[그림 3-11]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결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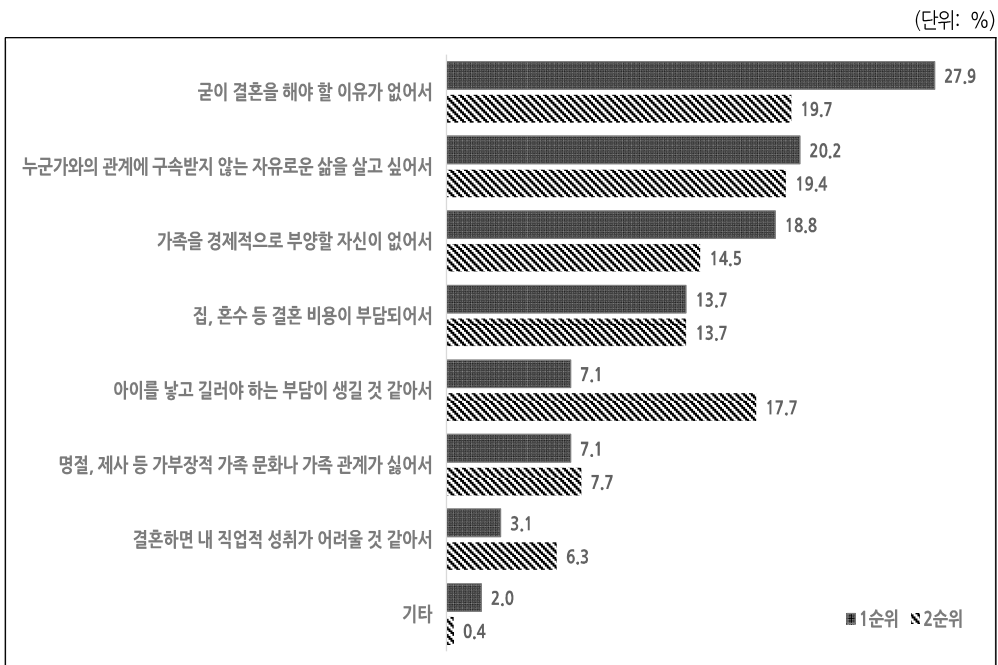
(단위: %)



2)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

-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인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결혼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 1순위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27.9%)’였으며, 2순위 응답에서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었음. ‘누군가와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20.2%)’,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자신이 없어서(18.8%)’, ‘집, 혼수 등 결혼 비용이 부담되어서(13.7%)’ 등이 1순위 응답으로 많았음. 2순위 응답의 경우 1순위에 가장 많이 나온 응답 두 가지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17.7%)’의 응답이 1순위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 이는 경기도 청년들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친밀한 관계 형성이 자신의 개인적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반영함. 이러한 인식이 결혼 의사가 없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2차적인 이유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2]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이유



-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이 없는 이유(1순위) 응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chi^2=54.26$, $p<.001$). 여성은 전체와 마찬가지로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34.6%)’, ‘누군가와와의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22.3%)’의 응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 남성의 경우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자신이 없어서(28.8%)’, ‘집, 혼수 등 결혼 비용이 부담되어서(22.1%)’,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20.2%)’의 순이었음.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 부양이 10.1%, 결혼 비용 부담이 6.4%로 남성보다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이는 전형적인 성역할 태도인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 한편, 여성은 ‘명절, 제사 등 가부장적 가족 문화나 가족관계가 싫어서(11.7%)’가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인 반면, 남성은 1.8%에 불과하여 남성에게는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님을 반영함. 자녀양육부담과 관련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의 응답은 여성이 9.0%, 남성은 4.9%로 1순위 응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음.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의 2순위 응답으로 남녀 모두 1순위 응답과 같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자녀양육 부담의 응답 비율이 높아졌음.

[표 3-14] 성별에 따른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이유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34.6	20.2	20.2	19.0
누군가와와의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22.3	17.8	21.3	17.2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자신이 없어서	10.1	28.8	10.6	19.0
집, 혼수 등 결혼 비용이 부담되어서	6.4	22.1	8.0	20.2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9.0	4.9	19.1	16.0
명절, 제사 등 가부장적 가족 문화나 가족 관계가 싫어서	11.7	1.8	11.7	3.1
결혼하면 내 직업적 성취가 어려울 것 같아서	3.2	3.1	7.4	4.9
기타	2.7	1.2	1.6	0.6

-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이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응답 형태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1순위 응답으로 20대와 30대 모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어서라

는 응답이 28% 내외 수준으로 가장 많았음. 두 연령집단 모두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세 번째로 높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 부담은 20대보다 30대의 응답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였음. 2순위 응답 역시 20대와 30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20대는 자녀양육 부담이, 30대는 굳이 결혼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가 2순위 응답으로 가장 많았음.

[표 3-15] 연령대에 따른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이유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20대	30대	20대	30대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27.3	28.9	18.5	21.5
누군가와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19.0	22.2	19.0	20.0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자신이 없어서	17.1	21.5	12.5	17.8
집, 혼수 등 결혼 비용이 부담되어서	13.9	13.3	12.5	15.6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8.3	5.2	19.4	14.8
명절, 제사 등 가부장적 가족 문화나 가족 관계가 싫어서	9.3	3.7	9.7	4.4
결혼하면 내 직업적 성취가 어려울 것 같아서	2.8	3.7	6.9	5.2
기타	2.3	1.5	1.4	0.7

나. 자녀에 대한 태도

1) 자녀를 가질 의향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청년 중 현재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657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음. 현재 자녀가 없는 청년 중 37.1%가 가질 생각이 있다고 하였으며 34.7%는 가질 생각 없다고, 28.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음.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자녀 출산 의향 역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chi^2=32.97$, $p<.001$).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은 45.5%로 가질 생각이 있다는 여성(29.6%)보다 많았으며, 남성은 44.3%가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과 상반된 경향을 보였음.

[표 3-16] 경기도 청년의 자녀를 가질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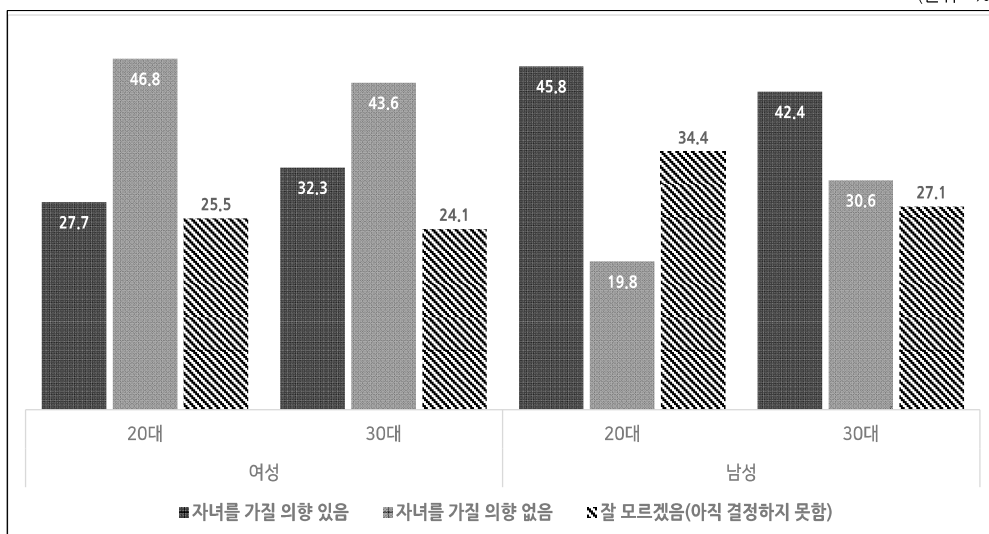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질 생각이 있다	244	37.1	95	29.6	149	44.3
가질 생각이 없다	228	34.7	146	45.5	82	24.4
잘 모르겠다(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85	28.2	80	24.9	105	31.2
합계	657	100.0	321	100.0	336	100.0

- 연령대에 따른 자녀를 가질 의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성별 및 연령집단에 따른 자녀를 가질 의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chi^2=38.28$, $p<.001$) 20대 남성들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20대 여성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같은 연령대에서 성별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20대 여성은 가질 생각이 없다(46.8%)가, 20대 남성은 가질 생각이 있다(45.8%)가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였고, 30대 역시 여성은 가질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30대 남성은 가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림 3-13]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자녀를 가질 의향

(단위: %)



2)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

- 경기도 청년들이 자녀를 가질 생각 없는 이유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자녀 양육·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서(36.3%)’ 였으며,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21.3%)’가 두 번째로 많았음. 2순위로 많이 응답한 것은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20.3%)’, ‘자녀에게 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서(20.1%)’로 나타났음. 1순위 응답으로는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이었다면, 2순위 응답은 좋은 부모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게 매인 삶 등과 같이 부모로서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
-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에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1순위 응답($\chi^2=28.04$, $p<.001$)에서만 있었으며, 2순위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1순위 응답에 있어 여성은 경제적 부담과 좋은 부모에 대한 자신감이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보였으나, 남성은 압도적으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표 3-17]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자녀 양육·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서	36.3	18.6	27.9	17.7	46.5	19.8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21.3	20.3	24.3	16.8	17.6	24.6
자녀에게 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서	14.0	20.1	15.9	21.2	11.8	18.7
아이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12.8	16	11.1	14.6	15.0	17.6
자녀를 키우면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7.5	13.6	8.4	15.9	6.4	10.7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4.4	6.1	6.2	5.8	2.1	6.4
독박 육아를 하게 될 것 같아서	2.2	4.6	3.5	7.1	0.5	1.6
기타	1.5	0.7	2.7	0.9	0.0	0.5

- 연령대에 따른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연령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모든 연령집단에서 전체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 성별과 연령 집단 조합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1순위 응답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40.56, p<.01$). 1순위 응답이 가장 많은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 응답은 30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30대 여성들은 좋은 부모가 될 자신감 부족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음.

[표 3-18] 성별×연령집단에 따른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20대	30대	20대	30대
자녀 양육·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서	30.9	23.3	46.2	47.0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24.3	24.4	19.2	15.7
자녀에게 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서	14.7	17.8	9.6	14.5
아이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11.8	10.0	11.5	19.3
자녀를 키우면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5.9	12.2	8.7	3.6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5.9	6.7	3.8	0.0
독박 육아를 하게 될 것 같아서	4.4	2.2	1.0	0.0
기타	2.2	3.3	0.0	0.0

다. 성평등 의식과 가족형성 인식

- 결혼 의향에 따른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성평등 인식이 높고 덜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성평등 의식 19개 문항 중 결혼 의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나타난 것은 총 11개 문항이었음.
 - 남성의 생계부양 인식에 있어 결혼할 생각이 있는 청년들은 남성의 생계부양 책임에 동의 정도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청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유보적 태도의 청년들은 중간 정도 수준을 보였음.
 -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청년들은 독립적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성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 수준이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유보적인 청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남성도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결혼할 생

각이 있는 청년들과 없는 청년들은 유사한 인식 수준을 보인 것에 비해 유보적 태도의 청년들은 이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동의 정도를 보였음.

-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이 있거나 유보적 청년들보다 남성의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였음.
- 결혼할 생각이 있는 청년들은 ‘힘들고 위험한 일은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는 문항에 대해 다른 두 집단의 청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음.
-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이 있거나 유보적 청년들보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표 3-19] 결혼의향에 따른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단위: 점)

구분	결혼할 생각 없음	아직 결정하지 못함	결혼할 생각 있음	차이검증 (F)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1.92 ^a	2.05 ^{ab}	2.12 ^b	3.63*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1.48 ^a	1.64 ^b	1.64 ^b	3.07*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1.85 ^a	2.13 ^b	2.14 ^b	5.48**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3.40 ^a	3.20 ^{ab}	3.16 ^b	4.53*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3.37 ^a	1.77 ^b	3.24 ^{ab}	3.52*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2.33 ^a	2.15 ^b	1.99 ^b	7.35**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2.12 ^a	2.41 ^b	2.55 ^b	8.77***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2.12 ^a	2.09 ^a	2.31 ^b	4.19*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2.18 ^a	2.26 ^a	2.47 ^b	6.89**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2.28 ^a	2.63 ^b	2.72 ^b	12.41***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2.92 ^a	2.67 ^b	2.75 ^b	4.98**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2) 같은 문자끼리 평균 차이 없음.

3) * p<.05, ** p<.01, *** p<.001

- 자녀 출산 의향에 따른 성평등 의식 수준 역시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청년들이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자녀 출산 의향에 따른 성평등 인식은 19개 문항 중 12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20] 자녀의향에 따른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

(단위: 점)

구분	가질 생각 없음	아직 결정하지 못함	가질 생각 있음	차이검증 (F)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1.90 ^a	2.07 ^b	2.11 ^b	4.86**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1.48 ^a	1.63 ^b	1.65 ^b	3.88*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1.89 ^a	2.10 ^b	2.14 ^b	4.62**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3.41 ^a	3.22 ^b	3.14 ^b	6.57**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3.38 ^a	3.19 ^b	3.19 ^b	4.60**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2.22 ^a	2.15 ^{ab}	2.00 ^b	3.79*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2.10 ^a	2.46 ^b	2.50 ^b	10.47***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2.10 ^a	2.11 ^a	2.28 ^b	3.16*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2.20 ^a	2.28 ^{ab}	2.42 ^b	4.20*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2.33 ^a	2.67 ^b	2.68 ^b	10.50***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3.43 ^a	3.23 ^b	3.23 ^b	5.67**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2.90 ^a	2.69 ^b	2.70 ^b	5.74**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2) 같은 문자끼리 평균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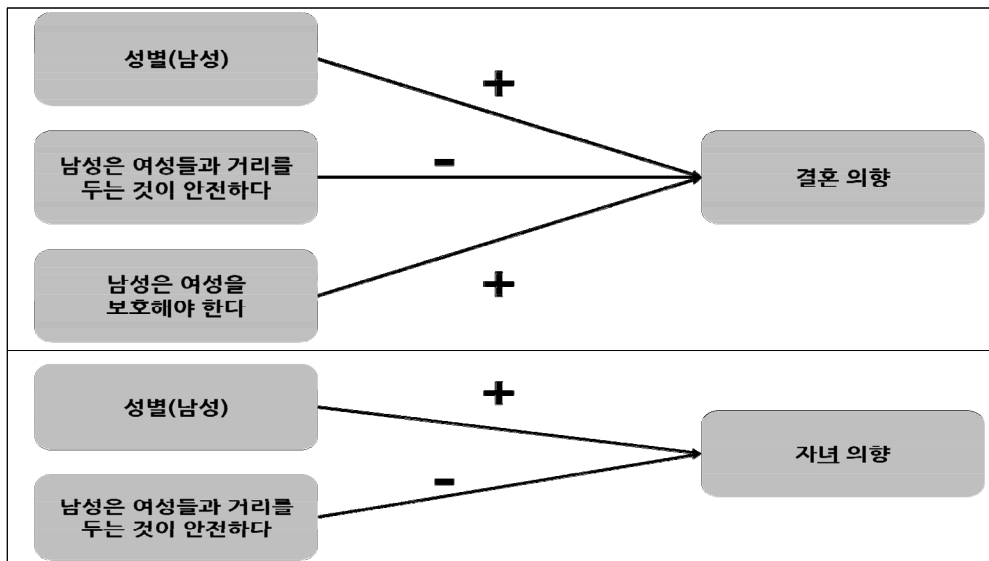
3) * p<.05, ** p<.01, *** p<.001

- 결혼 의향 및 자녀 의향에 따른 성평등 정책 중요도 인식은 여성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이나 자녀출산의 의향이 없는 청년들이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양성평등 정책 연계/협

력 및 추진기반 강화 정책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자녀출산 의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청년들이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였음.

- 경기도 청년의 결혼 의향 및 자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성평등인식 문항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경기도 청년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 19개 성평등 의식 문항 중 2개의 문항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chi^2=64.81$, $p<.001$), 자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성평등 의식 문항 중 1개 문항이 유의미하였음($\chi^2=47.82$, $p<.01$).
- 경기도 청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경기도 청년은 여성보다 남성이,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혼 및 자녀 의향에 있어 공통으로 나타난 유의미한 성평등 인식은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문항으로 성별 간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 즉 이성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결혼 및 자녀 의향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4] 결혼 및 자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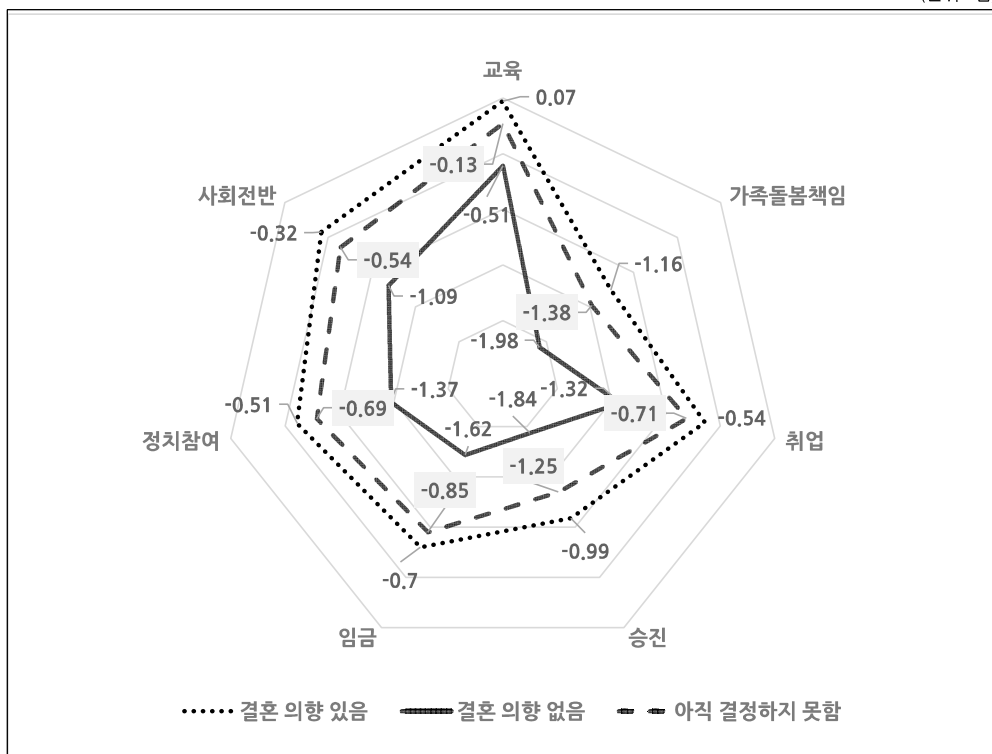


라. 사회 성평등 수준 및 차별경험과 가족형성 인식

- 경기도 청년의 결혼 의향에 따른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및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을 분석할 결과, 결혼 의향에 따른 인식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사회분야별 성평등 수준 인식에 있어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청년들은 결혼 의향이 있거나 유보적 청년들보다 모든 사회분야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강하였음.
 - 교육분야를 제외한 각 분야의 성평등 수준 인식에 있어 모든 집단이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경향이 높았으나, 특히 가족돌봄책임 분담에 있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강한 특성을 보였음.

[그림 3-15] 결혼의향에 따른 사회성평등 수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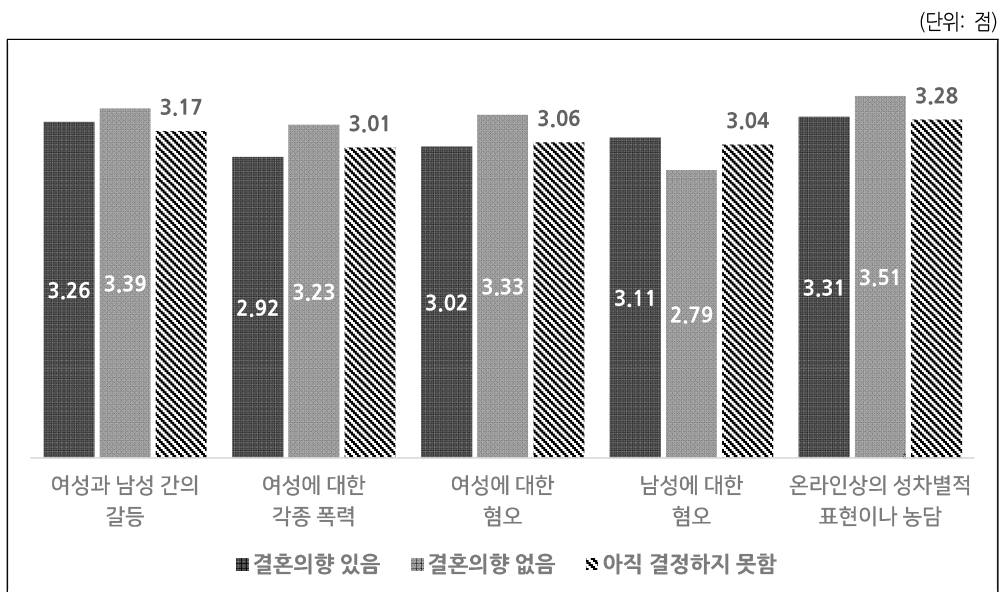
(단위: 점)



주: 평균값의 범위는 -4~4점,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

-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 역시 결혼 의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으며, 각 내용에 따라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에 있어서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 청년과는 심각성 인식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청년보다는 유의미하게 심각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음.
-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여성에 대한 혐오, 온라인상의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에 대한 심각성 인지는 결혼할 생각이 있는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반면, 남성에 대한 혐오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보다 심각성을 낮게 인지하고 있었음.

[그림 3-16] 결혼의향에 따른 갈등, 혐오, 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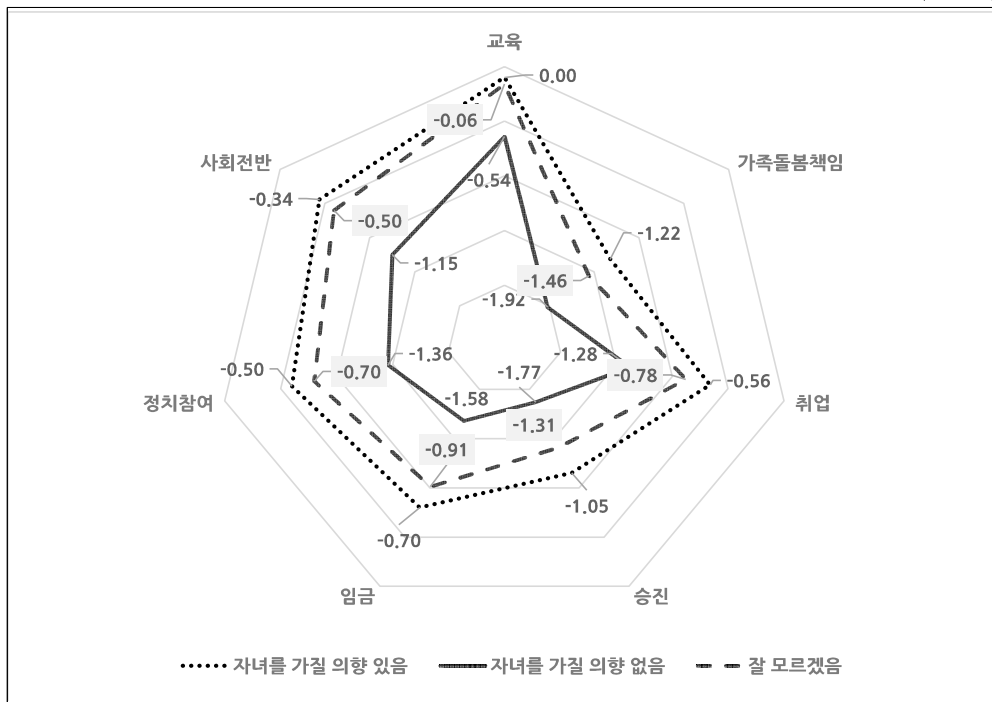


주: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지에 따른 사회의 성평등 수준 인식과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역시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지에 따른 사회의 성평등 수준 역시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보다 유의미하게 각 분야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음.

[그림 3-17] 자녀를 가질 의향에 따른 사회성평등 수준 인식

(단위: 점)



주: 평균값의 범위는 -4~4점,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

-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청년들이 남성에 대한 혐오를 제외한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을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 청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인지하고 있었음. 반면, 남성에 대한 혐오에 대한 심각성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보다 심각성을 유의미하게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보적 태도의 청년들은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 여성에 대한 혐오,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에 대한 심각성 인지에 있어, 자녀의향이 있는 청년과 없는 청년들간의 중간 수준으로 양쪽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즉, 전반적으로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있어 자녀 의향이 있는 청년들은 낮게, 자녀 의향이 없는 청년들은 높게 인식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유보적 태도의 청년들은 그 중간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청년의 분야별 차별 경험 여부에 따른 결혼 의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이 있다와 없다는 응답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에 반해 차별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임금에서의 성차별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47.9%가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경기도 청년의 차별 경험에 따른 결혼 의향

(단위: %)

구분	차별경험 있음	차별경험 없음	응답 비율 차이
가족 내 성장과정	29.8	44.3	14.5
가족 내 재산(상속) 분배	36.0	40.6	4.6
학교생활	33.8	43.6	9.8
취업과정	38.3	43.3	5.0
직장생활	38.2	45.5	7.3
임금(소득)	31.1	47.9	16.8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시(욕설, 무시, 비하 등)	37.4	41.0	3.6
여자답게/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	34.6	47.3	12.7
성희롱	35.2	43.9	8.7

주: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율임.

-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을 제외한 분야별 차별 경험 여부는 자녀의향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의향과 마찬가지로 차별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40% 이상이었으나 차별 경험이 있는 청년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음. 결혼의향과 마찬가지로 임금에서의 차별 경험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율 차이(17.3%p)가 크게 나타났다.

[표 3-22] 경기도 청년의 차별 경험에 따른 자녀 의향

(단위: %)

구분	차별경험 있음	차별경험 없음	응답 비율 차이
가족 내 성장과정	29.6	40.5	10.9
가족 내 재산(상속) 분배	30.3	38.4	8.1
학교생활	31.8	40.3	8.5
취업과정	32.1	41.3	9.2
직장생활	32.7	41.6	8.9
임금(소득)	27.0	44.3	17.3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시(욕설, 무시, 비하 등)	30.4	40.2	9.8
여자답게/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	32.3	43.8	11.5
성희롱	31.9	41.8	9.9

주: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가의 응답 비율임.

5. 성평등 인식에 따른 청년 집단 특성 분석

가. 청년 집단 분류

-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인식 특성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여 성평등 의식 수준에 따른 집단 특성을 분석하였음. 집단 분류를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5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음.
- 집단 I 은 성평등 의식 및 변화 수용 수준이 가장 높고, 성평등 관심 및 실천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임.
- 집단 II는 집단 I 보다는 성평등 의식 수준이 약간 낮기는 하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높으며, 변화 수용에 있어서는 집단 I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 집단임.
- 집단 III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변화수용에 있어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집단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은 앞의 두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성평등 관심 및 실천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임.
- 집단 IV는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은 높은 특성을 보이나 적대적 성차별주의나 온정적 성차별주의 특성은 높지 않은 집단으로 성평등 실천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임.

- 집단Ⅴ는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주의 등 성평등 의식과 변화수용 수준이 모두 가장 낮은 집단으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높은 집단임.
- 각 집단별 성평등 의식 수준은 다음 [표 3-23]과 같음.

[표 3-23] 집단별 성평등 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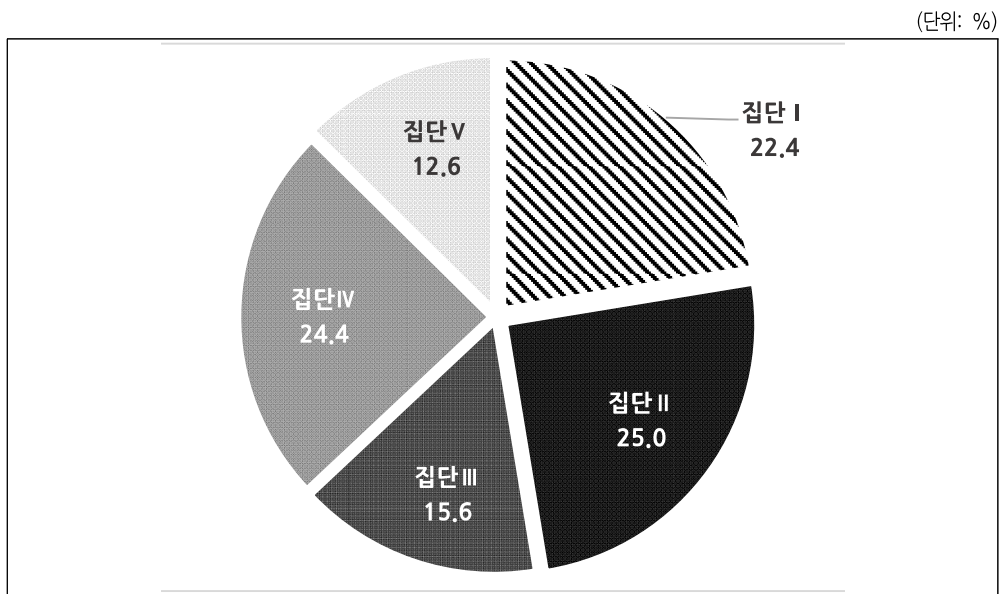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집단Ⅰ	집단Ⅱ	집단Ⅲ	집단Ⅳ	집단Ⅴ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평균	1.35	2.01	2.15	2.23	2.87
	표준편차	0.556	0.636	0.675	0.587	0.646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평균	1.17	1.79	2.22	2.08	2.97
	표준편차	0.404	0.729	0.842	0.57	0.745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간호사, 보육교사 등)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평균	1.14	1.42	1.65	1.91	2.7
	표준편차	0.348	0.543	0.556	0.555	0.772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	평균	1.03	1.34	1.77	2.11	2.78
	표준편차	0.181	0.562	0.661	0.625	0.719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평균	1.1	1.3	1.74	2.13	2.71
	표준편차	0.295	0.502	0.596	0.522	0.671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평균	1.07	1.28	1.6	2	2.38
	표준편차	0.282	0.514	0.622	0.529	0.838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평균	1.35	1.49	2.77	2.22	3.21
	표준편차	0.623	0.658	0.882	0.591	0.715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평균	1.16	1.46	1.81	2.19	2.7
	표준편차	0.496	0.694	0.729	0.591	0.823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평균	1.05	1.15	1.44	1.96	2.4
	표준편차	0.22	0.368	0.546	0.513	0.865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평균	3.2	3.53	3.31	2.96	3.28
	표준편차	1.127	0.68	0.7	0.67	0.57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평균	3.39	3.64	3.27	2.9	3.03
	표준편차	1.031	0.559	0.589	0.585	0.627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평균	1.76	1.85	2.56	2.09	2.77
	표준편차	0.898	0.806	0.904	0.612	0.737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평균	1.62	1.92	3.6	2.38	3.03
	표준편차	0.908	0.831	0.493	0.642	0.745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평균	1.38	2.33	1.98	2.45	3.08
	표준편차	0.592	0.739	0.765	0.594	0.631

구분		집단Ⅰ	집단Ⅱ	집단Ⅲ	집단Ⅳ	집단Ⅴ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평균	1.55	2.69	2.06	2.58	3.02
	표준편차	0.689	0.638	0.762	0.599	0.696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평균	1.69	2.7	2.94	2.79	3.22
	표준편차	0.837	0.802	0.725	0.612	0.645
성평등은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평균	3.6	3.55	3.19	2.94	2.99
	표준편차	0.799	0.547	0.679	0.595	0.628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평균	2.94	3	2.73	2.31	2.77
	표준편차	0.838	0.659	0.734	0.617	0.723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평균	3.1	3.07	3.05	2.64	3.09
	표준편차	0.673	0.427	0.61	0.552	0.552

- 분석대상자 795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99명(25.0%)가 집단Ⅱ로 분류되었으며, 두 번째로 많은 194명(24.4%)이 집단Ⅳ로 분류되었고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인 178명(22.4%)은 집단Ⅰ에, 전체의 15.6%인 124명은 집단Ⅲ에, 가장 적은 100명(12.6%)의 청년이 집단Ⅴ에 포함되었음.

[그림 3-18] 성평등 인식에 따른 청년 집단



- 성평등 인식 수준에 따른 각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3-24]와 같음.
- 여성의 39.5%는 집단Ⅱ, 31.3%는 집단Ⅰ로 분류되었으며, 남성은 28.1%가 집단Ⅳ로, 26.9%는 집단Ⅲ으로 분류되어 성별에 따른 집단 분류가 다른 특성을 보였음.
- 20대 청년은 집단Ⅱ(28.3%)와 집단Ⅰ(23.2%)로 가장 많이 분류되었으며, 30대 청년은 집단Ⅳ(29.5%)가 가장 많았고 집단Ⅱ(21.8%)와 집단Ⅰ(21.6%)이 유사한 비율이었음.
-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23% 내외 수준으로 집단Ⅱ, 집단Ⅰ, 집단Ⅳ으로 분류되었으며, 결혼한 상태의 청년들은 집단Ⅳ(28.9%), 집단Ⅱ(27.5%)로 분류되었음.
- 자녀가 없는 청년들은 집단Ⅰ(24.0%), 집단Ⅱ(23.6%), 집단Ⅳ(23.1%) 순으로 분류된 반면, 자녀가 있는 청년들은 집단Ⅱ(31.9%)과 집단Ⅳ(30.4%)가 주를 이루었음.
- 교육수준에 따라라도 집단 분류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청년들은 집단Ⅳ(29.3%), 집단Ⅲ(25.6%), 집단Ⅴ(22.0%)로 주로 분류되었으며, 집단Ⅰ로 분류된 비율이 8.5%에 불과하였음. 반면,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인 청년들은 집단Ⅰ(31.2%)이 가장 많았고 집단Ⅱ(26.6%), 집단Ⅳ(23.4%) 순이었음. 전문대학 졸업이나 대학 졸업의 청년들은 집단Ⅱ가 가장 많았음.

[표 3-24]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집단Ⅰ	집단Ⅱ	집단Ⅲ	집단Ⅳ	집단Ⅴ	계
성별	여성	122(31.3)	154(39.5)	15(3.8)	80(20.5)	19(4.9)	390(100.0)
	남성	56(13.8)	45(11.1)	109(26.9)	114(28.1)	81(20.0)	405(100.0)
연령	20대	91(23.2)	111(28.3)	70(17.9)	75(19.1)	45(11.5)	392(100.0)
	30대	87(21.6)	88(21.8)	54(13.4)	119(29.5)	55(13.6)	403(100.0)
성별 *연령	여성 20대	77(35.3)	93(42.7)	8(3.7)	32(14.7)	8(3.7)	218(100.0)
	여성 30대	45(26.2)	61(35.5)	7(4.1)	48(27.9)	11(6.4)	172(100.0)
	남성 20대	29(13.7)	25(11.8)	65(30.7)	49(23.1)	42(19.8)	212(100.0)
	남성 30대	25(13.0)	20(10.4)	44(22.8)	65(33.7)	39(20.2)	193(100.0)
혼인 상태	미혼(비혼)	134(22.9)	141(24.1)	102(17.5)	133(22.8)	74(12.7)	584(100.0)
	기혼 (사실혼, 동거 포함)	44(20.9)	58(27.5)	22(10.4)	61(28.9)	26(12.3)	211(100.0)
자녀 유무	자녀없음	158(24.0)	155(23.6)	109(16.6)	152(23.1)	83(12.6)	657(100.0)
	자녀있음	20(14.5)	44(31.9)	15(10.9)	42(30.4)	17(12.3)	138(100.0)

구분		집단Ⅰ	집단Ⅱ	집단Ⅲ	집단Ⅳ	집단Ⅴ	계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7(8.5)	12(14.6)	21(25.6)	24(29.3)	18(22.0)	82(100.0)
	전문대학 재학/졸업	26(27.7)	32(34.0)	6(6.4)	23(24.5)	7(8.8)	94(100.0)
	대학교 재학/졸업	125(22.5)	138(24.9)	90(16.2)	132(23.8)	70(12.6)	555(100.0)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이상	20(31.2)	17(26.6)	7(10.9)	15(23.4)	5(7.8)	64(100.0)
경제 활동	일함	133(21.6)	147(23.8)	94(15.2)	156(25.3)	87(14.1)	617(100.0)
	일하지 않음	45(25.3)	52(29.2)	30(16.9)	38(21.3)	13(7.3)	178(100.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25.8)	12(19.4)	10(16.1)	18(29.0)	6(9.7)	62(100.0)
	200~400만원 미만	56(23.7)	52(22.0)	41(17.4)	57(24.2)	30(12.7)	236(100.0)
	400~600만원 미만	37(17.0)	61(28.0)	35(16.1)	58(26.6)	27(12.4)	218(100.0)
	600~800만원 미만	33(28.9)	30(26.3)	13(11.4)	25(21.9)	13(11.4)	114(100.0)
	800만원 이상	36(21.8)	44(26.7)	25(15.2)	36(21.8)	24(14.5)	165(100.0)

나. 집단별 특성

1) 집단Ⅰ

- 집단Ⅰ로 분류된 경기도 청년은 17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2.4%가 포함됨.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3-25]와 같음.
- 여성이 68.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연령 29.3세로 30대에 비해 20대 비율이 더 높음. 집단Ⅰ의 36.5%는 20대 여성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남성이 14.6%로 가장 적었음. 집단Ⅰ에 분류된 청년들은 대부분 현재 미혼(75.3%)이며 자녀가 없었음(88.8%). 70.2%가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의 교육수준이었고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74.7%였음.

[표 3-25] 집단 I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122	68.5
	남성	56	31.5
연령	20대	91	51.1
	30대	87	48.9
성별 *연령	여성 20대	65	36.5
	여성 30대	57	32.0
	남성 20대	26	14.6
	남성 30대	30	16.9
혼인상태	미혼(비혼)	134	75.3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44	24.7
자녀유무	자녀없음	158	88.8
	자녀있음	20	11.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7	3.9
	전문대학 재학/졸업	26	14.6
	대학교 재학/졸업	125	70.2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이상	20	11.2
경제활동	일함	133	74.7
	일하지 않음	45	25.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	9.0
	200~400만원 미만	56	31.5
	400~600만원 미만	37	20.8
	600~800만원 미만	33	18.5
	800만원 이상	36	20.2
합계		178	100.0

- 집단 I에 속하는 청년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인식하는 데 있어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하였음. 교육을 제외한 사회 각 영역에 있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10% 이하였음.

[표 3-26] 집단 I의 영역별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단위: %)

구분	교육	가족 돌봄책임	취업	승진	임금	정치참여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12.4	56.2	33.1	47.8	40.4	33.1
여성에게 불평등	24.2	28.1	39.9	32.0	33.1	33.7
평등	56.7	11.2	21.3	17.4	24.2	30.9
남성에게 불평등	5.1	3.9	5.1	2.8	1.7	0.6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1.7	0.6	0.6	-	0.6	1.7

- 한국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인식에 있어서도 영역별 인식과 유사하게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42.1%로 가장 많았고, 평등(30.3%),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14.0%), 남성에게 불평등(10.1%),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3.4%)순으로 나타났다.
- 집단 I으로 분류된 청년들은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도 각 영역별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91.5%가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3-27] 집단 I의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심각 하지 않음	② 심각 하지 않음	③ 심각함	④ 매우 심각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여성과 남성의 갈등	2.2	6.2	51.1	40.4	100.0	3.30 (.69)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2.8	14.6	34.3	48.3	100.0	3.28 (.82)
여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3.9	5.1	37.6	53.4	100.0	3.40 (.76)
남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7.3	20.8	44.4	27.5	100.0	2.92 (.88)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2.8	5.6	27.5	64.0	100.0	3.53 (.73)

주: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 집단 I 로 분류된 청년들 중 47.8%가 자신의 삶에 전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23.0%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였음.
- 집단 I 의 현재 결혼하지 않은 청년 중 결혼할 생각이 있는 청년은 31.3%로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청년(40.1%)보다 적은 수였으며, 아직 결정하지 않은 청년(27.6%)보다는 많은 수였음.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는 전체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거나 자유로운 삶의 구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응답이 많았음.
- 대부분 자녀가 없는 집단 I 청년들 중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 청년은 32.3%로 가질 생각이 없는 청년(44.3%)보다 12.0%p 낮은 비율이었음.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 역시 전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경제적 부담, 좋은 부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주요한 이유였음.
- 집단 I 에 포함된 청년들은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78.1%), 경기도 성평등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이 58.9%로 과반수 이상이었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 I 청년은 23.6%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39.9%)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36.5%)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 중요도에 있어 집단 I 의 청년들은 전체와 유사하게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었음. 전체와 달리 일·생활균형지원 확대보다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의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전반적인 중요도 인식 수준이 전체 응답자에 대해 높은 경향을 보였음.

2) 집단 II

- 집단 II로 분류된 청년은 199명으로 전체 청년 중 25.0%로 가장 많은 수의 청년이 포함되어 있음. 199명의 청년 중 여성은 77.4%로 남성(22.6%)보다 많았으며, 20대 청년이 55.8%, 30대 청년이 44.2%였음. 현재 배우자가 없는 청년이 70.9%였으며, 자녀가 없는 청년은 이보다 더 많은 77.9%였음. 69.3%가 대학교 재학/졸업의 교육수준이었으며, 73.9%의 집단 II 청년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었음.

[표 3-28] 집단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154	77.4
	남성	45	22.6
연령	20대	111	55.8
	30대	88	44.2
성별 *연령	여성 20대	87	43.7
	여성 30대	67	33.7
	남성 20대	24	12.1
	남성 30대	21	10.6
혼인상태	미혼(비혼)	141	70.9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58	29.1
자녀유무	자녀없음	155	77.9
	자녀있음	44	22.1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	6.0
	전문대학 재학/졸업	32	16.1
	대학교 재학/졸업	138	69.3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이상	17	8.5
경제활동	일함	147	73.9
	일하지 않음	52	26.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2	6.0
	200~400만원 미만	52	26.1
	400~600만원 미만	61	30.7
	600~800만원 미만	30	15.1
	800만원 이상	44	22.1
합계		199	100.0

- 집단Ⅱ에 속하는 청년들의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인식은 집단Ⅰ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많았음.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5% 내외로 매우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전혀 하지 않거나 0.5%에 불과하였음.

[표 3-29] 집단II의 영역별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단위: %)

구분	교육	가족 돌봄책임	취업	승진	임금	정치참여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9.0	50.8	29.1	44.7	32.2	24.6
여성에게 불평등	30.2	35.7	48.2	42.2	43.7	43.2
평등	57.3	8.5	16.6	10.6	21.6	29.6
남성에게 불평등	3.0	5.0	5.5	2.0	2.5	2.5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0.5	0.0	0.5	0.5	0.0	0.0

- 집단II로 분류된 청년들은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은 가장 낮게, 온라인상의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은 가장 높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표 3-30] 집단II의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심각 하지 않음	② 심각 하지 않음	③ 심각함	④ 매우 심각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여성과 남성의 갈등	0.0	9.0	55.8	35.2	100.0	3.26 (.61)
여성에게 대한 각종 폭력	0.0	9.0	42.2	48.7	100.0	3.40 (.65)
여성에게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0.5	6.0	49.2	44.2	100.0	3.37 (.62)
남성에게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6.5	18.6	54.3	20.6	100.0	2.89 (.80)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0.0	2.5	42.2	55.3	100.0	3.53 (.55)

주: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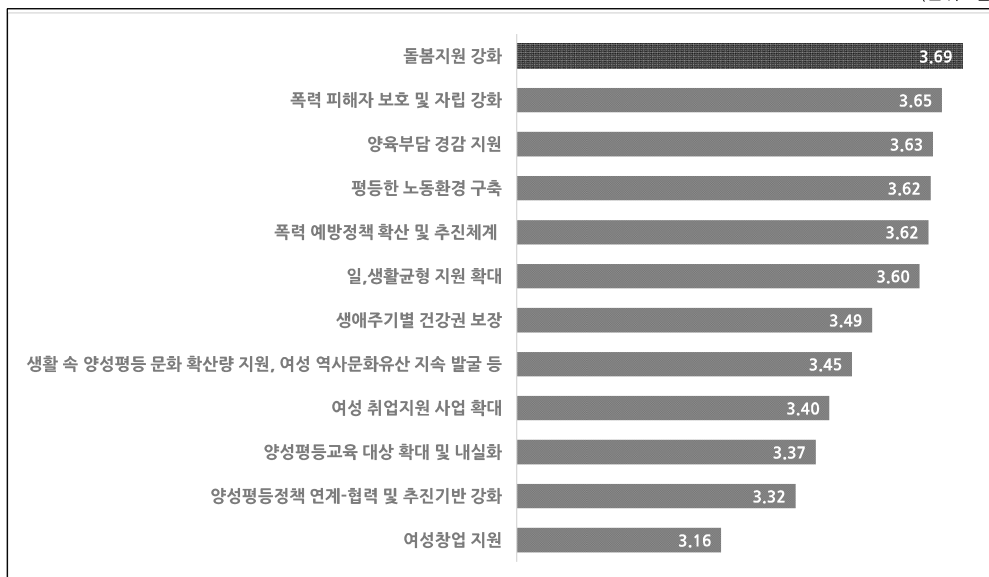
- 집단II의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4.7%로 불만족(25.6%)보다 2배 이상의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단II의 결혼하지 않은 청년 중 결혼할 생각이 있는 청년은 41.1%로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청년(32.6%)보다 많았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한 청년이 26.2%였음. 결혼할 생각이 없

는 이유 1순위는 전체와 유사하게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서(25.3%),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24.1%) 등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2순위 응답은 자유로운 사람(24.1%), 자녀 출산 및 양육 부담(25.3%)의 순이었음.

- 자녀가 없는 집단Ⅱ의 청년 중 자녀를 가질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2%로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38.7%)보다 적은 수였음.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 1순위 응답은 전체와 유사했으나, 2순위 응답에 있어 집단Ⅱ 청년들은 자녀를 키우면 자신의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을 자녀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과 함께 가장 많이 하였음(각 22.5%).
- 집단Ⅱ의 청년의 84.4%는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반수가 약간 넘는 56.8%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Ⅱ 청년은 34.7%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25.6%)보다 많았으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Ⅱ 청년이 39.7%로 가장 많았음.
-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 중요도 인식에 있어 집단Ⅱ는 전체와 달리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보다 폭력피해자 지원 및 폭력예방 지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3-19] 집단Ⅱ의 정책 중요도

(단위: 점)



3) 집단Ⅲ

- 전체 청년의 15.6%인 124명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은 높고 성평등 관심 및 실천은 낮은 집단Ⅲ으로 분류되었음.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3-31]과 같음.
- 집단Ⅲ은 앞의 두 집단에 비해 남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남성이 87.9%, 여성이 12.1였음. 20대 청년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20대 남성이 과반인 50.0%였고 30대 여성은 5.6%로 가장 적은 수였음.
- 80% 이상의 집단Ⅲ 청년들은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녀가 없었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년 비율은 75.8%였으며, 72.6%가 대학교 재학/졸업의 교육수준이었음.

[표 3-31] 집단Ⅲ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15	12.1
	남성	109	87.9
연령	20대	70	56.4
	30대	54	43.5
성별 *연령	여성 20대	8	6.5
	여성 30대	7	5.6
	남성 20대	62	50.0
	남성 30대	47	37.9
혼인상태	미혼(비혼)	102	82.3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22	17.7
자녀유무	자녀없음	109	87.9
	자녀있음	15	12.1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	16.9
	전문대학 재학/졸업	6	4.8
	대학교 재학/졸업	90	72.6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이상	7	5.6

구분		빈도	비율
경제활동	일함	94	75.8
	일하지 않음	30	24.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0	8.1
	200~400만원 미만	41	33.1
	400~600만원 미만	35	28.2
	600~800만원 미만	13	10.5
	800만원 이상	25	20.2
합계		124	100.0

- 집단Ⅲ의 청년들은 앞의 두 집단에 비해 사회 영역별 성평등 수준 인식에 있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특성을 보였음. 특히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앞의 집단들이 영역에 따라 50% 이상의 응답을 보인 것에 반해 모든 영역에 10% 이하의 응답 비율을 보였음. 반면 평등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특히 정치참여의 경우 교육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임금에 있어서도 60% 이상이 평등하다고 응답하여 앞의 두 집단의 청년들이 20% 이하로 응답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 집단Ⅲ으로 분류된 청년들은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 각 영역별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음. 다른 집단의 경우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5% 내외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집단Ⅲ은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12.1%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도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7.3%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3-32] 집단Ⅲ의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심각 하지 않음	② 심각 하지 않음	③ 심각함	④ 매우 심각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여성과 남성의 갈등	0.0	3.2	44.4	52.4	100.0	3.49 (.56)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12.1	29.8	46.8	11.3	100.0	2.57 (.85)
여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7.3	24.2	51.6	16.9	100.0	2.78 (.81)
남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0.8	7.3	50.0	41.9	100.0	3.33 (.65)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2.4	8.9	48.4	40.3	100.0	3.27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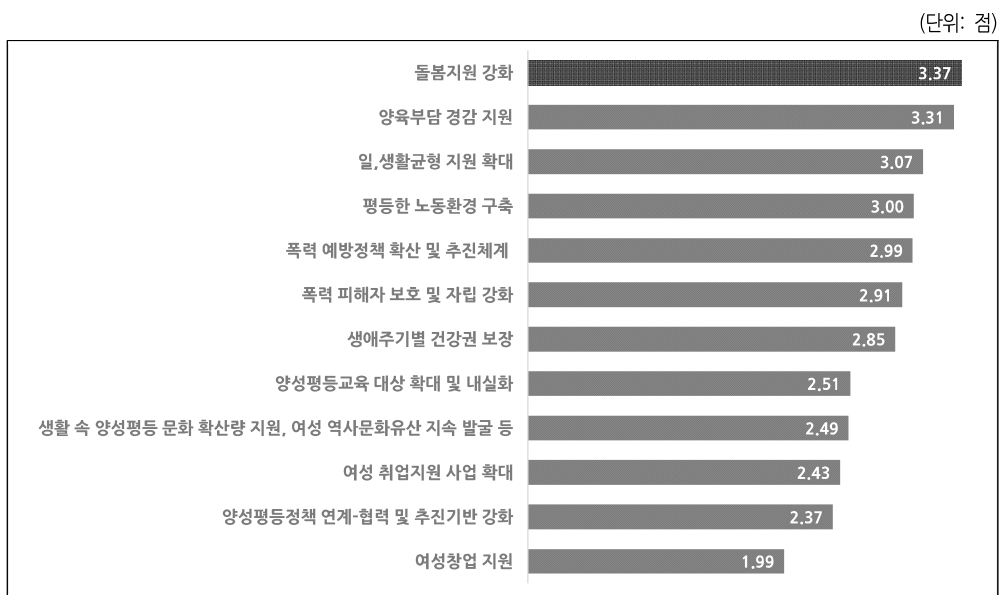
주: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 집단Ⅲ으로 분류된 청년들 중 48.4%가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33.1%,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년 18.5%였음.
- 집단Ⅲ에 포함된 현재 결혼하지 않은 청년 중 33.1%가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청년(19.4%)보다 13.7%p 많았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한 청년이 29.8%였음.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청년들이 망설이는 이유 1순위 응답은 전체와 마찬가지로 굳이 결혼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2.95%)였으나, 경제적 부양 부담(27.9%)을 선택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2순위 응답에서도 가장 많은 청년들(24.6%)이 선택한 응답이었음.
- 자녀가 없는 집단Ⅲ 청년 중 향후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 청년은 34.7%로 가질 생각이 없거나(24.2%), 아직 결정하지 않은 청년(29.0%)보다 많았음.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는 전체와 유사하나 2순위 응답에 있어 자녀양육 비용 부담이 1순위와 마찬가지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 집단Ⅲ으로 분류된 청년 중 과반수 이상인 54.0%가 성평등 정책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 역시 40.3%에 불과하였으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9.0%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29.8%보다 약간 적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1.5%로 가장 많았음.

- 경기도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 중요도 인식에 있어 전체와 마찬가지로 돌봄 및 양육부담 경감 지원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전체와 달리 폭력관련 지원에 대한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및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이 더 높은 중요도 수준을 보였음.

[그림 3-20] 집단Ⅲ의 정책 중요도



4) 집단Ⅳ

- 집단Ⅳ로 분류된 청년은 194명으로 전체 청년 중 25.0%로 집단Ⅱ 다음으로 많은 수의 청년이 포함되었음. 194명의 청년 중 남성이 과반수 이상인 58.8%였으며, 20대 청년이 38.7%, 30대 청년이 61.3%였음. 현재 배우자가 없는 청년이 68.6%였으며, 자녀가 없는 청년은 이보다 더 많은 78.4%였음. 대학교 재학/졸업의 교육수준의 청년이 68.0%로 가장 많았으며, 80.4%의 집단Ⅳ 청년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었음.

[표 3-33] 집단Ⅳ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80	41.2
	남성	114	58.8
연령	20대	75	38.7
	30대	119	61.3
성별 *연령	여성 20대	27	13.9
	여성 30대	53	27.3
	남성 20대	48	24.7
	남성 30대	66	34.0
혼인상태	미혼(비혼)	133	68.6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61	31.4
자녀유무	자녀없음	152	78.4
	자녀있음	42	21.6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	12.4
	전문대학 재학/졸업	23	11.9
	대학교 재학/졸업	132	68.0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이상	15	7.7
경제활동	일함	156	80.4
	일하지 않음	38	19.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8	9.3
	200~400만원 미만	57	29.4
	400~600만원 미만	58	29.9
	600~800만원 미만	25	12.9
	800만원 이상	36	18.6
합계		194	100.0

- 집단Ⅳ의 청년들은 한국 사회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에 대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집단Ⅰ이나 집단Ⅱ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음. 특히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고 인식

하는 집단Ⅳ 남성은 10% 내외 수준으로 교육을 제외한 영역들에서 30% 이상의 응답을 보인 집단Ⅰ이나 집단Ⅱ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음. 반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Ⅲ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음. 영역별로 평등하다는 인식은 집단Ⅲ보다는 낮고 성평등 또는 집단Ⅱ보다는 적은 비율이었음.

[표 3-34] 집단Ⅳ의 영역별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단위: %)

구분	교육	가족 돌봄책임	취업	승진	임금	정치참여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3.1	13.4	7.7	13.4	9.8	7.2
여성에게 불평등	20.1	52.1	45.4	52.6	36.6	33.5
평등	60.8	21.6	31.4	22.7	40.2	46.4
남성에게 불평등	13.9	11.3	13.4	9.8	11.3	9.8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2.1	1.5	2.1	1.5	2.1	3.1

- 집단Ⅳ으로 분류된 청년들은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있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보다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그러나 앞의 집단들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으로 나타났다.

[표 3-35] 집단Ⅳ의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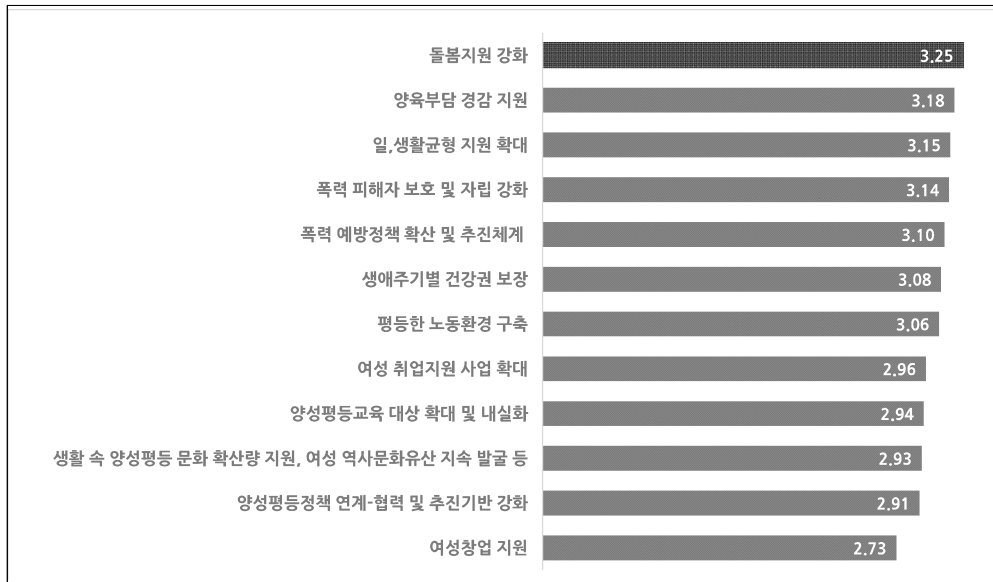
구분	① 전혀 심각 하지 않음	② 심각 하지 않음	③ 심각함	④ 매우 심각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여성과 남성의 갈등	2.6	23.2	57.7	16.5	100.0	2.88 (.70)
여성에게 대한 각종 폭력	2.1	20.1	64.4	13.4	100.0	2.89 (.64)
여성에게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2.6	26.8	56.2	14.4	100.0	2.82 (.70)
남성에게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3.6	24.7	55.7	16.0	100.0	2.84 (.73)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1.5	13.4	61.9	23.2	100.0	3.07 (.65)

주: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 집단Ⅳ로 분류된 청년들의 37.1%가 자신들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36.1%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만족한다는 청년들이 조금 더 많았음.
- 133명의 현재 혼인하지 않은 집단Ⅳ의 청년들 중 30.9%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으며, 22.7%는 유보적 태도를, 14.9%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1순위로는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응답이 23.3%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할 이유가 없거나 결혼비용의 부담(각 20.5%)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전체 응답과는 다른 선택을 보여줬음. 전체 청년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굳이 결혼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28.8%)의 응답은 2순위로 가장 많았음.
- 자녀가 없는 집단Ⅳ 청년 중 향후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 청년은 34.5%로 가질 생각이 없거나(19.6%), 아직 결정하지 않은 청년(24.2%)보다 많았음.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는 전체와 유사하며 특히 경제적 이유가 44.7%로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 응답에서도 경제적 이유가 좋은 부모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집단Ⅳ의 청년 중 77.8%가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과반수인 53.1%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집단Ⅳ의 청년 중 34.0%는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38.2%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집단Ⅳ의 청년들은 집단Ⅲ 청년과 마찬가지로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 중요도 인식에 있어 돌봄지원, 양육부담경감지원 다음으로 일·생활균형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보다는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 취업지원 확대를 양성평등교육 확대, 생활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정책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음. 그러나 전반적인 중요도 인식 수준은 앞의 집단들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음.

[그림 3-21] 집단Ⅳ의 정책 중요도

(단위: 점)



5) 집단Ⅴ

- 전체 청년 중 가장 적은 수인 100명이 집단Ⅴ으로 분류되었음. 이들 중 여성은 19.0%, 남성은 81.0%로 남성이 약 4배 더 많았음. 20대 청년이 45.0%, 30대 청년이 55.0%였음. 100명의 청년 중 현재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74명이었으며, 자녀가 있는 청년은 17명이었음. 집단Ⅴ 청년의 70.0%가 대학교 재학/졸업의 교육수준이었으며, 87.0%가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6] 집단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19	19.0
	남성	81	81.0
연령	20대	45	45.0
	30대	55	55.0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연령	여성 20대	7	7.0
	여성 30대	12	12.0
	남성 20대	38	38.0
	남성 30대	43	43.0
혼인상태	미혼(비혼)	74	74.0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28	28.0
자녀유무	자녀없음	83	83.0
	자녀있음	17	17.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	18.0
	전문대학 재학/졸업	7	7.0
	대학교 재학/졸업	70	70.0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이상	5	5.0
경제활동	일함	87	87.0
	일하지 않음	13	13.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	6.0
	200~400만원 미만	30	30.0
	400~600만원 미만	27	27.0
	600~800만원 미만	13	13.0
	800만원 이상	24	24.0
합계		100	100.0

- 집단Ⅴ의 청년들은 집단Ⅳ 청년들과 유사하게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책임과 승진 영역에서만 10% 이상이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반면, 다른 영역들은 다른 집단의 응답비율에 비해 낮았으며, 집단Ⅲ보다는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음.

[표 3-37] 집단Ⅴ의 영역별 사회 성평등 수준 인식

(단위: %)

구분	교육	가족 돌봄책임	취업	승진	임금	정치참여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2.0	12.0	4.0	15.0	6.0	7.0
여성에게 불평등	14.0	37.0	39.0	40.0	36.0	22.0
평등	58.0	23.0	34.0	26.0	40.0	45.0
남성에게 불평등	20.	24.0	19.0	14.0	14.0	20.0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6.0	4.0	4.0	5.0	4.0	6.0

- 집단Ⅴ으로 분류된 청년들은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있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보다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그러나 집단Ⅰ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다른 집단의 청년들이 온라인상의 성차별 등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에 비해 집단Ⅴ 청년들은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표 3-38] 집단Ⅴ의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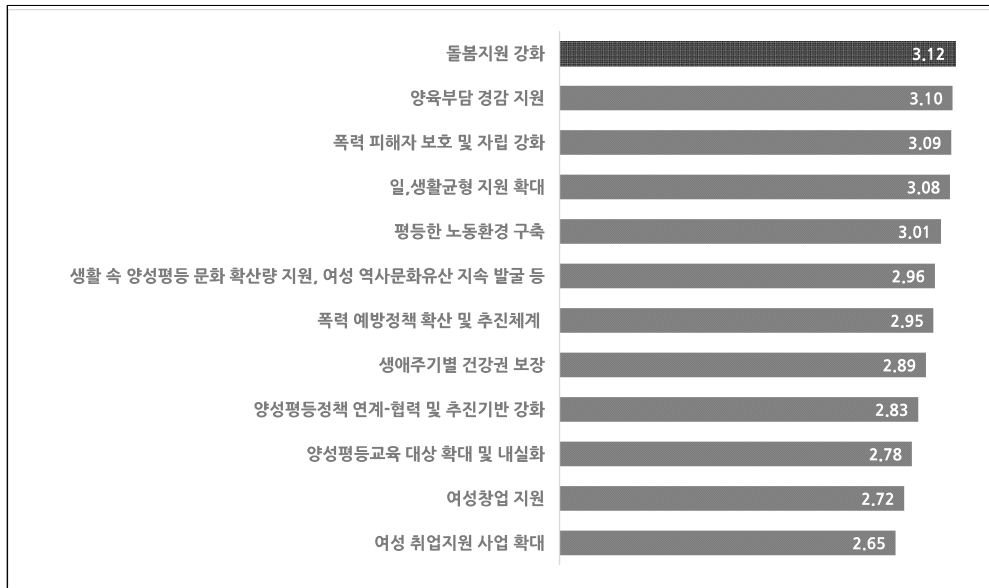
구분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음	② 심각 하지 않음	③ 심각함	④ 매우 심각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여성과 남성의 갈등	0.0	12.0	53.0	35.0	100.0	3.23 (.70)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3.0	22.0	53.0	22.0	100.0	2.94 (.64)
여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3.0	24.0	43.0	30.0	100.0	3.00 (.70)
남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2.0	22.0	50.0	26.0	100.0	3.00 (.73)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1.0	14.0	51.0	34.0	100.0	3.18 (.65)

주: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 집단Ⅴ으로 분류된 청년들의 64.0%가 자신들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보통(23.0%), 불만족(21.0%)으로 응답한 청년들보다 약 3배 많았음.
- 74명의 결혼하지 않은 집단Ⅴ 청년 중 32%는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으며, 아직 결정하지 않은 청년이 22.0%, 결혼할 생각이 없는 청년이 20.0%였음.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은 결혼 비용 부담(23.8%), 가족의 경제적 부양 부담(21.4%) 순으로 전체와 다른 응답 경향을 보였음. 2순위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21.4%), 결혼 비용 부담(19.0%) 등의 응답이 많았음.
- 자녀가 없는 집단Ⅴ 청년 중 향후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 청년은 30.0%로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30.0%)과 같은 수였으며, 아직 결정하지 않은 청년이 23.0%로 가장 적었음.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 1순위는 전체와 유사하나 자녀에게 매여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 응답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 집단Ⅴ으로 분류된 청년 중 과반수 이상인 69.0%가 성평등 정책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음.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59.0%였으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44.0%로 그렇지 않거나(31.0%), 잘 모르겠다(25.0%)는 응답보다 많았음.
-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정책 중요도 인식은 전체와 유사한 경향이기는 하나 폭력 예방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보다 여성 창업이나 취업 지원에 대한 중요도를 더 낮게 평가하였음.

[그림 3-22] 집단V의 정책 중요도

(단위: 점)



IV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및 가족형성에 관한 집단면접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1. 조사개요

- 경기도 청년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하여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음. 조사참여 대상자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음. 면접집단은 5세 단위 연령과 성별로 분류하여 여성 4개 집단, 남성 4개 집단, 총 8개 집단으로 구성하였음.
 - 조사참여자는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경제활동여부,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음
- 면접은 조사업체의 회의실에서 각 집단별로 1회씩 진행되었으며, 1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
- 집단별 구성 및 면접 개요는 다음 [표 4-1]과 같음.

[표 4-1] 면접집단 구성 및 면접 개요

집단	참여인원	성별	연령	혼인특성	면접일시
A	6	여성	20-24세	미혼 6인	2023. 11. 2(목). 11:00
B	6	여성	25-29세	기혼 1인, 미혼 5인	2023. 11. 4(토). 11:00
C	6	여성	30-34세	기혼 3인, 미혼 3인	2023. 11. 2(목). 19:00
D	6	여성	35-39세	기혼 3인, 미혼 3인	2023. 11. 1(수) 15:00
E	6	남성	20-24세	미혼 6인	2023. 11. 6(월) 15:00
F	6	남성	25-29세	미혼 6인	2023. 11. 4(토). 14:00
G	5	남성	30-34세	기혼 3인, 미혼 2인	2023. 11. 3(금). 19:00
H	6	남성	35-39세	기혼 3인, 미혼 3인	2023. 11. 7(화). 11:00

- 면접조사 내용은 결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의향, 성장과정 및 현재 생활에서의 성차별 관련 경험, 가족형성을 위한 정책 요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표 4-2]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성평등 의식 관련	▪ 가족 및 사회에서의 성차별 경험 ▪ 성역할 고정관념 ▪ 젠더(성평등) 이슈
삶의 형태	▪ 가족과의 동거와 1인가구의 삶

구분	내용
가족형성	- 결혼에 대한 태도 - 자녀에 대한 태도
다양한 관계	- 친밀한 관계 형성 - 다양한 가족 인식
정책 요구	- 성평등 정책 요구 - 결혼 및 저출생 대응 정책 요구

- 8개 집단으로 구성된 면접조사 참여자는 총 47명으로 여성 24명, 남성 23명이며 39명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결혼한 상태인 참여자가 13명, 미혼(비혼) 33명, 이혼 1명이었고, 자녀가 있는 참여자는 6명이었음.
- 면접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4-3]과 같음.

[표 4-3] 면접참여자 특성

ID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자녀 유무	경제활동 여부	교육수준	가족과의 동거	지역
G11	23	여성	미혼	X	○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12	22	여성	미혼	X	X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13	24	여성	미혼	X	○	대학원 재학 이상	○	남부
G14	23	여성	미혼	X	X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15	23	여성	미혼	X	X	전문대학 재학/졸업	○	북부
G16	22	여성	미혼	X	X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21	26	여성	미혼	X	○	전문대학 재학/졸업	○	북부
G22	26	여성	미혼	X	○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23	28	여성	미혼	X	○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24	25	여성	미혼	X	○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25	26	여성	미혼	X	○	대학원 재학 이상	×	남부
G26	29	여성	유배우자	X	○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31	34	여성	미혼	X	○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32	33	여성	유배우자	X	○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33	31	여성	미혼	X	○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34	30	여성	미혼	X	○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35	34	여성	유배우자	X	○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36	34	여성	유배우자	X	○	대학원 재학 이상	○	남부

ID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자녀 유무	경제활동 여부	교육수준	가족과의 동거	지역
G41	35	여성	유배우자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42	35	여성	미혼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43	35	여성	미혼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44	36	여성	유배우자	O	O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45	35	여성	미혼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46	35	여성	유배우자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51	23	남성	미혼	X	O	고졸	○	북부
G52	24	남성	미혼	X	X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53	23	남성	미혼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54	21	남성	미혼	X	X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55	23	남성	미혼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56	24	남성	미혼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61	27	남성	미혼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62	26	남성	미혼	X	O	전문대학 재학/졸업	△	북부
G63	25	남성	미혼	X	X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64	27	남성	미혼	X	X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65	24	남성	미혼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66	25	남성	미혼	X	O	고졸	○	남부
G71	30	남성	미혼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72	33	남성	유배우자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73	34	남성	유배우자	O	O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74	33	남성	미혼	O	O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75	34	남성	유배우자	O	O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81	36	남성	유배우자	O	O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82	37	남성	미혼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83	35	남성	미혼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남부
G84	36	남성	유배우자	O	O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85	39	남성	유배우자	X	O	대학교 재학/졸업	○	북부
G86	37	남성	이혼	X	O	고졸	○	북부

주: 가족과의 동거는 원가족 또는 생식가족과의 동거여부를 의미함. 주중엔 따로 살고 있으나 주말에 원가족과 함께 보내는 경우 △로 표시함.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1인가구 형태이나 G54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음.

2. 조사결과

가. 생애과정에서의 성차별 경험

1) 가족에서의 경험

가) 딱히 경험한 적 없는 vs.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요구

-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라오면서 성차별 경험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전반적으로 크게 성차별 경험이 없었다고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즉각적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예들을 언급한 것에 반해, 남성들은 ‘별로 없었다’의 반응을 보인 후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차별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으나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다는 형태의 응답을 보였음. 여성들이 민감하게 차별로 인지하는 것에 반해 남성들은 정도의 차이이지 자라면서 ‘남자라서’라는 이야기는 다 듣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앞에 분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집에서 프레스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그걸 프레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듯이 너는 남자애니까 네가 무거운 걸 들어야지 네가 남자애니까 울지 말아야지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으면 조금 들었을 거고 많이 들었으면 많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누구나 듣기는 들었겠지요.

【G74】

- 원가족 내에서의 차별 경험을 상기해 볼 때 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딸에게는 애교, 아들에게는 책임과 보호를 강조하는 경험을 하였음. 태권도장을 가고 싶었던 여성과 피아노 학원을 가고 싶던 남성과 같이 사교육과 관련한 경험에 있어 성별에 따른 요구가 달랐음을 보여줌.

저는 어렸을 때 액티비티한 활동을 좋아해서 태권도나 이런 걸 배우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여자애는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라고 오빠는 태권도 보냈거든요.

【G12】

저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태권도 학원을 갔어요.

【G65】

- 한편, 원가족과 따로 살고 있는 20대 여성은 아버지의 요구 때문에 매 주말마다 본가에 돌아가고 있으나, 따로 살고 있는 20대 남성은 원가족으로부터 그러한 요구를 경험하지

않았음. 스스로 차별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모들이 아들과 딸에 대해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다름을 반영함. 또한, 여성들은 귀가시간과 관련하여 통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남성들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음.

저도 통금이 있긴 한데 오빠는 통금 없고 근데 이런 것은 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 생각이 그렇고.

【G12】

나) 원가족에서는 No, 확대가족에서는 Yes

-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의 원가족에서는 별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나, 확대가족, 즉 큰집 등에 갔을 때 차별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음. 차례나 제사 등의 전통 의례에 있어서 경험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처우에 대한 변화 요구 등을 통해 지금은 그런 경험이 덜하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여성들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따로 밥을 먹는 경험을 많이 언급하였으며, 제사나 차례의 참여에 있어서 성차별을 경험하였음.

제사를 하거나 할 때 저보다는 남동생을 먼저 이렇게 절을 하라고 한다던가 지금은 거의 안 그러시킨 하는데 어렸을 때는 여자들은 식탁을 따로 해서 따로 밥을 먹거나 저 어렸을 때도 뭔가 너도 초등학교 중학생 돼가는데 음식 만들고 이런 걸 배워야 하지 않겠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 동생은 그냥 두고 제가 그런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랑 같은 나이가 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동생한테는 별말씀 안 하시고 그런 게 어렸을 때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G15】

저는 친척집 같은 데 갔을 때 같이 여자들은 겸상을 안 한다고 예전에 따로 앉혀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G26】

명절에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남자 형제들은 그냥 소파에 앉아 있거나 그냥 있고 여자 형제들이 밥상을 차린다거나 그랬던 거 같아요.

【G23】

- 여성들이 차례나 제사 등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사 노동과 관련하여 여성들만 일하고 남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험을 언급한 것에 반해, 남성들은 별초나 성묘를 가는 것, 친지 방문 등의 일을 남성이 했다고 응답하였음.

그냥 음식 나오니까 주는 대로 먹고 솔직히 그럴 시간도 없는 게 계속 어딜 갔어야 했어요. 그냥 주변에 어떤 분 몇 촌 사는 곳 몇 촌 사는 곳 가서 벌초하고 가서 한 번씩 절하고 안부 묻고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또 그런 거 꾸준히 하고.

【G64】

- 원가족에서는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에 대한 압력을 받지 못했던 참여자들은 확대가족이 모였을 때는 이런 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저는 집에서는 음식을 쓰레기도 어릴 때부터 버리고 요리도 하고 동생 챙겨주고 이랬는데 (중략) 주방에 들어오면 고추 떨어진다부터 시작해서 남자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올면 안 되지부터 시작해서 너무 친가가 많이 쓸데없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G62】

- 일부 참여자들은 이러한 불평등함으로 인해 확대가족과의 인연을 끊거나, 더 이상 왕래를 하지 않아 지금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음. 한편으로 자신들이 확대가족의 일원이 되는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형제자매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구성원과의 교류) 오히려 새로운 가족구성원(며느리)이 전형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원가족인 자신의 입장 차이를 경험하기도 하였음.
- 가족에서의 성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20대가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 30대에서는 사회에서의 성차별 경험을 더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음.

2) 사회에서의 경험

- 면접참여자들은 가족보다는 오히려 학교나 취업 과정, 직장 등의 사회생활에서 성차별 경험이 더 많았다고 응답하였음.

가) 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교사의 태도, 학교 시설

- 학교도 가족과 마찬가지로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참여자가 있는 반면, 학교에서의 성차별 경험을 자세하게 나열하기도 하였음. 학교에서의 경험에 있어 교사의 태도로 인해 성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청년들은 회상하였음. 여성들은 여자다움을 강조하는 교사의 ‘압전’ 해야 한다는 걸 은연중에 들어왔고, 남성들은 무거운 짐은 남성이 들게 하는 일들을 경험함.

언어적으로나 그런 거 (선생님들이) 여자는 얹전해야 해, 심하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그냥 은연중에.

【G21】

그냥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거운 거 드는 것도 다 남자들이 많이 시키고,

【G56】

- 또한, 남성들은 학교 시설에서 성차별을 경험을 토로하며 체육시간 체육복을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여학생에게만 제공된 부분을 언급하였음. 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뿐 아니라 탈의 과정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을 남성들은 토로하였음.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체육시간에 여학우 탈의실은 있었는데 남학우 탈의실은 없었다.

【G81】

(학교에서) 남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되면 식당에서 옷을 갈아입거든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여자분들도 식당에서 갈아입기는 하는데 거리는 되게 가깝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남자들은 여성분들 갈아입는 곳을 지나가면 안 되는데 여자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근데 거기가 또 여성분들 옷 갈아입는 곳이 통유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남자들은 그냥 일부러 피해서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은 그냥.

【G86】

나) 취업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 면접참여자들은 가족이나 학교에 비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성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접 과정에서 여성에게는 결혼이나 출산계획을 물어보았으나, 남성에게는 전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경험을 함. 여성들은 여성에게 기혼이나 자녀 계획은 부정적인 측면인 것에 반해 남성의 기혼 상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음.

팀에 면접을 보러 오면 팀장님이랑 저랑 들어가게 되면 팀장님이 꼭 여자분이 들어올 때는 애인이 있냐, 결혼할 생각이 있냐, 애 낳을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남자분은 딱히 그런 질문은 없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경력이나 단절이 될 것 같은데 딱 그 결혼할 수 있는 연령층이 오면 꼭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G33】

기혼이 되고서 면접을 보면 남자들은 오히려 결혼을 했다고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반응이 뭔가 기혼이 가장이니깐 안 그만두겠네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런 게 있는데 여자들은 기혼이라고 하면 저 질문을 하시는 거 같아요.

【G32】

- 반면, 남성들은 취업과정에 있어 결혼이나 자녀 계획 관련 내용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차별적 요소로 남성들에게만 지방 발령 관련 질문 등을 언급하였음.

제주도나 오지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겠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입사 후에 선배들하고 얘기 나눴을 때 남자 직원들한테 그 질문이 가더라고요.

【G81】

- 취업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상반된 경험은 여성들은 짐을 들어야 해서 남성을 뽑으려고 한다는 경험을 한 반면, 남성들은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 직원을 뽑아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들어오고 나서 면접 이런 얘기를 할 때 원래 남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못 뽑았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부서에 다른 사람을 뽑을 때도 위에 분이 아예 이번에 남자를 뽑자 이렇게 픽스를 하셔서(왜 남성을?) 정말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짐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짐이 사실 5kg도 안 되는 짐들인데 그것 때문에 항상 남자를 뽑아왔고 이번에도 남자를 뽑으려고 했었다. 이런 말을 해서 약간. 저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5kg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어서 저는 지금 들어요.

【G24】

외국계 회사인데 외국계 본사에서 살짝 평등을 따지고 여성분이 저희 회사 대표가지고 그분께서 되게 그런 성과, 성과 이게 남초이다 보니까 성과, 성과를 하다 보니까 임원들이 사원을 뽑을 때는 다 무조건 거의 다 여자로 해라 이런 식으로 구두상으로 다 암묵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직무에 여성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채용할 때도 똑같은 오히려 남성분께서 더 스펙이 좋은데도 여성을 뽑고 그보다 더 많고 업무 관련도 없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G66】

다) 업무에 있어서의 차별 경험

-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한 차별에 대해서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 승진 등에서 배제된 경험을 토로하였으며,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았음.
- 여성들은 주로 결혼 및 자녀와 관련한 직장에서의 관심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음. 남성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는 내용을 여성 직원들에게는 꼭 확인을 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고 보았음. 아직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여성들은 조직 내에서 이런 상황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됨.

똑같이 승급 대상자이면 뭔가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대놓고는 없지만 조금은 있어요. 확실히 결혼하셔서 되잖아요. 약간 이러면서 배제된다는 느낌이 없진 않아요. (남성들에게?) 질문 안해요. 그런 질문은 안 하고 담배 피우냐 아니면 술 좋아하냐 이런 질문이지 그러니까 취향에 대한 질문이지.

【G33】

회사 다녀보니까 워킹맘들의 어려움들 팀원분들 보면서 간접적으로도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팀에는 남자 상사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실제로 조금 압박적인 분위기도 많이 주시고 작년에 결혼하신 여성 제 나이 또래 팀원분이 있는데 그분은 확실한 딕크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윗 상사분이 고맙다고 딕크여서 고맙다고 그 얘기를 식사하면서 제가 듣는데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 회사 생활 앞으로에 있어서.

【G25】

- 여성들은 승진에서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 반면, 남성들은 오히려 여성들이 승진하기 좋은 업무에 배정받고 있어 역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여성 직원들이 힘들다고 울거나, 짐을 옮기지 않거나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남성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았음.

여성들에게는 뭔가 승진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어차피 너는 무거운 거 못 드니까 너는 그냥 승진이 보장되는 기술원이라 해라. 그래서 행정 업무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행정 업무는 전에 들어왔던 남자 선배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 후배들이 들어오면 기술원으로 빼고 본부나 이렇게 처로 막 이렇게 올려보내요. 본사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승진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니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G61】

케바케이긴 한데 저희 회사 여직원분들은 좀 힘들면 많이 울어요. 이게 업무의 강도가 제가 하던 것을 제가 너무 바쁘면 이렇게 분할을 해서 몇 번 이렇게 주면 울어요. 부담이 된다고. (중략)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울면 그것도 그냥 업무를 못 주고 안 주고 바쁘더라도 내가 하고 그 직원은 6시 칼퇴근 하고 나는 막 10시 11시까지 하는데 그런 정도의 차이 그리고 무거운 거 아까 그거 말씀하셨는데 짐 오면 당연히하게 안 나와요. 짐이 무겁지 않더라도 그냥 짐 왔다 하면 저희는 좀 가지러 가야 되는데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G75】

- 남성들은 이러한 성차별 경험은 관리자의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전형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 관리자들의 성별에 따른 직원 대우의 차이로 인해 과거 세대에는 남성우위였을지 모르나 현재 남성 청년 직원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또한, 커피나 회식자리 선정 등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도 함께 인식하고 있었음.

확실히 여자들은 좀 편한 부서에 많이 보내주고 좀 힘들다 이렇게 막 하거나 약간 부사장에게 가서 눈물 한 번 보이면 좀 좋은 데로 보내주는데 특히 젊은 남성들 20대 30대 남성들의 힘들고 가기 싫어하는 부서를 많이 보내주고 좀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게 좀 저희 세대들 남자들이 느끼는 불만이 있지요. 확실히 50대 한 그쯤 되는 부서장들이면 약간 스윗남 이런 것으로 해서 여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하고 내가 꼭 챙겨준다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유독 여직원들한테는 좀 편하게 힘든 일 있으면 뭐 남자 직원 해야지 약간 이런 게 확실히 있어요.

【G82】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지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손님이 오셔서 커피를 타야 될 때는 여직원이에요. 그런 게 있고, 저희는 남성 비율이 높은 회사거든요. 그런데 회식 같은 거 하면 꼭 여직원들은 본부장님 근처, 저는 그쪽 관리 부서에 있는데 본부장님 근처, 그 부장님은 좀 그래요. 본부장님은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옆자리 앞자리 이렇게 이 사각 테이블 안에도 몇십 명이 있어도 여직원들은 꼭 여기 들어가요.

【G75】

라) 같은 상황 다른 태도

- 남성들은 같은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 또는 사람들의 태도로 인하여 차별을 경험한다고 토로하였음. 남성 화장실의 변기 설치 위치 등과 같이 기본적인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 화장실은 전혀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남성 화장실은 여전히 공간이 노출된 경우가 많거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잘못 사용할 경우 성별에 따른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임.

제 친구가 술에 좀 취해서 공중화장실에 가다가 취해가지고 남자 마크랑 여자 마크를 헛갈려서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애가 취해서 당연히 남자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경찰 신고 등으로 인한 소동 발생)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착각하셔서 남자 화장실 잠깐 들어가신 적 있는데 근데 거기 있던 아저씨분께서 왜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셨냐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걸 보고 요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여서 이해는 하지만 뭔가 여성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 주는데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좀 실수하면 요즘 같은 사회에서 그냥 바로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남성들이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감이.

【G52】

- 특히 남성이라서 더 어렵거나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성교육 등에서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가해자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음. 성교육 등에 있어 남성에 대해서만 변화를 요구함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였음.

남자 상사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여직원들을 대할 때 조심성이 커지는 건 있어요. 반대로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 대하는 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터치 같은 것도 여자 동기들 보면 주먹으로 때리고 이러는데 터치 자체나 다른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여직원들한테는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항상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자 직원이 반대로 남자 직원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일이 안 커지는데 반대로 왜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한테 하는 것은 입이 커지는가에 대해서 많이 자체를 억제해 시키더라고요. 항상 교육 같은 것도 성교육 문제도 보면 여자 직원이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 직원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교육이 대부분이에요.

【G72】

꼭 이런 교육을 들으면 남자가 피해자가 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중략) 어쩔 때는 꼭 남자만 이상한 사람인가라고 느낄 때가 좀 있어요.

【G71】

나. 젠더 이슈

1)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가) 여전한 듯 여전하지 않은 남성=생계부양자, 여성=돌봄자 역할

- 대부분의 면접 참여자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인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자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약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이분법적 역할 분담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특히,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해서는 이전 세대들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고 남성만이 생계부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들이 주 생계부양자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사회의 현실적인 젠더 임금 격차로 인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남성의 생계부양은) 그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여자들도 많이 자기 직업을 다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무조건 남자만 이렇게 다 생계를 무조건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인식은 크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G16】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더 잘 버는 사람이 벌면 되니까

【G35】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남자가 가장이고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주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 저희 또래 세대들을 보면 MZ 세대들도 결혼할 때 보면 여성들도 요즘 사회에 다 취업을 했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미래에는 둘 다 돈을 같이 벌거나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갈수록 둘 다 같이 벌거나 둘 중에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가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52】

여성이 아무리 일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업무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남성이 이렇게 버는 게 그렇게 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여자는 일도 하고 애도 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G33】

- 여성들이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은 약화되고 여성의 돌봄자 역할은 여전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이 남성들 역시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얘기함. 약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통념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배우자 선택할 때 이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음. 즉, 생계부양자 역할을 할 수 없는 남성은 배우자로 선택될 확률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임. 결국 남성의 경제적 능력이 배우자 선택의 주요한 요소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한 남성 생계부양자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봄.

생계 부양을 하고 여자는 그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했었다면 지금 통념상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관념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렇고 여자들이 성평등이라고 하지만 배우자를 고를 때는 첫 번째가 경제 능력이기 때문에.

【G81】

- 남성들은 배우자가 자신보다 더 잘 벌면 자신들이 생계부양이 아닌 전업주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가벼운 어조로 말하는 경향성을 보였음. 그러나 실제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남성은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더 낫다고 하였음.

(남성 생계부양, 여성 돌봄역할)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회사 가기 싫어요. 대신 회사 나가서 돈 벌어준다면 정말 감사하지요. 애가 있든 없든 떠나서 애 육아를 책임지고, 전업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하고 싶어요. 사실 못할 이유가 없지요. 생계를 책임져준다면 그게 전제가 되겠지요. 책임져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중략) 돈은 나보다 더 잘 버는데 생계 책임져 줄게 하면 감사합니다.

【G72】

(둘째 육아휴직은?) 절대 아닌. 수입을 떠나서 이게 제가 애랑 있는 시간이 힘들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낫다 주변 친구들도 와이프가 집에 있고 투잡을 하더라도 나와 있는 게 편하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부류라서 돈이 수익이 없으면 투잡을 뛰더라도 제 개인 성향은 아닙니다

【G81】

-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약화되었으나, 여성의 돌봄자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식이 강하였음. 남성들이 경제적 능력을 전제로 하여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반해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의 문제보다는 여

전히 문화적으로 여성, 아내, 또는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별 역할 전이는 쉽지 않음을 표현하였음. 특히 현재 자신이 생계부양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당사자인 자신과 남편은 괜찮은데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움을 언급하였음. 즉, 남성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시선이 여전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능력으로 생계부양을 하더라도 쉽지 않음을 보여줌.

저희 또래만 보서는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위에 기성세대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뀌려면 먼 것 같아요.

【G45】

제가 돈을 벌고 신랑이 쉬는 형태예요. 지금 2년간 근데 이제 시부모님이라든가 직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지요. 남자가 왜 쉬냐 남자가 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반대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는 괜찮은데 주변 시각이 되게 안쓰럽게 보고 저를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시부모님도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G26】

- 경제적 능력이 생계부양자 역할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돌봄의 가치가 높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장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돌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음. 이는 현재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 돌봄자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임.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맞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육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G66】

나) 무의식적인 내면화

- 성별 고정관념이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면접참여자들은 이러한 역할 수행이나 일상 생활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작용한다고 보았음. 즉, 머리로는 평등을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의 활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임.

근데 막 힘 쓰고 이런 것은 남자애들이 하지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약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돼 있는 뭔가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의식하고 이거 아니지 하면 아는데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일상생활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G15】

- 이러한 무의식적인 내면화는 여성들의 돌봄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보여졌음. 여성들은 남성 생계부양자 역할이 약화되고 남성의 돌봄이나 가사 역할 수행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 있어 여성 스스로 자신들이 더 잘하고 남성들은 잘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음. 이들이 이런 인식을 하는 기저에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들, 특히 어머니를 보고 자란 여성들은 내재화되어 왔고 남성들은 그런 역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것임.

확실히 살다 보면 남자가 살림한 거랑 여자가 살림한 게 다른 것 같긴 해요. 남자들은 약간 보고 자란 것이 아버지들의 뒷태잖아요. 그러다 보니 살림에 할 때 꼼꼼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저희는 보다 본 게 어머니의 뒷태다 보니까 맨날 살림하는 모습만 거의 보다 보니.

【G26】

그런 것을 보고 자라와서 이미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사가 있고 그럼 꼭 엄마들이 먼저 주방에 들어가고 아빠들은 나와서 따로 담소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은 있잖아요. 겪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배경이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G33】

선생님도 항상 이런 꼼꼼한 거 이런 일 시키면 여자애들 오라고. 물건 나를 때 여자애들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무게여도 그냥 남자애들만 부르는 그런 것이 커서 아직 저희도 그런 것이 좀.

【G16】

다) 물리적으로는 평등, 정서적으로는 엄마

- 면접참여자들은 가사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여성이 더 잘 할 것이라는 것을 내면화하는 것처럼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서도 ‘모성애’로 대변되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며 여성이 주양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듯 인식하고 있었음. 여성들의 경우에는 주변에서만 봐도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며 그런 것들을 보다보니 당연히 주양육자는 여성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남성들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자녀 돌봄을 더 잘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또한 여성들 역시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한편,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사는 남성에 대한 기대가 없으나 양육은 이와 별개의 문제로 남성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였음. 그러나 남성의 양육 참여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양육(먹이기, 재우기, 씻기기 등) 역할이 필요한 영유아기보다 초등학교 들

어가면 아이들을 보기에 남성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었음. 이러한 생각 역시 남성의 돌봄 역할 수행이 실질적인 자녀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 활동이 아니라 자녀와 놀이, 교육, 신체적 활동과 관련한 활동 등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육체적인 스킨십이나 이렇게 같이 놀고 정서적으로 뭔가 그런 식으로 유대감 만드는 거는 저보다 훨씬 체력적으로나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역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G25】

체력이 아무래도 근육 양도 다르고 하니까 그냥 애 좀 크면 남편이랑 애 밖에 던져놓고 놀고 와 하면 저는 그냥 집에서 제 할 일 하면서 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지요.

【G22】

- 남성들의 입장에서 물리적인 돌봄 행위는 자신들이 할 수 있으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인 엄마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엄마와 정서적으로 더 유대감이 깊고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주양육자는 당연히 여성이라는 인식을 강화했음.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남성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 하더라도 긴급전화는 여성에게 가는 것 등과 같이 돌봄 환경에서도 여전히 여성을 주양육자로 보고 있는 부분 역시 여성=주양육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었음.

2) 성평등 이슈

가) 모두가 가야하는 군대

- 젠더와 관련한 이슈 중에서 남성 청년들이 주로 언급하는 부분은 군대였음. 군가산점이 폐지됨으로 인해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가산점이 부활해야 한다고 보았음. 또한 남성들은 군가산점뿐 아니라 여성들도 당연히 군대를 가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여성들이 평등을 요구하면서 왜 군대에 대해서만은 불평등하게 하느냐의 인식을 보였음. 일부 남성들은 신체적 차이가 있으니 남성과 똑같이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기초 군사훈련이나 간호 훈련 등은 받아야 한다고 보았음.
- 군대 문제와 직결되는 20대 여성들은 군대를 가야 한다면 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인구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남녀 모두를 징병하고 가산점도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차별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닌 자기보호 차원에서 군대 복무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실제 사회생활에서 남성은 군가산점으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없어진다면 군대를 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옛날부터 여자들도 군대를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분단국가고 이게 평등을 떠나서 여자들을 위해서도 군대를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전쟁이 나면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총이 앞에 있어도 쏘지 못하고.

【G16】

차별받기 싫어서 우리도 군대 가겠다라기보다는 자기 몸을 지키고 싶고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부당하다고는 다들 생각해요. 아무래도 남자들만 하고 거기서 그 시간에 충성하니까 그런 면 인 것 같아요.

【G13】

군데 사실 군대에 갔다 와서 사실 가산점 받고 호봉이 높기 시작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저도 여자지만 여자가 갈 수 있는 군인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1년이라도 가서 그런 불평등이 없어지면 정말 가고 싶거든요.

【G42】

나) 있는지 없는지 모호한 성별 갈등

-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별 갈등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는 직접 경험한 적이 없으며 온라인이나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이슈로 보고 있었음. 사회 생활에서 적대적인 갈등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며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상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것임. 실제 여성과 남성은 연애도 하고 있고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생성된 이슈가 미디어나 정치인들을 통해 확대되어 부정적인 현상을 야기한 것으로 보았음.
- 한 남성 참여자는 암묵적으로 남성은 군대, 여성은 출산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정치인들의 갈라치기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여성들은 집에 있고 남성들은 밖에서 일을 함에도 집에 와서 또 집안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음.

암묵적으로 이미 다 진행되어 있고 다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시비 걸고 군대 가산점 왜 주냐부터 시비 걸고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럼 너는 왜 애 안 낳냐부터 시작해서 너도 군대 가라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러니까 그들은 그 국회의원분들은 정책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돈이나 주든지 좀 잘 키울 여건을 만들어 줘야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 이슈를 건드려서 갈라치기를 한다 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G62】

돈 벌고 왔는데 주말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전업인데 근데 와이프가 그러면 자기가 5일 동안 애 봤으니까 주말에는 남자고 애 보라고 이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봉 뜨는 거지요.

【G82】

- 성별 갈등은 성별에 의한 갈등이라기보다 계속 경쟁하는 사회 시스템하에서 살아가다보니 남녀를 서로 경쟁자로 몰아넣게 된 결과로 보기도 하였음. 성별의 차이이기보다는 성향의 차이이고 각 사람에 따라 다른 특성으로 보았음.

이건 진짜 케바케예요. 사실 이건 일반화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사실 제 주위에 다 적극적이고 해보려는 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더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내 주위 이런데 왜 커뮤니티에만 들어가면 이런 얘기만 할까. 사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있겠지요. 당연히. 근데 그건 남자애들 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향 차이라는 거지요.

【G54】

다)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지 않는 기성세대

- 청년들은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변화해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들은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남성 참여자의 경우 사회는 성평등해졌는데 남성들에게는 의무와 책임을, 여성은 평등만 주장한다고 보았음. 반면 여성 참여자들은 성평등은 강조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 일상생활에서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경제활동과 함께 여전히 여성에게 많은 가족 역할 부담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임.

성평등으로 가기 위한 속도가 너무 붙는 바람에 역차별이 돼서 이게 지금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략) 생계 부양을 하고 여자는 그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했었다면 지금 통념상 남자가 돈을 벌어야와 된다는 그 관념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렇고 여자들이 성평등이라고 하지만 배우자를 고를 때는 첫 번째가 경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자는 육아 집안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의무가 생겨버린 거지요. 과중되는 거지요.

【G81】

그래서 여자는 일도 하고 애도 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G33】

- 또한 청년들은 한국사회에서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또래에서는 특히 평등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기성세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의 성평등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음. 현재 자신들은 성평등 사회라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등함이 존재하나 다음 세대에서는 달라질 것이라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음.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평등을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언급하였음.

조금 성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저희가 나이를 더 먹었을 때는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윗 세대는 전혀 바뀌지 않아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미래 기대감으로 우리 아래 세대는 더 행복하겠지. 우리가 조금 희생하면 아래 세대들은 더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근데 아직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 같아요.

【G45】

막 옛날처럼 심하지는 않다. 많이 올라오긴 한 것 같은데 제도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요.

【G22】

바꾸면 여성 리더가 있는 팀에 꼭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사실은 체감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평등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G25】

다.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

1)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가) 굳이 할 필요 없는 vs. 굳이 안할 필요 없는

-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년들 역시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남성들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음. 여성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과 달리 남성들은 굳이 안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여성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괜히 인생을 망치는 것 보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현재 자신의 경제수준보다 낮아진다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음. 특히 30대 여성들은 20대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았으나 연령이 높아지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등이 사회적으로 생겨남에 따라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결혼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지금 내 삶보다 더 나아져야지 하지, 지금이랑 똑같으면 할 이유 전혀 없어요. 정말 1%라도 나아져야지 똑같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G45】

- 남성 참여자들은 젊었을 때에는 삶을 즐기면 혼자서 살아가겠으나 나이가 들수록 혼자면 외로워지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특히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실제 현재 결혼상태인 남성들은 결혼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지금이야 젊을 때야 다들 놀고 외롭지 않게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 40, 50이 넘어가면서혼자는 너무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친구들도 점점 혼자의 삶을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G72】

결혼하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저는 추구하고 싶어서.

【G73】

나) 나의 경력 vs. 경제적 부담

- 결혼을 할 의향이 없는 청년들이 언급한 주요한 이유는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여 이 역시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음. 여성의 경우 결혼이 자신이 사회적 커리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결혼을 꺼리는 반면, 남성들은 결혼문화부터 작용하는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로 언급하였음.
- 남성들은 결혼을 하고 싶기는 하나 현재 결혼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음. 결혼식 자체뿐 아니라 혼수, 집 등의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현재 결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임.

저희 몇 년 전에 동수저나 그런 것들 있듯이 흙수저나 오히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에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형성되면서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장벽으로 좀 더 생긴 것 같고, 또 현실적 요인으로 아무래도 집값이나 그런 외적인 부분도 큰 장벽이겠지요.

【G63】

다) 원가족과 자녀의향의 영향

- 결혼의향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자신의 원가족임. 부모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결국 자녀의 결혼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원가족의 행복한 삶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해서 자신도 이러한 가족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음. 반면, 원가족이 권위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싶은 이유로 작용하였음. 한편, 현재 결혼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원가족의

결혼에 대한 압박으로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음.

저희 부모님 보면 그냥 평생 동반자 만나서 저랑 미래 배우자 닮은 아기 낳아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 할 것 같아서 저는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G52】

- 결혼에 대한 의향이 강하지 않은 청년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면 결혼 대신 연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면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애를 낳을 거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지 않을 거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G33】

라) 현재 상황에 따른 다른 태도

- 결혼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행복 추구였음. 결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반면, 삶의 행복과 결혼이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 현재 인생에 만족하기 때문에 결혼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 현재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워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을텐데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회의적이라는 청년들이 있었음.

지금 삶이 좀 만족스럽고 편안해야지 이 사람하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나 살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연애할 때도 마냥 좋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G13】

저는 삶의 목표가 행복해지는 건데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과 직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G65】

현재도 저는 제 인생에 만족하고 있어서 딱히 결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G23】

- 20대 청년들에게는 막연히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확고하게 결혼에 대한 태도를 안 보이기도 하였으나,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부수적이라는 응답을 하였음. 현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막연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결혼 의향과 이유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기혼자들은 자신들이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음. 결혼을 선택했다기보다 연애나 동거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았으며, 누군가와 함께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특성을 보였음.

연애도 아직 안 해봤는데 결혼도 아직 그건 좀 멀었다고 생각해서

【G56】

뭔가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서 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여유가 되면 하고 아니면 만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G16】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오래 만나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겠다. 서로 안정되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그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했어요. 딱 뭔가 계기를 딱 떠올린다 하면 큰 뭔가 이렇게 명확한 계기는 없는 것 같아요.

【G35】

2) 청년들의 자녀에 대한 생각

가) 자녀를 선택하지 않는 다양하면서도 분명한 이유

- 결혼을 선택하는데 있어 명확한 이유가 없는 특성을 보이면서도 자녀를 낳을 생각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던 청년들은 자녀를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표현하였음.
-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 역시 경제적 부담과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음. 책임질 자신이 없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그 기저에는 경제적 부담과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이 자리하고 있었음.

내가 부모의 준비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키울 자신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안 좋은 생각도 좀 있어요.

【G71】

- 부모역할의 어려움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현재 한국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언급도 다양하게 하고 있었음. 지나친 경쟁 사회,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최근 뉴스화되고 있는 마약문제 등과 같은 현상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자녀를 선택하는데 있어 방해요소로 자리하고 있었음. 즉,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임.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지만 아이들 역시

자라기에 힘든 세상이라고 보았음.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부모됨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임.

저는 자식의 행복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제가 자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미래에 과연 행복할 것인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전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못 지켜줄 것 같은데.

【G64】

세상이 너무 흥흥하고 미래가 기대되지 않고 환경부터 후손 후대가 살 세상은 환경부터가 다르잖아 요.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중략) 너무 힘든 세상이지 않을까 그 아이가 자라나기에도.

【G25】

-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어려움 등이 대부분이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많지 않아 아직 부모역할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었음.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아이를 꼭 낳을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청년들에게는 그럼 낳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았음.
- 남성들의 경우 자녀에 대한 결정권을 여성에게 미루는 경향도 보였음. 결국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야 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아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딩크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배우자와의 합의를 통해 자녀를 가졌다고 하였음.
-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면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반해 남성은 자녀 출산 직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성 참여자들은 자녀 선택에 있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음.

나) 경제적 부담, 자신의 부모만큼 할 수 없는 부모 역할

- 면접에 참여한 청년의 대부분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음.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청년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였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있으나 자신들의 부모만큼 경제적 지원(사교육 등)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들이 인지하는 부모역할이란 경제적 지원을 우선 떠올렸고, 자신들의 부모만큼 자녀에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였음.

- 결혼에 대해 막연하게 먼 이야기로 결혼을 선택하는데 있어 모호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이나 부담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부모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사교육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음.

요즘에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알고리즘 폐해라고 하더라고요. (중략) 상대적으로 나는 이러지 못하는데 이 사람 애들은 매일 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 이렇게 못 해주는데 이게 박탈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해주고 싶은데 욕심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거지요. (중략) 요즘에 복지도 잘 돼 있어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밥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그 욕심을 다 채우려고 아이한테 하니깐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되는 거거든요.

【G74】

- 청년 스스로의 경험과 사회전반에 만연한 사교육을 비롯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은 결국 자녀를 갖고자 하는 기대를 낮추게 하였음. 이러한 경제적 지원 부담은 사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결국 한국사회의 지나친 교육열이 청년들로 하여금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 청년의 경우, 이런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거면 이민을 가겠다고 하였음.
- 한편, 실제 자녀를 낳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 참여자는 경제적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실제 다양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낳는 것이 자산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음. 또 다른 참여자는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생활비가 절감되지 않고 그만큼 다른 부분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주요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였음.

저는 오히려 자산의 증대로 오히려 자산이 증가하면서 오는 수익이 좀 더 많다는 생각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2억에서 3억이 든다고 했을 때 아이가 돌이면 6억이겠지요. 맥시멈 잡아서 6억인데 만약에 내가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나 이런 것을 잘 해서 당첨이 됐다. 다자녀 특례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자를 갚을 때 오히려 자산적 상승은 6억 이상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좀 너무 돈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돈적으로 접근을 해봐서 그렇고요.

【G61】

다)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이유, 경력단절

- 전반적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 성별과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이유는 경력단절이었음. 여성 참여자들은 경력단절이 되는게 아쉽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될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였음. 특히 주변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된 사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인해 자녀를 선택하기가 어려움을 표현하였음.

일단 애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잖아요. 그리고 애가 3-4살 될 때까지는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G34】

저는 결혼은 사실 하고 싶는데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제 커리어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변에서 실제로 여자분이 대기업 과장까지 달고 하셨는데 능력적으로 인정을 받으셨는데 임신을 하자마자 바로 육아휴직하고 아이를 키우시는데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이가 많이 크기 전까지는 24시간 옆에 붙어서 육아를 해야 하니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 커리어를 이렇게 쪽 쌓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G11】

- 남성 참여자의 경우 자녀출산 및 양육이 경제적으로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사회에서 마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 참여자는 회사, 병원, 학교 등의 제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녀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였음.
- 여성 참여자들은 여성에게 자녀 출산 및 양육은 신체적 변화와 심적 부담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나 남성에게는 심적부담만 가져오는 것으로 일상의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여성의 자녀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음.
- 또한 여성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돌봄과 관련한 걱정을 하고 있었음. 지속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을 대체할 사람이 필요하며 이러한 육아도우미에 대한 불안감 역시 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음.

마) 부모 역할 모델 및 원가족 영향

-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이 자녀를 가질지, 가지지 않을지를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원가족 경험이었음. 특히 자신의 부모가 보여주는 역할 모델은 자녀에 대한 청년의 긍정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가져왔음.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부모를 보며 회의감이 들어서 자녀를 가지지 않고 싶어 하거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자신은 할 수 없을 것에 대한 부담은 청년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였음. 반면,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형제자매 관계가 원만한 청년들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보였음.

부모님도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취미생활을 즐기셨던 것도 아닌 것 같고 항상 일하고 저만 이렇게 케어하고 저 다 클 때까지 그게 주었던 것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드는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G16】

여동생 2명 있고 되게 복잡복잡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중략) 일단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 약간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G35】

- 이미 자녀가 있는 형제자매나 부모인 지인들이 보여주는 행복한 모습 역시 청년들이 자녀를 선택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어떤 환경을 주느냐가 중요하며 자신들이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한 청년들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

주변에서 애를 낳았을 때 불행하다 그런 얘기를 못 듣고 다 행복하다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다 이렇게 다 말씀하니까 오히려 그걸 보면서 더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G66】

- 한편, 가족에 있어서 자녀의 중요성을 이유로 자녀를 선택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었음. 즉,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 가족 간 화합이 이루어지고 대화거리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자녀가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며 실제 자신들의 생활도 부부만 있을 때에 비해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 부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음.

거의 반복되는 루틴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대화 주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시간이 지나면은 할 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새로운 주제 그러니까 가족 간에 화합을 대화를 위해서라도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다 되겠지요.

【G72】

3) 다양한 삶, 가족

가) 혈연 vs. 마음

-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혈연이나 법적 관계 이외의 친밀한 관계 역시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 마음만 맞고 서로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이라고 보았음. 서로가 기댈 수 있고 편안하다면 법적 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음. 더불어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생계를 공유하거나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가족으로 보는 중요한 부분이었음.

뭔가 기댈 수 있고 편안한 뭔가 모임이라고 생각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률적으로 꼭 묶어야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 같이 생계를 책임지고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계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친구 이상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G26】

그냥 같이 살고 그냥 마음만 맞으면 다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중략) 가족은 법적으로만 되는 건 옛날 얘기고 그냥 마음만 맞고 자기가 서로 가족이라 생각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G53】

- 반면,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친밀한 관계는 친구 등의 다른 용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는 청년들도 있었음. 법적 관계가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관계를 가족으로 보기 어렵기도 하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가족을 볼 수 없다는 것임. ‘정상가족’의 형태를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기도 했음.

좀 정상적인 그냥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부터 봐온 그런 정상적인 가정을 가족이라고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 아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G73】

확신하는데 아무리 유대감과 친밀감이 그런 관계에서 많아도 아무리 많더라도 그게 법적인 구속을 부여하면 더 강해집니다. (중략)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법적인 혼인이 있어야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절차나 어떤 결합이 없다면 가족만큼의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냥 다른 하나의 형태의 결합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G54】

나) 사회의 변화,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인정

- 청년들은 사회가 점차 변화하고 있고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삶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일부 청년들은 법률상으로 묶으려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프랑스의 팩스(동반자제도)와 같은 것을 통해 부담감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음. 한국사회에서의 결혼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합, 즉 양가의 무거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임.

법률상으로 묶으려고 하면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뭔가 새로운 생명 태어나고 이러는데 너무 법률적으로 묶고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더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라이트하게 팩스 같은 경우는 서로와 서로를 법적 후견 인처럼 책임져만 주면 되는데 가정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률적 혼인은 가족 친구들 다 확인해야 되다 보니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G26】

- 법적 관계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청년들은 동거인은 가족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자녀가 있다면 법적관계가 없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인식하였음. 어린 세대는 법적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대안적 관계를 인정하여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동거인으로서 이걸 가족이라고 따지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헤어지고 그건 연인이거든요. 헤어지고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아가면서 책임의 무게가 갈라지는 것 같은데.

【G72】

조금 아이한테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선택으로 그 친구를 낳았지만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선택으로 한부모의 가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G33】

독일이나 이쪽은 사실혼 관계 동거 사이에도 아예 똑같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 약간 법적인 테두리에 저희 세대나 더 어린 세대는 그런 거 얹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점점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더 책임감을 부여하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G32】

-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같이 생활하고 생계를 공유하고 집안내에서 뭔가를 담당하고 있다면 결혼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특히 이성관계뿐 아니라 친인척과 함께 생활을 공유하며 살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 등에서의 혜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굳이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저도 배우자 남자친구라든가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친척이나 사촌 혼자 사시는 고모든 이모든 같이 가족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가족의 범위를 조금 확장하면서 청약이라든가 이런 데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조금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모랑 살거나 이모랑 살아도 어쨌든 가족이니까 굳이 1인 가구로 한정되지 않고 청약이나 이런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G42】

라. 정책 요구

1) 성평등 정책

가) 인식개선 우선

-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성평등 관련 정책은 무엇보다 인식개선이 중요함을 언급하였음. 사회의 분위기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성평등 관련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다름으로 인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함으로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제도도 제도인데 인식이 안 달라지니까 이러는 것 같아서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G13】

저는 알고 있다랑 공감한다는 다른 것 같거든요. (중략) 회사 정책적으로는 다 이렇게 성평등 보건 휴가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이 다 규칙엔 있지만 공감을 진짜 해주시는 건 아니다 보니.

【G25】

- 성별에 따른 차이와 차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며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성인 대상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일찍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함께 일하고 있지만 함께 가족역할(가사, 양육 등) 수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과 관련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어렸을 때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ая지고 교육도 잘하고 좀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가사는 사실 결국에 집안일이든 육아든 서로 나눠야 되는 문제잖아요. 혼자 다 독박하는 거 솔직히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다시피 같이 얘기를 해서 좀 분담을 하고 그러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G12】

나) 실질적인 교육 필요

- 청년들은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은 유효하며 성평등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는 하나 지금까지 받아온 성인지 교육은 실제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음. 학교생활에서 받았던 성인지 교육은 성교육과 혼동되어 운영되었으며, 그 시간이 실제 인식 변화에 기여하기보다는 그저 ‘자는 시간’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성평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교육은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필요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임. 쇼츠의 형태처럼 20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시대변화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2) 저출생 정책

- 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참여자들은 저출생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가) 인식개선 우선

-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성평등정책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자녀를 낳고 싶고 키우고 싶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임. 아이를 환대하지 않거나 부모의 잘못된 양육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현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제도 사용과 관련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육아휴직 사용을 좋아하고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조직문화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중소기업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임.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차원을 아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단 시피 우리나라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들은 여성들이 육아휴직하면 복직을 해도 별로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직도 잘 안 시켜주는 회사가 많아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니까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업에서 그런 인식을 많이 바꾸고 그기업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G56】

-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인식개선이 필요하기는 하나 공익프로그램 같은 형태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역시 제시함. 인식변화를 위한 내용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행복하고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그와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뭔가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요.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지 갑자기 그런 프로그램이 막 생기고 이러면 아이 없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또 더 나는 아이가 없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왜 그렇게 사회를 이분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이를 갖는 건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하면 최대한 좋은 지원과 환경을 만들어줄게라는 게 돼야지 아이를 가져야만 행복합니다 아이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 특권처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G32】

나) 전기차 지원금보다 적은 출산 지원금, 현금성 지원 보다 환경 전반의 개선

- 현재의 저출생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만 급급하여 실제 자녀를 낳고 키우는 환경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았음. 현금성 지원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전기차 지원금보다 많지 않은 출산 지원금은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하며, 1억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을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보았음. 또한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관에 대한 지원은 결국 부모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임.

전기차 사면 8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애 낳으면 100만원 주고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G22】

사실 애 낳으면 돈 준다고 했을 때 저는 1억을 준다 해도 사실 애기는 안 낳을 거 같거든요. 돈이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아예 없진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아기를 낳았을 때 애를 어디를 가서든 약간 환대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 (중략) 조금 더 잘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아기도 더 갈 수 있는 곳도 많아지고 키우기도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G24】

- 청년들이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교육비의 문제이나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현금성 정책이 없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음. 또한, 부모 또는 보호자 당사자만이 혼자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키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걸 주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될 돈을 화끈하게 줄여 버려야 되는 거지요.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G72】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계속 뭔가 보완해 나가면서 출산해도 나 혼자 이렇게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랑 사회가 약간 같이 책임지고 키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좀 같이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G21】

다) 지속적인 지원, 지원의 확대

- 현재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지나치게 어린 연령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실질적인 돌봄 활동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돌봄 공백이 있는 아동기 자녀에 대한 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너무 어린이에 맞춰져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육아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계속 도움이 가야되는데 너무 5살, 7살 미만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이후에 저학년 애들은 정말 갈 곳이 없거든요. 태권도장 외에는 그것까지 다 케어를 해주는 이제 사회적 구조에서 뭔가 더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낳으라고 말하면 안 낳을 것 같아요.

【G26】

- 현재의 정책이 저소득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을 내고 있는 계층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음.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다자녀 혜택보다는 자녀가 하나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현재 한국사회 상황에서 다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자녀 가족에 대한 혜택보다는 한 자녀를 낳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다자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어느 정책이든 뭐든 그런 것에 중위 소득이든 상위 소득이든 뭔가 그런 청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요즘 보면 다 저소득층 위주더라고요.

【G63】

다들 어느 정도 애매하게 번단 말이에요. 막상 진짜 중산층을 좀 무시하고 배제하는 듯한 살짝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중간에 끼서 뭐냐 살짝 다 모든 정책이 그러니까.

【G66】

- 또한, 청년들은 저출생 대책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낳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낳으라고 강요하는 사회적 압박으로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 싶은 사람에게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낳을 의향이 있는 부부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저출생 대책으로는 난임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임.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자기 너무 안 된다고 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원이 없구나. 그냥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그냥 지원을 해줬는데 정작 그 친구 얘기로는 체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냥 현장에 가서 좀 목소리를 좀 듣고 그거에 맞게 정책을 좀 더 수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G71】

주변에 의외로 난임이나 불임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난임이나 불임 지원을 회사 자체에서도 조금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중략) 조금 더 그런 난임이나 불임 부부 진짜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부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G36】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2. 제언

1. 논의

- 경기도 청년의 성평등 의식과 가족 형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음.

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성평등 의식과 가족 형성의 다른 인식

-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의식과 가족 형성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두드러졌음. 청년세대로 함께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와 30대 청년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성평등 관련 선행연구들과 일관되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성별,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음.
 - 여성이 남성보다 전형적인 성별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았고 성평등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연령에 따른 차이는 성별 차이보다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경제적 역할 수행과 관련한 문항에서 20대가 30대보다 성평등한 인식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음.
-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성평등 의식에서의 차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함. 면접조사에서도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현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경험을 했음을 토로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성장과정에서 명백한 불평등을 경험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취업과정을 시작으로 한 사회에서의 차별 경험으로 인해 불평등에 대한 인지가 높아진 경향이 있음. 이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사회화되어 온 과정에서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 각자 경험한 불평등함만을 토로하는 것에서 벗어나 경험의 차이로 인해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돌봄과 관련한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였음. 성별을 불문하고 여성이 돌봄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여전히 강하였으며, 여성 돌봄자에 대한 ‘배려’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인식을 야기하기도 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에 비해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절하는 여성청년들에게는 노동시장에

서의 가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게 하고 남성 청년들은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평가와 함께 경제활동 역할과 돌봄 역할의 이중부담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음.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돌봄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청년들이 보여주는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청년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윗세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임. 청년들은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평등함은 조직 내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자신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성평등이 아직 요원한 상태이긴 하나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닌 다음 세대에는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음. 이는 조직에서 중간관리자의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청년들의 성평등 의식에 있어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두드러지는 경향성을 보여준 것과 같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한 배려 아닌 배려의 행동이나 배제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함.

나. 청년세대의 높지 않은 가족형성 의지

- 최근 한국사회의 혼인율이나 합계출산율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의향이 높지 않은 경향을 보였음. 명확하게 결혼이나 자녀를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는 하나 아직 유보적이라는 입장의 청년들 역시 적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 결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보다 유보적 태도의 청년이 더 많은 특성을 보여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면접조사에서 유보적 태도를 가진 청년들은 아직 결혼이 현실과 연결되지 않은 미래의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음. 즉,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특히 20대 청년들에게는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인해 유보적 태도가 나타난 것을 해석할 수 있음. 30대가 20대보다 유보적 태도가 적게 나타나는 것도 실질적인 삶의 사건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시사함.
- 자녀에 대한 청년의 태도는 유보적 태도보다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 역시 결혼보다 자녀 선택에 있어 선택하지 않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음. 결혼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이라는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에 반해, 자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를 언급하는 특성을 보였음. 실태조사

에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로 많이 응답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의 의미는 전반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두려움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님을 면접조사에서 나타났음. 청년들이 언급하는 좋은 부모에 대한 두려움은 나의 부모만큼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음. 청년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양육비, 교육비 등과 같은 명확한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좋은 부모라는 의미가 내포하는 경제적 능력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임. 현재 청년세대들은 사교육이 보편화된 세대로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만큼 자신의 자녀에게 지원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지로 인해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임. 이들은 지나친 경쟁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표현했으며,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 현재의 청년들은 ‘1억을 쥐도 낳을 생각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선심쓰듯이 뿌리고 있는 출생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이 자신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보았음.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 자녀를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함.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녀를 낳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환경 변화임. 청년들 스스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 역시 이러한 경쟁사회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 전반의 환경 변화가 중요한 부분임. 기본적으로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나 현재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임. 따라서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환경 변화가 필요함.

- 이러한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 중의 하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터에서의 환경 조성임. 현재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아이 낳기를 선택할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으며, 현실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과 양육 역할 수행으로 인한 어려움은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청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일터에서의 실제 사용에는 제약이 있는 자녀 돌봄과 관련한 휴가 및 휴직 제도, 유연근무 제도 등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변화 및 사용의 용이성 확대가 필요함. 이미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공적 영역에서의 이용자 수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체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경기도 청년의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향과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의향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성차별 경험이었음. 차별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가족 형성에 대한 의지는 차별 경험이 없는 청년들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가족 내 성장과정이나 임금(소득)에서 차별 경험을 한 청년들은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을 경험한 청년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가족 형성 의지를 보였음.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의지에 가족내에서 경험한 차별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득에서의 차별은 가족 형성에 있어 경제적 측면이 중요함을 시사함. 청년들의 차별 경험을 줄일 수 있는 가족문화의 변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차별 완화가 필요함.

다. 다양한 가족 형성에 대한 인식 확대 필요

- 청년들은 가족 형성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만이 가족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가족의 의미가 결혼이나 법적관계, 혈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원 체계로서 역할을 하는 구성원을 가족으로 보고 있었음. 이는 가족 형성에 있어 기존의 혼인이나 출생(입양)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으로만 한정하는 정책에 있어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청년들은 동거와 같이 결혼의 대안으로서 형성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의 형태뿐 아니라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친인척과 함께 생활공동체로서 가족을 형성하는 형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현재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서의 기준은 법적 혼인 관계 및 2촌 이내의 혈연관계만을 포괄하고 있어 3촌 이상의 친인척 관계, 즉 이모나 고모 등과 함께 생활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2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함.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1인 가구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돌봄이 필요한 확대가족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임. 비혼 및 무자녀 가족의 증가는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친족관계에서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형태의 가족 유형을 보여주고 있음. 혈연관계를 포함하는 가족이기는 하나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어 가족으로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청년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나, 책임감 부재를 문제점으로 함께 인식하고 있었음. 삶의 형태는 개인이 선택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책임감이 없는 관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족으로 명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음. 전통적

인 결혼 및 혈연 관계가 주는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정책 확대에 있어서는 책임감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임. 현재는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1인 가구가 되기도 하고, 1인 가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인척간의 2세대 가족을 형성하거나, 비혈연 2세대 가구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다양성에 대한 인지가 필요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삶의 형태로 다양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정 형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2. 제언

가. 학교에서부터 지속적인 인식 개선 교육

- 개인의 성평등 의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애과정에서 가족, 학교, 사회 등의 경험을 통해 형성해 오는 것임. 21세기 청년들에게도 여전히 건재한 전형적인 성역할 태도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나 학교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 형성된 부분들이 두드러졌음. 롤모델로 제시되는 부모의 역할 수행이나 학교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성별에 따른 교사의 태도, 사회에서의 배려로 포장되어 진 성역할 고정관념 등은 청년들의 일상에 자리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성평등에 대한 인식 확산이 중요함.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이분법적 구조에 대한 단편적인 성불평등 인식 수준은 높아졌으며, 향후 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 온정적 차별주의 등과 같이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함. 한편, 학교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나 성인지 교육과 성교육이 혼재되어 추진되어 있고 학생들에게는 ‘잠자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성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평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생활과 연계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청년들은 자라오면서 남성답게, 여성답게를 강요받은 경험보다는 성별과 상관없

이 사회적 성공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화되어 왔음. 개인의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평등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인식된 반면,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가치 교육은 거의 없었음. 결혼이나 자녀가 나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 삶의 다양한 형태 중의 하나로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인식개선의 내용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이 단편적인 내용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대상의 발달 수준에 맞게 삶의 다양한 선택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인구를 늘려야 하고 아이=행복 이라는 공익광고와 같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한 형태로서 가족 형성에 대한 인식 폭을 넓히는 교육을 추진해야 함. 또한 가족과 돌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동 돌봄, 노인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역할 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회적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존의 유사한 교육과 차별을 두는 것이 중요함. 기존의 교육들과 차별화를 두고 성인지 관점을 토대로 하여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성평등 의식을 반영하고 현재 청년세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청년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이로 인해 성평등 의식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인식개선 교육은 이러한 현재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족 형성의 의미가 전형적인 핵가족 형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청년 세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야 함.
- 기존 학교에서 추진되어 온 교육은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성평등 의식과 가족가치관을 포괄하는 교육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양질의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성인지 교육,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다루는 내용이 다르나 같은 교육으로 혼용되어 운영되기도 하는 현재의 교육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성평등 의식 교육을 운영하고 성평등 의식을 포괄한 가족 가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함.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평면적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인식개선 교육이 되기 위하여 양질의 강사 양성부터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식개선은 일회성의 교육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감수성을 높이고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함. 학교에서부터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가족 가치 및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고등학교까지의 정규교육뿐 아니라 성인기로 진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함. 친밀한 관계가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친밀한 관계 교육을 실시하여 그 내용에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 가족 가치관 인식 등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함. 경기도 내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으며 대학 내의 학생상담센터, 성평등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가치확산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또한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추진을 위해 군부대, 직장 등과 연계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저출생 대응 정책

-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이를 낳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 청년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음. 이에 저출생 대응 정책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현재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자녀 의향이 없는 이들에게는 생각을 바꿀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음. 유보적 태도를 가진 이들이 결혼이나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임.
- 우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이를 낳을 의향이 강한 이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난임 부부 지원임. 현재 난임부부 지원은 저출생 대응 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 대상인 한정적이라는 제약이 있음. 난임부부 지원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180% 이하)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부가 함께 일하고 아이를 낳고자 희망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오히려 난임부부 지원 해당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녀 낳기를 꺼려한다고 하고 있으며, 경제적 안정을 일정 부분 취한 이후 자녀를 낳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부

부가 함께 일하며 자녀를 낳고자 하는 경우에는 난임부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아이를 낳고자 하지만 지원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정책으로 난임 부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것 역시 필요함. 청년들의 면접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당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나 아이를 낳고 싶은 청년들을 위하여 난자 냉동 지원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음. 생물학적 제약으로 인해 아이를 낳기 어려운 이들에게 기증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일회성의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함. 자녀돌봄과 관련하여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는 돌봄 지원에서 벗어나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는 양육 수당을 비롯한 돌봄 지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미성년 자녀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친 경쟁 구도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부모의 돌봄 역할을 대체할 기관의 부재 역시 사교육 확산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자녀의 발달수준에 맞는 다양한 돌봄 시설의 확충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여성의 경력 유지가 어려운 부분 역시 돌봄 역할 수행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한 부분이 많음. 따라서,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실질적 지원 확산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자녀 돌봄 지원 대상에 있어 둘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둘째를 낳고자 하는 의향이 생기는 것은 첫째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이 주요한 부분이며, 첫째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경험한 이들은 둘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 자녀 돌봄에 있어 공백이 없고 안정적으로 돌보면서 부모의 일과 돌봄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은 둘째아 출산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부모가 함께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경험을 첫 자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부모의 맞벌이로 양육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로 영유아대상서비스뿐 아니라 초등연령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 우선 지원 확대와 같이 함께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경기도는 ‘경기 360° 돌봄’ 사업 추진을 명시화하였으며, 12세 이하 아동 돌봄에 대한 ‘언제나 돌봄’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가족돌봄수당을 신규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영유아 자녀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와 부모의 돌봄시간 간의 공백이 존재하는 초등연령 자녀 돌봄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 실제 양육자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사교육 영역에서 대체하고 있는 부분인 초등돌봄이며 초등돌봄에 있어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내 돌봄교실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틈새 돌봄의 차원에서 가족돌봄수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다. 체감할 수 있는 돌봄친화적 환경 조성

- 자녀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환경이 아니라는 부분임.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모성권과 부성권을 강조하며 양육자의 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휴가 및 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제도의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지 않음.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정적 메시지는 미디어나 SNS를 통해 많이 접하는 것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노출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는 청년들에게 있어 자녀의 선택은 어려운 결정일 수 밖에 없음.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사회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등의 제도 이용이 높아지고 있으나 모든 사업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음.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돌봄자의 권리로서 휴가 및 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 및 요구가 증가하면서 일·생활 균형 컨설팅, 가족친화 컨설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자체 유일의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을 활용하여 일터에서의 인식 개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사업체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하여 평등한 제도 활용과 제도 활용 용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기도는 인증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기업 등을 선정하고 있으나,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 증뿐 아니라 친화 기업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며,

법적 보장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업체에 대한 제재도 고려해야 함.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 제공이 필요할 것이며, 기본적인 제도 사용조차 용이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문고와 같은 형태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제도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에 있어 실질적인 양육 활동을 하고 있음에 대한 확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다고 보는 것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경우 조직 내에서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음. 평등한 돌봄 참여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이 그 의미에 부합하게 남성의 직접적 돌봄 참여에 대한 인증 방안이 필요하며 더불어 육아휴직 남성들이 적극적인 양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 역시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 남성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 경기양성평등센터의 남성대상 사업인 젠더공감 나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일터에서의 돌봄 관련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 조성은 중요하나, 일상생활에서의 환경이 아이를 키울만한 환경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함. 청년들은 생활 공간에서 접하게 되는 경험들이 아이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였음.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가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사회환경이 필요함.
-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안전이 보장되며 영유아와 같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도 어려움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상의 생활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청년들이 경기도의 신도시가 아이를 키우기에 좋다고 인식하는 부분 역시 이런 안전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임. 신도시 지역뿐 아니라 더 많은 경기도민이 자녀와 함께 일상에서의 생활 안전을 보장받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특히 남성 돌봄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활동을 하는데 있어 성별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돌봄 역할 수행에 있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도록 해야 함. 평등한 돌봄 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남성의 양육 활동 참여에 제약이 되는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남성 화장실의 기저귀대 설치, 자녀와 동반하여 이용하는

시설의 가족 화장실, 가족 탈의실 등의 확충 등은 기본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부분임.

- 청년들은 아이를 환영하지 않는 현재 사회 환경은 부모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아이들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함. ‘내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범과 규율에 대한 훈육을 부모가 해야 한다는 기본적 부모역할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아이가 환영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부모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임.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부모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세를 포함하는 기본적 양육 역할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돌봄기관이나 학교에서도 부모교육에 있어 부모의 기본적 양육 역할에 대한 태도를 포함해야 함.

라. 다양한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

-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가족 유형의 가족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음. 현재 1인 가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2인 가족 이상의 다인 가족을 구성할 수도 있고, 현재 다인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는 1인 가구의 삶을 살아가갈 수 있음.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는 생애주기의 단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인지하고 어떤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더라도 환영받는 사회 환경이 필요함.
- 현재의 가족정책은 혼인 및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가족정책의 영역으로 포괄하고 있음.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그동안 가족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던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청년들은 기존의 결혼 및 혼인으로만 인정받는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서도 가족으로 인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가족으로서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 책임감을 함께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전통적인 가족의 틀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향후 가족 형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삶의 한 형태로서 가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결혼과 혈연관계에서 벗어난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구성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이 완화되었고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증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핵가족에서 벗어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다문화가족, 무자녀 가족 등과 같은 유형의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는 혈연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나 핵가족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 관계로 구성되어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비혼 및 무자녀 가족의 증가는 부모-자녀 간의 돌봄 역할 수행이 친인척 관계 간의 돌봄 역할 수행으로의 확대를 야기하고 있음. 부모가 아니더라도 고모, 이모, 삼촌 등과의 삶을 공유하고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가족이나 사회에서 내재된 ‘부모’로서의 역할은 현재의 청년들이 보고 자란 자신들의 부모로 대변됨. 부모가 행복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지한 청년들은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보인 반면,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가치 확립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향후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태도는 부모의 부부관계 및 자신의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가족형성의 지원은 물리적인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지원만이 아닌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생애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부부관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부부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부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경향 있음.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도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청년들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부모 역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부모역할에 대한 두려움은 이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습한 부모 역할, 특히 사교육 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을 생각

하게 하는 부모 역할이 아닌 부모로서 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은 앞에 제시된 학교교육에서 실시되는 인식 개선 교육에 함께 포함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경기도청. (2023). **2023년 여성가족국 업무편람**.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애순. (2005).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류아현, 김교성. (2022).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112(1), 5-34.
- 마경희, 황정임, 이은아, 문희영. (2021).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문지선. (2021). 혼인 상태별 한국사회의 다차원적 젠더 이데올로기 지형. **가족과 문화**, 33(4), 81-129.
- 박선경. (2020). 젠더 내 세대격차인가, 세대 내 젠더격차인가?: 청년 여성의 자기평가 이념과 정책태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9(2), 5-36.
- 박선영, 이재림. (2022). 한국 청년의 결혼의향 영향요인 메타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1), 107-137.
- 보건복지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 배나래, 소권섭. (2019). 청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사회복지정책적 제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3), 394-399.
- 오신휘. (2022).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분석과 이해: 가족가치관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5(3), 51-86.
- 오영은, 추주희. (2020).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 21, 11(1), 1217-1232.
- 안상수, 김금미. (2008).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성평등의식, 적극적 조치, 공정성 지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99-324.
- 안태현. (2010).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 **노동정책연구**, 10(3), 35-64.
-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가족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이나련, 정유진. (2022). **경기도민의 가족다양성 인식조사**.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32.
- 이순미. (2016). 비혼 청년층의 가족의식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변형과 젠더 차이. **지역과 세계**, 40(3), 1-30.
- 이윤주. (2018). 성인이행기와 관련된 지위의 변화가 청년 남녀의 성역할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30(2), 105-128.
- 임재연. (2021). 한국 청년세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가족가치관 유형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4), 47-74.
- 임혜경. (2020). **경기도 20대 성차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정다운. (2022). **부산지역 2030 청년세대 젠더인식 조사 및 대응방안**.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조성남, 윤옥경.(2000).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논총**, 5, 103-135.
- 조운명, 김영미. (2020). 생계부양자모델 전환기의 젠더규범과 출산 의도: 혼합방법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43(4), 69-97.
- 주혜진.(2015).젊을수록 강한 성평등 인식을 가지는가? - 성평등 인식의 연령효과 검증. **담론** 201, 18(3) ,35-68.
- 진미정, 성미애, 기쁘다. (2023). 성별에 따른 결혼 인식의 세대 차이. **가정과 삶의 질연구**, 41(1), 93-107.
- 최종숙. (2020). ‘20 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 대와 3040 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25, 189-224.
- 탁현우. (2020).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2), 223-244.
- 통계청. (2023). **저출산과 우리사회의 변화**. 통계청 보도자료.
-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Fan, P. L., & Marini, M. M. (2000). Influences on gender-role attitude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ocial Science Research*, 29(2), 258-283.

- Davis, S. N., & Greenstein, T. N. (2009). Gender ideology: Components, predi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87-105.
- Becker, G. S. (1974). A theory of Marriage. In T. W. Schultz(Ed.),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a conference report*(pp.299-35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